

---

第85回서울特別市議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第3號

서울特別市議會事務處

---

日時 1996年5月30日(木) 午前10時

---

議事日程

1. 서울市政및教育行政에關한質問

---

附議된案件

1. 서울市政및教育行政에關한質問 ... 1면

---

(10時 32分 開議)

○議長 文一權;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85回 서울特別市議會臨時會 第3次 本會議를 開議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

1. 서울市政및教育行政에關한質問

○議長 文一權; 議事日程 第1項 서울市政 및 教育行政에 關한 質問을 상정합니다.

(議事棒 3打)

오늘 네 분 議員의 質問이 있겠습니다. 會議進行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네 분 議員의 質問을 모두 마친 후 執行部側의 答辯을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質問하시는 議員께서는 發言時間을 지켜 주시고 執行部에서는 충실한 答辯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質問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交通委員會 所屬 金喜甲議員의 質問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質問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金喜甲 議員; 존경하는 文一權 議長, 그리고 先輩議員님 여러분, 서울市長과 李俊海 教育監, 그리고 關係公務員 여러분, 陽川區 木洞出身새정치국민회의 소속 交通委員會 幹事を 맡고 있는 金喜甲議員입니다.

歴史的인 民選自治時代의 막이 오른 지도 이제 만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지난 1년동안 과연 서울市政은 얼마만큼 달라졌고 서울市民은그 달라진 市政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지 우리부터 自省의 시간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가 市民이 느끼는 問題들이 솔직히 토로되고, 그 토로된 問題點들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함께 智慧를 모으는 진지한 場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本議員의 質疑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6·27 地方選舉에서 市民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市長에 취임하신 趙淳 市長, 저는 지난 5月 17日 東亞日報에서 檢察搜查記錄 記事를 본 바 있습니다. 당시 암울하고 서슬퍼런 獨裁政權의 회유와 협박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건 所信을 지키기 위해 新軍部 동참을 거부한 趙淳 市長이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時代는 옳은 것은 옳다고,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진정한 용기 있는 指導者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1年 동안 趙淳 市長이 직접 市政을 담당하면서 느낀 소감은 무엇이고, 市長 스스로 그 점수를 매긴다면 과연 몇 점이나 되는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들어 서울市에서는 堂山鐵橋 撤去方針, 서울市 交通 綜合對策, 風致地區 전면손질 등 市民生活과 직결되는 중요한 政策決定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러한 政策들이 옳고 실효성

이 있느냐 하는 問題는 論外로 치더라도 적어도 그 節次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政策決定들이 市民들의 輿論收斂이나 議會와의 事前協議, 事後報告 등이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軍事作戰을 방불케 하는 전격적인 決定과 그 施行만이 있었을 따름입니다.

本議員은 이 기회에 趙淳 市長의 對議會觀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議會와의 業務責任을 지고 있는 崔洙秉 政務副市長께도 향후 어떠한 制度的 裝置를 가지고 어떻게 議會와 협의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室·局長 및 公社 社長들께서도 공식적인 常任委員會 이외에 議會와 충분한 의견교환 및 의사소통의 場이 마련되고 있는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에 하나 議會를 通過儀禮나 要式的인 절차쯤으로밖에 생각하지 않는關係官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어 정중하게 충고드립니다. 任命職市長 시절의 타성에서 벗어나 주십시오.

특히 交通管理室長, 內務局長, 本議員이 市政質疑를 준비하기 위해서 資料를 요청한 지가 벌써 언제입니까? 어제 낮에 서야 資料를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高速鐵道の 서울市 區間通過에 대해 趙淳 市長님의 확실한 입장표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위 事案의 경우 지난 3年 동안의 지루한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本 事案은 서울市와 建交部 두 機關의 자존심 경쟁대상도 아니며, 두 機關이 협상을 통해 결정할 事項도 아니고, 서울市的 일방적인 地域利己主義로 매도할 성격도 더더욱 아닙니다. 이 문제는 적어도 100年뒤의 首都서울의 모습을 결정할 중대한 事案입니다. 市長께서는 始發驛을 어디로, 驛舍는

지상, 지하 중에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단호하고 명백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13일 발표된 서울시 交通綜合對策에 대해 묻겠습니다.

本議員은 市當局이 交通政策의 기본을 大衆交通에 두고 승용차 이용의 減縮이라는 總論은 전폭적으로 찬성입니다. 하지만 세부적인 各論에서는 무언가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의구심을 버릴 수 없습니다. 그 理由는 그 交通對策이 科學性과 合理性이 결여된 채 進行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市當局은 交通學에서 交通의 흐름을 분석하는 가장 基本方法인 出發地-到着地 調査, O-D調査를 進行하지 않았습니니다. 과연 首都圈 주변衛星都市에서 서울 都心地로 얼마만큼의 人口가 어떤 曜日과 어떤 時間帶, 어떤 交通手段을 이용해서 流入되고 있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서울市民은 各 時間帶別로 어떤 交通手段을 통해서 어느 方向으로 이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精確한 데이터가 있어야 이를 根據로 지역별, 권역별 交通需要를 분석하고 長래 交通需要를 어떻게 分산할 것인지 合理的인 交通手段이 결정될 것입니다.

本議員이 알기로는 서울시에서는 단 한차례 綜合적인 O-D 調査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데이터가 있다면 資料를 提出해 주시고, 앞으로 O-D調査 데이터 확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실 것인지 밝혀 주십시오.

堂山鐵橋 撤去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本議員은 우선 工學技術的인 측면에서 세로보 交替가 옳느냐, 아니면 전면 교체가 옳느냐를 이 자리에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많은 專門家들의 논쟁이 있었고 또 市民의 안전을

우선으로 판단한 고도의 政策 判斷을 내리신 市長의 意見을 존중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습니다.

첫째, 올해 年末까지 堂山鐵橋의 撤去는 物理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냐 하면 5號線 잔여구간 工事が 올해안에 완공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과연 市長께서는 堂山鐵橋를 언제 撤去하실 것인지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地下鐵 5號線 잔여구간과 西江大橋는 언제쯤 완공되는 것인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堂山鐵橋의 撤去 및 再施工을 왜 地下鐵公社側에 맡기셨습니까?

엄밀히 판단한다면 地下鐵公社는 地下鐵의 유지, 관리 업무를 맡고있는 機關입니다. 최초 堂山鐵橋 施工과 관련도 있고 경험도 있는 地下鐵建設本部라고 하는 組織이 서울시 안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鐵橋 施工의 경험이 전혀 없는 公社側에 이 중요한 工事を 맡긴 市長의 판단은 과연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答辯해 주십시오.

本議員이 우려하는 것은 地下鐵公社는 최근에도 보듯이 勞使爭議에 휘말려 또 한차례의 파업위기에 치닫고 있습니다. 과연 이 堂山鐵橋의 再施工이 이렇듯 중차대한 任務가 만에 하나 勞使間의 爭議로 말미암아 영향을 받는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堂山鐵橋 撤去方針이 너무 급작스런 졸속결정이 아니냐는 市民의 따가운 輿論이 있습니다. 물론 市長께서 내리신 판단을 존중하지만 적어도 이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는 사전에 충분한 技術的 檢討, 교통대란의 對策, 交替時 어떠한 工法 등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충분한 意見收斂 節次

를 거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市長의 意見を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午前 2期 地下鐵이 763곳이나 부실한 設計로 말미암아 構造缺陷이 발견되었다는데 도대체 이를 누가 책임질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특히나 5호선 忠正驛은 바로 堂山鐵橋의 撤去 후 예상되는 교통대란을 막을 바로 都心區間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對策報告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는 7月 1日을 기하여 시내버스 全 路線에서 실시될 시내버스카드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同 制度의 가장 큰 맹점은 이 制度가 얼마만큼 장래의 計劃과 設計를 가지고 進行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버스카드와 지하철카드의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아마 地下鐵은 별도로 지하철카드를 추진하여 이미 국민카드사와 假契約을 맺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버스카드와 지하철카드는 각각 다른 기술적 시스템에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 택시의 경우 기존에는 신용카드가 使用되고 있습니다. 버스 따로, 地下鐵 따로, 택시 따로, 시스템의 標準化와 互換성이 전혀 없이 無秩序하게 推進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버스카드와 지하철카드가 달라야 될 하등의 理由가 어디 있습니까?

버스카드와 지하철카드가 이 시스템의 互換性 없이 각각 獨自的인 인프라를 구축해서 費用이 投資된다면 그로 인한 혼란과 費用負擔은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本議員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釜山廣域市에서는 이미 하나로교통카드라는 制度를 올해 4月부터 시범 실시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制度는 하나의 카드로 버스요금,

지하철요금, 택시요금이 결제되는 편리하고 技術的으로 앞선 카드제도입니다. 또한 이는 문정수 釜山市長의 選舉公約으로 市長이 직접 투자단계 초기부터 챙기고 技術的인 檢證과 시스템의 標準化를 직접 챙기고 이렇게 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市 實務者들은 서울市에서 97년에야 비로소 버스와 地下鐵을 한 장의 카드로 이용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市當局者는 카드업계의 대변자입니까, 市民의 공복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의 보통 市民 한 사람이 소지하는 카드가 신용카드 한 개, 직불카드 한 개, 현금카드, 전화카드, 백화점카드, 의류카드, 진찰카드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10餘 種을 주머니에 담고 있습니다. 이제 서울市에서 버스카드 따로, 지하철카드 따로, 이후에 추진될 주차장카드 따로, 혼잡통행료카드 따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카드의 혼란 속에서 헤맬 市民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市長께 묻겠습니다.

交通特別企劃團에서 기존 추진방식을 완전히 백지화하고 버스, 地下鐵, 택시, 混雜通行料, 주차장카드 등을 통일적으로 하나의 카드로 통합 사용할 수 있도록 技術的인 검토와 시스템운용을 指示할 의향이 있습니까?

또한 建設交通部와 협의해서 15個 市·道에서 運營되는 大衆交通料金 결제방식이 他地域間에도 호환성이 유지되어 서울카드가 釜山에 가서도 사용될 수 있도록 建議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文化體育部の 施設인지 서울市的 體育施設인지 분간이 곤란한 木洞運動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本議員이 입수한 資料에 따르면 최근 서울市는 大韓蹴球協會의 要請으로 木洞주경기장을 월드컵 축구 전용구장으로 文化體育部와 無償賃貸契約을 맺으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54億원을 투자해 만든 室內氷上場은 89년부터 98년까지 文化體育部 傘下機關인 동계체육센터에 10年間 無償使用케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렇게 無償賃貸도 억울한데 막대한 市費 約 200億원으로 추산됩니다, 200億원을 投資해서 주경기장의 구조개선을 통해서 전용연습장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 서울市の 體育施設이 이렇게 유린되어도 되는 것입니까?

이 地域의 특성상 運動場은 접근할 大衆交通도 없고 乘用車 이용이불가피한데 최근 市當局의 公共施設 駐車有料化 方針으로 그나마 體育施設을 이용하던 인근 목동아파트에서는 급기야 포청천 趙淳 市長을 원망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傍聽席에는 木洞어머니들이 趙淳 市長께 탄원을 하겠노라고 바로 찾아와 계십니다.

市長께 묻겠습니다.

첫째, 設計가 잘못되고 交通이 불편하여 無用之物化된 주경기장 및 야구장을 地域住民의 生活體育空間으로 그 用途를 전면 재조정하여서 각종의 스포츠센터로 활용할 의향이 없는지요? 아울러 木洞運動場에 자전거 접근로와 자전거 보관소 등을 확보해서 서울市民의 文化空間과 休息空間으로 활용할 수 있는 方針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財團法人 동계체육센터는 지난 6年동안 실내빙상장에 매점, 스낵코너, 대형식당, 체육복 판매장 2곳 등을 불법적으로 유상전대하고 심지어는 유명브랜드와 함께 의류판매장으



로 變則運用하고 있는데 이를 市當局이 默認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초 許可條件인 第10條 施設物의 전대 및 권리 양도 행위 금지 위반으로 許可取消事由에 이는 해당된다 하겠습니다. 許可를 取消하여市 直營으로 운영할 의사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실내빙상장내의 施設物을 無斷으로 用途變更해서 有償賃貸하는 실태를 언제, 누구에게, 얼마를 받고, 어떻게 사용토록 했는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 택시의 외부광고사업에 대해서는 書面으로 質問하겠습니다. 아울러 木洞과 上溪燒却場 문제에 대해서도 書面答辯 부탁드립니다.

李俊海 教育監께 묻겠습니다.

고질적인 教育界의 병폐인 補充授業費 용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市教育廳이 提出한 私立高 補充授業 管理手當 支給狀態 資料에 의하면, 현재 58個校中에 補充授業管理手當 名目으로 補充授業과는 관련이 없는 校長이나 校監, 庶務課長, 擔當主任들에게 비용이 과다하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月 30萬원 이상의 管理手當을 지급하고 있는 學校名, 學校長이 누구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補充授業費의 決算書를 公開하는 學校와 그렇지 않은 學校를 구분하여 資料로 提出해 주시기 바랍니다.

學校運營委員會의 구성과 관련해 묻겠습니다.

學父母 運營委員의 선출방법과 관련, 條例는 學父母 總會 選出을 원칙으로 정해 놓고 있음에도 최근에는 몇몇 地域에서 아직도 學父母를 正當한 學校 運營의 주체의 구성원으로 생각하지 않고 선생님 기쁨조 정도로 여기며 學父母 委員의 間

選制를 試圖하는 구태의연한 작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條例 制定 이후에 學父母 運營委員 選出을 學父母總會가 아닌 間選制 方式을 채택하여 選出하려고 하는 學校는 어느 學校 몇 個 學校인지 밝혀 주시고, 條例 制定당시 根本趣旨인 직선방식을 일선학교에 시달할 의향은 없는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質疑를 마치며, 지금까지 本議員의 質疑를 敬청해 주신 先輩議員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文一權 議長, 金箕英 副議長과 司會交代)

○副議長 金箕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內務委員會 所屬 崔光雄議員의 質問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質問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光雄 議員; 존경하는 先輩議員님 여러분, 趙淳 市長님과 李俊海 教育監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道峰區 第2選舉區 出身 民主黨 所屬 內務委員會 崔光雄議員입니다.

제한된 15분간의 짧은 질문시간, 이 엄청나게 복잡한 서울 行政에단 한 쪽지도 제대로 살필 수가 없어서 상세한 내용은 서울市議會會議規則 第70條第3項 規定에 따라 미리 제출한 質問原稿로 대신하기로 하고, 이 자리에서는 요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그렇지만 答辯은 편의상 本議員이 각 質問 앞에 번호를 매겨놨으니까 하나하나 유의해서 성실하게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趙淳 市長님께 묻습니다.

1. 政治적으로 민감한 事案입니다만 大權候補 問題를 거론하겠습니다.

얼마 전부터 自民聯 등 大邱出身 일부 政治人들에게서 野圈

單一의 趙淳 大權 候補論을 거론하고 있고 계속 報道가 나오고 있습니다. 昨年 選舉 때 5月 23日로 기억합니다만 公約發表에서 "저는 다른 政治的인 야심이 없습니다. 大權을 위해 서울市長職을 징검다리로서 이용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오직 서울 살리기에만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라고 밝히신 바 있습니다. 지금도 그 약속 여전히 유효한 것인지 答辯해주시기 바랍니다.

民選市長을 맞이한 우리 서울市民들의 오랫동안의 기쁨, 큰 기대가 훼손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순수한 충심에서 묻는 것이니만큼 확실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 自治時代의 동반자인 民選市長께 地方議會 議員으로서 묻겠습니다.

부활된 2期 地方議會와 民選團體長, 이제 본격적인 地方化 時代에 걸맞게 中央政府의 권한이 地方에 대폭 이양될 것이 예상되고 地方行政의 복잡 다기화, 전문화되는 추세에 맞춰 주민 福利增進과 地域發展을 위해 地方議員들에게는 무한한 議政活動이 요구되고 있고 이에 따라 議員의 專門化, 전업화 현상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專業議員으로 매달려도 시간이 모자라도 한참 모자랄 지경입니다.

資料 蒐集이나 지원 기능을 위한 인력이 시급한 것은 지난 1年을 경험한 本議員 혼자만의 문제의식은 아닐 것입니다. 더욱 많은 民願이 폭증하고, 사람이 없어서 혼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오늘날 市政의동반자 서울市議員들의 냉엄한 현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地方自治法施行令문제입니다. 맥시멈으로 잡아도 月 120萬원에 불과한 議政活動費와 手當, 단돈 10萬원에 비서를 채용하라는 補助活動費, 명예직이라는 허울 아래 補佐官制 도입을 그토록 반대하고 있는 政府, 醫療保險

도 안 되고, 빚 保證 단돈 500萬원도 설 수 없고, 심지어 생계가 막연해서 市議員 사퇴까지도 고민하고 있는 이 현실, 이 현실에 대해서 施行令을 다루는 國務會議에 참석하는 일원으로서 우리 市長님께서 한번생각은 해 보셨는지, 幹部會議 때마다 강조해 오고 협조를 당부하는 市政의 동반자 우리 市議會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밝혀 주십시오.

3. 中央政府와의 豫算 및 事務調整 問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 94年度 기준 內國稅 총액 38兆 4,490億원, 서울市民이 15兆 6,719億원을 내니까 40.7% 점유, 96年 地方交付稅 6兆 1,313億원 중 40.7%인 2兆 4,954億원, 우리 서울市에서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푼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電話稅의 100%, 酒稅의 80%, 土超稅의 50%를 재원으로 하는 地方讓與金 2兆 4,325億원, 서울市民이 30%가 넘는 7,300億원 정도를 부담하면서 역시 단 한 푼도 못 받고 있습니다. 합쳐서 3兆 2,275億원 한푼도 못 받고 눈 뜨고 그냥 뺏기고, 全國의 國庫補助金 中 단 1%만이 서울에 배정되는 서울特別市가 아니라 서울特別 무시의 民選時代, 地方時代의 현주소입니다.

政府豫算 대비 서울市 豫算이 해마다 비중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市議會가 부활된 첫해인 92年度부터 이상하게도 政府豫算 신장을 보다 오히려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國家委任事務費로 몇 천억씩 아직도 해마다 서울市는 봉이 되고 있습니다. 法令에 근거한 것, 근거도 없이 관행상 지원하는 警察 支援金, 하다못해 國防部 剩餘資源處理計劃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公益勤務要員의 봉급 54億원도 서울市와

各自治區가 묻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찾아보면 한두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昨年末로 서울시의 單位事務는 5,288건, 이 중 30.9% 1,633件이 國家事務입니다. 市本廳과 事業所 1萬 7,000 公務員, 비율대로 치자면 5,200餘 名쯤이 서울시에서 봉급받으면서 國家事務에 종사하는 꼴로 되어 있습니다. 今年度 所要經費를 일일이 계산을 해 봤습니다. 각종 人件費, 辦公費, 福利厚生費 등등 약 900億원쯤 되는 돈이今年에도 國家事務를 위해서 소요되는 서울시의 공식적인 인력비용입니다.

1주일 전에 말쟁이 되었던 民防空警報統制所의 사이렌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유지, 보수, 운영비용으로 서울시는 해마다 십수억원씩 쏟아붓고 있는데 國庫補助金은 단 한 푼도 없습니다. 현행 地方自治法 第8條 規定 별표1에 따라 어거지로 市·道事務로 분리해 놓고 있습니다만, 어저께 金義在 副市長께서도 이 業務에 대해서 國家的으로 매우 중요한 國家事務이므로 장기적으로 國家가 직접 관장토록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죄 없는 우리 民選市長님, 民選이라는 이유로 즉각 사과까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책임져야 되는 內務部長官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냥 이대로 있어서는 市民들 기대에 부응할 수 없습니다. 획기적인 對策을 강구해야 합니다. 政府와 직접 맞설 각오를 해야 합니다. 國家事務豫算지원 중단도 불사해야 되고 수행 자체도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최근 建設交通部에서 國策事業特別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地方을 무시하겠다는 것입니다.

內務部에서는 民選 地方自治團體員의 월권과 탈법행위에 대해서 징계처벌권을 갖는 地方自治法 改惡을 추진한다고 합니

다. 너무도 어이가 없습니다.

民選 市長님의 확고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 警察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91年 警察廳 발족 전까지 서울市長의 일개 참모에 불과했던 서울市警局長, 警察業務가 國家事務로 되어 地方自治團體가 업무에 関여할여지가 전혀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아무 法的根據도 없이 임의적으로 막대한 地方豫算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警察業務에 계속 갖다마치고 있습니다. 今年에도 市警別館 신축비 등 각종 명목으로 84億 9,000餘 萬원을 지원하고 있고, 95年 기준 각 自治區廳은 과출소 3,099名의 방범원 人件費로 504億원을 부담하고, 今年에도 2,200餘名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地方自治團體나 地方議會는 公권력 발동의 필요성이 제기되어도 눈치나 살살 보는 등 전혀 関여할 수 없게 行政이 처리되는 비효율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警察法 等 關聯法수를 개정하여 地方自治制警察을 도입해야 합니다.

서울市長 소속 하에 서울特別市地方警察委員會를 설치하고 市長과 市議會가 선출, 임명권을 가져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市長님의 高견을 구합니다.

昨年 12月 定期會 市政質問에서 企劃管理室長이 答변한 것처럼 市警察廳에 豫算을 지원하는 업무에 대해서 監査를 실시해야 합니다. 今年度 定期監査 計劃이 있는지, 反映이 되었는지 答변 바랍니다.

市가 최근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市民들이 市에 요구하는 交通關連 시급한 대책, 도로 지능화 연구, 일방통행

로 확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어느 것 하나 市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 이런 法도 다 있습니다. 交通施設과 관련한 것이면 우리 서울시에서 월급을 주는 技能職 公務員 40餘 名이 전문적인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警察公務員들이야 근무순환이나 補職變更에 의해 專門性이 결여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全權은 警察이 갖고 서울시는 막대한 豫算만 갖다 바치고 權限은 없고, 市民輿論은 市長에게만 향하고, 94년부터 새로 생긴 버스전용차선 위반범칙금이라는 것, 재주는 곰이 부리고 20億원만 서울시 것이고, 警察은 단 순히 제가 계산해 봤습니다만, 7배 쯤으로 추산되는 백수십 억원을 그냥 끌걱 하고 있습니다. 이 돈, 政府 一般會計로 잡히니까 단 한푼도 서울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지 않습니다.

靑瓦臺에 改善을 강력히 요구해야 합니다. 內務部와의 실력 대결도 불사해야 합니다. 강력한 수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來年度豫算編成 요청이 오게 되면 편성 단계에서부터 國費 없는 國家委任事務 費用은아예 제외시키고, 法令에 있는 敎員 俸給 같은 것도 과감하게 한번 무시해 봐야 합니다, 아직까지 현행 地方自治法 第157條 規定이 적용되고 있으니까.

法令에 위반된 處分을 하더라도 中央政府는 是正을 명할 수 있을 뿐이고, 이마저도 우리가 大法院에 訴를 제기하면 그만이고, 履行命令執行停止決定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訴訟과 爭點이 되다 보면 내용을 알게 된 우리 市民들의 여론도 우리 편으로 충분히 끌어 낼 수 있습니다. 議會는 거기에 대해서 화답해서 決議를 하는 것입니다. 간섭과 지배만 하려고 하는 못된 中央政府, 內務部 폐지, 地方自治處로의 역할 축소, 변경추구 결의안을 우리議會에서 내는 것입니다. 今年

까지 豫算 지원된 國家事務에 대해서 行政事務調査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地方自治時代가 활짝 열렸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民選 市長님의 의지가 있는지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 地方時代의 監査方向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民選 團體長이 출범한 지금 새로운 監査方向과 내용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地方自治制度 근본취지가 統治權 분권에 있는 만큼 國家的 차원에서 自治團體에 대한 監査權도 이에 상응한 수준으로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 조정,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基本이 되는 地方議會의 監査를 충실히 받겠다는 執行部의 자세가 우선적으로 요구됩니다.

(4) 財産管理 分野입니다.

그 동안 서울市の 자주적 운영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행적으로 中央政府 機關이나 산하 公企業, 외국대사관에서 서울市 所有財産에대한 점용료나 사용료를 현저하게 낮게 내거나 아예 내지를 않아 왔습니다.

일부 權力機關에서는 서울市 財産을 무단으로 사용해도 市는 이에대한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하지 않았고, 상응하는 過怠料를 징수하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市金庫 상업은행과의 예가 있습니다. 監査室長이 시인했습니다.

警察에 대한 特惠를 보겠습니다.

警察法 施行이 5년이 됐건만 여전히 警察은 땅 12萬 500餘 坪, 建物 3萬 6,000坪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文井洞에 있는 約 8,000餘 坪의 땅, 95年 3月 1日부터 3年間 서울警察廳의 기동대 훈련장으로 무상사용 허가됐는데 이제 민선시대 출범했으니 다시 契約하자고 해야지요.



市長님, 지금 기동대 출동요청 하면 즉시오기는 옳니까?

싼 값으로 대부해 주고 있는 경우는 부지기수입니다. 경찰공제회, 자유총연맹 서울시지부, 새마을운동 서울시지부에서 하고 있는 민방위교육장 매점, 을지로 별관의 미국 대사관의 도서관, 이외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급격한 대부로 인상률을 방지하기 위해 신설된 公有財産管理條例 第23條의2,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적용되지 않아서 대부로 현실화 의지를 의심케 할 뿐입니다. 市議會는 무엇하러 있습니까? 議會가 제정해 준 上位法人 公有財産管理條例 第29條에는 財産價格을 비치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下位法人 規則에서는 아예 기재란조차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民選市長이 출범한 서울特別市の 財産管理 현주소인 것입니다.

地方自治란 풀뿌리 민주주의의 구체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과거의 특권적인 형태는 새로운 民選市長의 등장으로 파헤쳐지고 정리돼야 합니다.

民主主義란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와 공정한 집행의 원리인 것입니다.

4. 教育監께 묻겠습니다.

(1) 學校運營委員會條例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난번 臨時會에서 우리 議會가 條例를 제정했습니다만, 겁도 없이 自治法規인 條例違反은 물론이고 無法과 權威主義의 못된 校長 한 사람을 소개할까 합니다.

江西區에 있는 新西中學校 校長인데 이 校長은 자기가 大法院인지멋대로 條例 第22條 規定, 條例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學校에서 정한다는 조항을 자기 입맛에 맞게 해석해서 委員 選出에 관한 규정을 가관으로 만들었는데 한번 들어 보십

시오.

教育經歷 5年 이상이면서 教育長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자기 멋대로 정하려면 우리 議會는 무엇하러 있습니까? 教育委員會는 무엇하러 있습니까? 敎員 전체의 심의를 거쳐서 學校長이 정한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이 교장선생님 왈, 審議는 말 그대로 審議니까 구속력이 없으니 그냥 들어만 주면되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멋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선생님, 사회 시간에 우리 아이들에게 內閣의 審議權을 이 따위로 가르치고 있습니까?

학부모 위원 선출을 보면 아주 웃기지가 않습니다. 기존의 育成會를 學父母會로 명칭만 변경 부활시키고, 이 學父母會에서 선출한 會長과 副會長이 당연직 學校 運營委員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條例가 무엇입니까? 휴지조각이 됐습니다.

教育監,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명백한 條例違反, 公務員服務規程 違反, 命令 不履行, 人事措置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教育廳에서 어떻게 준비를 해 왔기에, 어떻게 홍보를 하고, 어떻게 지도를 하고 있기에 대다수 평교사들과 학부모들을 무시하는 이런 과행이 첫걸음마에서부터 나타나고 있습니까? 밑으로부터의 教育改革의의지, 그 의지를 모아서 教育監께서는 분명한 答辯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2) 초·중학교 학생들, 쉬운 셈과 한글도 못 깨친 아이들에 대한 대책을 원고에 나와 있으니 밝혀 주시고,

(3) 초·중·고 소년소녀가장 697명에 대한 대책과 맞벌이 부부, 결손가정의 16萬명이 넘는 아이들에 대한 대책으로 學校에서 실시하는 放課後 프로그램, 公共機關에서 하는 放課後

學校, 깊이 있게 연구해서 해보라는 당부를 드리고,

(4)번과 (5)번은 道峰區의 초등학교와 인문고 절대부족 문제인데 확실하게 答辯해 주시고,

(6) 촌지 근절대책,

(7) 월드컵도 좋지만 꿈나무 육성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質問에 대해서 答辯을 해 주십시오.

질문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나머지 人事分野에서 專門職 採用問題와 教育訓練問題, 市 職員勤務與件, 地域性 있는 人事問題, 女性差別의 人事, 軍經歷 加點廢止問題, 女性昇進 割當制, 女性政策室 新設 導入問題, 市民團體 事業費支援問題, 行政事務錯誤 補償制 導入, 豫算不正防止條例, 調整交付金 加算交付 및 特別交付 問題, 消費者保護條例, 障礙人用 버스, 地下鐵 內 便宜施設, 장묘 사업과 관련해 市立墓地 추진할 용의, 食品接客業所 深夜營業緩和用意, 保健醫療體系의 現況과 對策, 應急醫療體系 問題, 交通分野에서 개인택시 車庫地, 버스專用車線, 순환합승 택시제도 導入 用意, 下水處理問題와 맑은물 問題, 都市計劃委員 강남편중과 都市公園, 高度地區, 資材管理問題, 屋外廣告物 問題, 住宅問題, 地下鐵公社와 都市鐵道公社의 통합, 施設管理工團 분담 專門化 문제, 市立大에 관련한 問題, 시민아파트, 어린이 교통사고, 漢江 支川 整備, 體育施設 등 나머지 문제는 이미 미리 제출한 원고에 상세하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本議員이 지난 1年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한 내용들입니다. 제한된 시간, 우리 議會會議規則을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質問하기로 하고, 議長께서는 本議員의 정리된 전체 질문원고, 議事課에 미리 제출

했습니다만, 이 내용을 정리된 질문원고를 速記錄에 기재될 수 있도록 인정을 해 주시고, 執行部에서도 모두에서 당부한 대로 한 문제 한 문제에 대해서 本議員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地方自治行政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성실하게 준비한 내용들인 만큼 우리 執行部側에서도 마찬가지로 성실하고 진지하게 빠짐 없이 答辯 주시기 바랍니다.

答辯時間 역시 부족하니까 書面答辯도 괜찮습니다만, 두 가지만 지켜 주십시오.

중요한 政策方向에 관한 부분은 이 자리에서 答辯을 해 주시고, 書面答辯書는 반드시 會議錄에 기재를 해 가지고 모든 우리 先輩議員님들과 市民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신 先輩議員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副議長 金箕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內務委員會 所屬 慶奎福議員의 質問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質問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慶奎福 議員; 존경하는 文一權議長님, 先輩·同僚議員 여러분, 그리고 서울市民의 日常生活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울시 市政發展을 위하여 不徹晝夜 수고하시는 趙淳 市長님, 5萬 서울시 公務員과 수도 서울의 教育을 責任지고 계시는 李俊海 教育監과 關係公務員 여러분, 傍聽席에서 傍聽하고 계시는 서울市民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新韓國黨 所屬 江西區 第2選舉區 出身 內務委員會 慶奎福議員입니다.

第85國 臨時會議場에서 市政質疑를 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

게 생각합니다. 本議員의 質問에 答辯하시는 趙淳 市長과 關係官께서는 質疑에 소신 있게 答辯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서울시 自轉車專用道路를 建設할 計劃이 있는지, 計劃이 있다면 計劃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의 道路率이 19.58%라는 높은 比率에도 불구하고 근 거리를 自轉車로 出·退勤할 수 있는 自轉車專用道路가 없는 실정입니다.市當局은 自轉車專用道路를 既存 車道를 최소한 활용, 바깥 가장자리나 駐車區域 等を 일부 용도 전환하는 방식 등으로 안전한 自轉車專用道路를 확보하여 市民들에게 自轉車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여 職場人의 出·退勤과 학생들이 自轉車로 통학할 수 있게 自轉車專用道路를 만든다면 첫째, 本人의 健康向上과 둘째, 에너지 節約, 셋째, 駐車問題解決, 交通의 원활한 疏通, 넷째 公害汚染防止 等 環境改善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市長의 見解는 어떠한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再生紙 使用 定着方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쓰레기 分離收去를 한 지도 1年 반 이상이 되었으며 서울시 民이 分離收去에 앞장 서 폐자재 활용이 잘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GNP가 훨씬 높은 先進國에서도 廢資材를 再活用하여 재생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 政府部處에서도 재생지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재생지를 어떻게 활용하며, 그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또한 재생지로 명함만 만들어 사용하여도 年間 80億원의 外貨를 절약한다고 합니다. 市長께서는 재생활용지 計劃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셋째, 江西區 禾谷 2·4·8洞 地域을 지나는 곰달래길

1.5km 區間은 他地域보다 交通通行량이 많으나 현재 왕복 2 車線 도로로 교통이 매우 혼잡할 뿐만 아니라 주위에는 京仁 高速道路가 접하고 있습니다.

현재 禾谷 4洞 844번지, 843번지와 陽川區 新亭洞 880번지, 881번지로 京仁高速道路를 횡단하는 고가 인도는 설치되어 있으나 車輛道路가 없어 곰달래길의 교통소통이 매우 혼잡합니다. 차량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추가로 차도를 설치하여 줄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消防에 대해서 몇 가지 質問을 하려고 했으나 대림 종합상가 火災 現場에서 火災鎮壓 作業中 殉職한 직원이 있기 때문에 서울消防이 喪中이나 다름없어 危險物 安全管理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1980年 以前에 건축한 소형상가건물 대부분이 자재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建物施工 方式이 기둥이나 벽체는 벽돌로 쌓고, 바닥만 철근 콘크리트로 施工하였기 때문에 건물에 큰 충격이나 火災가 발생하면 三豐百貨店이나 금번 火災로 붕괴된 대림종합상가처럼 콘크리트 바닥이 폭삭 내려앉는다고 봅니다. 이러한 火災事故로 인해 귀중한 人命被害가 재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장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런 事故를 未然에 防止하기 위해 서울市長께서는 各 區廳의 技術職 職員과 消防署 人力을 동원하여 不實施工된 건물을 찾아내어 별도 管理를 하거나 잘 보이는 곳에 위험표시를 하여 놓는다면 火災發生時 출동한 진화요원들이 더욱 주의를 하여 대피 중 人命被害가 적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울市長께서 安全計劃을 세워 人命被害를 줄일 수 있는 計劃을 세울 수 있는지 答辯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오는 2000年 아시아·유럽 정상회의 개최장소를

趙淳 市長께서 政府에 적극적으로 建議하여 江西區 麻谷地區에 유치시킬 의향과 趙淳 서울市長 就任後 장래 都市發展을 위한 여유공간 확보, 土地資源의 效率的 이용을 理由로 開發計劃을 전면 보류한 의도를 答辯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江西區 麻谷地區는 麻谷洞, 空港洞, 傍花洞 一圓의 120萬 坪 규모의 地區이며, 서울市에서 國際化를 위한 5個 戰略地域 開發事業의 일환으로 94年 10月 麻谷地區開發 基本計劃에 착수, 95年 2月 都市計劃 區域決定, 95年 12月 基本計劃을 完了하였으며, 麻谷地區는 永宗島 新空港과 連繫하여 서해안 중심지로 동북아 국가는 물론 세계를 연결하는 항공교통의 요충지로서 國際關門입니다.

新空港 高速道路 및 高速鐵道, 京仁運河, 加陽·傍花大橋의 新建設과 올림픽로 擴張計劃이 있으며, 현재 江西區로 유입되는 道路網은 서울市에서 가장 낮은 교통혼잡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麻谷地區는 쾌적한 環境地區로 地區周邊에 많은 近隣公園과 한강변 공간이 잘 조화되어 자연경관이 빼어난 地域이며, 또한 모든 施設을 社會間接施設로 指定時 낮은 地價와 交通環境, 地域成長의 잠재력이 있는 곳으로 民間資本 誘致에 유리한 地域이며, 中央政府의 적은 負擔으로 최소화하면서 목적을 조기에 달성할 수 있는 최적지라고 생각되며, 地區開發은 물론 2000年 아시아·유럽 정상회의 장소로 政府에 적극 建議하여 誘致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李俊海 教育監에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서울市的 一般系 高等學校와 實業系 高等學校 配分 現況에 대하여 몇 가지 質問하겠습니다.

서울市的 全體 學校數는 一般高校가 187個校, 實業系 高校는 86個校이며, 全 學生數는 53萬 3,421名으로 一般系 學生

이 63%인 33萬 6,087名, 實業系는 37%인 19萬 7,334名이며, 學校當 學級數와 學級當 學生數를 比較해 보면 人文系는 學校當 38.3學級, 學級當 學生數는 49.5名이며, 實業系는 44學級, 學級當 學生數는 52.2名으로 되어 있습니다.

江西區는 一般系 高校가 13個校이고 實業系가 6個校로 他區에 비해 江西區는 一般系 高校와 實業系 高校의 人員配分率이 적절히 배분되지 못해 人文系 學校가 부족한 실정인데도 增校는커녕 實業系 高校를 江西區로 移轉시키는 理由는 무엇이며, 또 江西區는 敎員 1入當 學生數가 제일 많은 地域으로 敎員數를 增員 配置해 줄 수 있는지 答辯하여 주십시오.

一般系 高校와 實業系 高校를 比較한 現況은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市內 初等學校에서는 서울의 명예나 학교 전통을 위하여 育成하고 있는 운동부에 豫算支援이 없이 學校 自體內에서 학부형들의 자비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는데 운동에 소질이 있는 學生에게 豫算을 支援하여 체력과 기술을 단련시켜 우리 나라 體育發展에 기여할 용의는 없는지 答辯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역사가 오래된 학교나 建物이 老朽된 學校일수록 電氣施設이나 上·下水道와 便宜施設이 老朽化되어 있는 실정을 부분적으로 補修 施設한들 큰 효과가 없습니다. 전면적으로 補修 交替할 용의가 없는지 答辯하여 주시고,

넷째, 一線學校 校長에 대한 사기양양책으로 校長任期制와 敎師에 대한 부형들의 이기주의 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校長들의 士氣 및 學校運營을 소신껏 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므로 校長任期制 廢止와 校長先生에게 敎師와 技能職에 대한 人事權을 부여하여 學校長이 소신껏 일을 할 수 있게 士氣를



높일 생각은 없는지 答辯하여 주시고,

다섯번째, 教師들의 사기양양책으로 年末에 특별상여수당으로 100%짜리 1名, 75%짜리 2名, 50%짜리 3名으로 規定하여 手當을 支給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學校長의 裁量으로 한정된 범위의 금액을 책정하여 그 범위 안에서 學校 實情에 따라 賞與金을 教師들에게 수시로 줄 수 있는 制度를 마련하는 方法이 教師들의 사기양양책으로 타당할 것이라 本議員은 생각하는데 李俊海 教育監의 意思는 어떠한지 答辯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質疑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敬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副議長 金箕英;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都市整備委員會 所屬 趙旬衡議員의 質問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質問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旬衡 議員; 尊敬하는 文一權 議長님, 先輩·同僚 여러분, 그리고 趙淳 市長과 李俊海 教育監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瑞草區 出身民主黨 所屬 趙旬衡議員입니다.

오늘 市議會 第85回 臨時會議場에서 市政에 관한 質疑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市長께 몇 가지 質問을 하겠습니다.

첫째로 近隣公園 敷地를 서울시에서 補償하여 公園敷地 內에 體育施設과 靑少年 修鍊施設을 建立하여 市民의 휴식공간과 靑少年의 복지공간을 제공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서울市內의 近隣公園은 補償도 되지 않은 채 수십년간 방치하여 所有者의 財產權 침해는 물론이고 서울市民의 휴식공간으로도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일종의 職務를 소홀히 한 것으로 本議員은 생각되는데 市長의 명쾌한 答辯

을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서울시의 自然綠地地域을 公共施設과 福祉施設에 적극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서울시 외곽에는 自然綠地 部分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自然綠地는 市民의 環境改善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연녹지 공간을 최대한 보존하는 반면에 필요한 施設을 하여 福祉次元의 공간구조와 녹지공간을 창출하는 것이 좋다고 本議員은 생각됩니다.

이에 用役 등을 통하여 綠地空間과 필요한 公共施設과 福祉施設을 건립하는데 市長의 意見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綠地의 傾斜度가 21도 以下인 지대는 近隣公園으로 조성하여 서울시內的 綠地空間 확보와 휴식공간 施設로도 가능토록 차제에 市長은 劃期的인 방안을 檢討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然公園에 수종개량으로 造林할 用意가 있는지도 質疑합니다.

本議員의 견해로는 傾斜度가 21도 以上인 잡목지대는 잣나무, 소나무 같은 상록수로 점차적으로 식수하고, 21도 以下인 완경사지에는 은행나무, 감나무 같은 유실수 수종을 선별 造林하고, 청소년들이 자연공부에 도움이 될 稀貴 觀賞樹도 함께 심어 단장한다면 정말 市民들이 아끼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風致公園이 되리라 믿습니다.

셋째, 淸溪山入口의 廉谷사거리 지하철도의 設計瑕疵로 인한 交通滯症이 더욱 加重되고 있는바, 地下車道を 연장하고 交通體系를 補完하여 交通의 원활한 疏通을 하도록 그 개선점을 서울시長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廉谷洞 地下車道는 盆唐과 城南에서 오는 車가 院趾洞 農協

하나로클럽 지하차도 입구에서 좌회전으로 인한 交通事故 多發地域임을 감안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市의 交通滯症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심각성이 지나칠 정도임을 자타가 잘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車輛運行 상태는 시속 20km이하이며 특히 주말인 토요일에는 전 서울市 道路가 駐車場과 같이 되어 버린 상태입니다. 이러한 사정은 經濟的 損失은 물론이고 시간적 손실은 말할 나위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交通滯症의 방안은 卓上空論이 아니고 실제로 병목현상에서 신호체계를 點檢하고, 하자 있는 設計의 地下車道 등을 改善할 뿐 아니라, 뒷골목의 車輛通行을 원활히 하여 어느 한 곳에만 막히면 서울市 전도로의 交通網이 막힌다는 것을 이해하여 하나씩 고쳐나가는 꾸준한 노력이 더욱 절실하다고 믿습니다.

또한 冠岳山 서울大 입구에는 駐車場이 있는데 北漢山, 水洛山, 淸溪山 입구에는 駐車場이 없어 등산인에게 불편을 주는바, 이에 대한 對策도 동시에 講究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福祉政策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老人의 福祉政策으로 老人의 취업대책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그 성과는 어떠하십니까? 상세히 答辯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病院 靈安室을 行政制度 改善이나 行政指導를 통하여 현재까지의 바가지 요금을 일소하고 죽은 자를 哀悼하는 경건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刷新하고, 요금 등으로 이중으로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行政指導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그리고 綠地空間이나 公園 등 야외 여러 곳에 市立禮式場을 建立할수 있도록 法的 뒷받침을 보완하여 結婚費用을 줄

이고 삶의 질을 높이도록 行政力을 동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市立共同葬禮式場도 건립하여 조속한 기간내에 가능한 한 行政指針을 만들어 施行되도록 하여 哀喪으로 인한 經濟的 高충을 덜어주어 庶民生活 불편을 해소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調査해 본 결과, 기본 病院 靈安室을 이용했을 때는 300萬원 내지 400萬원이 들고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취락구조 마을의 지하셋방에 살고 있는 零細 市民들에게 行政調査나 告發 등을 완화할 수 있는 制度的 뒷 받침을 만들어 庶民들의 불안한 생활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市內에 취락구조사업으로 형성된 마을의 住居綠地地域을 一般 住居地域으로 변경하여 기이 聚落構造 改善事業으로 이루어진 가옥 등에 대하여 土地利用의 효율성을 높이고, 住民의 재산상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 住宅地域을 一般住居地域으로 變更하도록 건의드립니다.

그리고 서울市教育監에게 瑞草區 新院洞에 先進國型 示範 初等學校를 新設해 줄 것을 要請합니다.

本議員의 出身區 內 院趾洞, 新院洞 등지에서 彦南初等學校까지는 약 6km정도나 됩니다. 약 600餘 名의 어린 학생들이 버스를 타고 가서 또 1km以上 걸어가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教育監의 입장에서 상세히 檢討하여 同 地域 初等 學生들의 원거리 통학의 불편을 해소하고 미래의 교육 환경을 구현하는 차원에서 研究 檢討하여 좋은 조치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아침 朝刊에 본 일인데 아직도 서울市民들은 聖水大橋崩壞와 三豐百貨店 붕괴사고 등으로 市內에 산재한 각종 構造物에 대해 不實施工에 대한 不安感을 지우지 못하

고 있는데, 오늘 아침 朝刊新聞과 각 電光板 速報에 따르면 지하철 5호선부터 8호선까지 무려 24곳이나 설계 잘못으로 인한 不實施工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 24곳이 어느 工區, 어느 지점인지 각 設計者의 명단과 잘못의 내용도 상세하게 밝혀 주시고, 土木學會가 지적한 이후 設計變更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設計變更 작업은 當初設計者가 하느냐 아니면 재 발주를 했느냐도 市長은 책임 있는 분명한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세기를 대비한 잘 사는 서울, 풍요로운 서울 建設을 위해서는 안주하는 行政과 도피성 答辯을 배제하고 明確하고 성실한 答辯을 바랍니다.

장시간 傾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副議長 金箕英; 수고하셨습니다.

진지하게 質問에 임해 주신 네 분 議員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어제 補充質問을 申請하였으나 시간 관계상 質問을 하지 못한 朴謙洙議員의 補充質問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朴謙洙議員 나오셔서 補充質問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謙洙 議員; 朴謙洙議員입니다.

어제 本議員이 地下鐵公社의 勞使問題와 관련해서 組合費 假押留 解除를 지시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해 質問을 했던 것은 地下鐵 勞使가 協商에 진지한 자세로 임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대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質問에 대한 答辯으로 地下鐵 勞使問題를 勞使 합의에 맡겨놓는다고 答辯하셨는데 이러한 答辯밖에 할 수 없는 市의 입장이 한편으로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서

을 地下鐵公社 및 釜山 地下鐵 勞組, 韓國通信, 造幣公社 그리고 醫療保險 등 公共部門 勞組代表들이 지난 5月 28日 會議에서 賃金 가이드라인 철폐와 解雇者問題 등에 대해 공동으로 대처키로 하고, 6月 2日 公共部門 勞組 합동으로 보라매公園에서 集會를 갖고 6月 4日 共同 爭議發生 申告를 할 것이라고 합니다. 勞使問題는 이제 政府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고 이는 罷業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勞使關係의 쟁점이 되고 있는 解雇者 問題는 趙淳 市長이나 地下鐵公社 社長 就任 이전에 金永三 政府가 출범한 이후에 발생한 문제로서 서울市는 그 뒤처리를 擔當하고 있는 것입니다. 金永三 政權은 이제 退任 1年 半이 남았습니다.

따라서 退任 前에 解雇者 문제 등 勞使問題를 해결하기 위해 大統領直屬으로 勞使改革委員會를 발족시켰다고 봅니다. 市民의 발인 地下鐵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서울市는 마지막까지 勞使合意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어려웠던 全敎組 선생님들이 金永三 政權에서 대부분 復職되었습니다.

그래서 本議員은 다음과 같이 市長에게 권고코자 합니다.

地下鐵의 원만한 運行을 위해서 市長께서 할 수 있는 노력의 일환으로 大統領 직속의 勞使改革委員會가 勞使問題에 있어서 매년 年例行事처럼 되고 있는 解雇者 復職問題의 쟁점이 이번 기회에 완전히 해소될 수 있는 案을 만들 수 있도록 강력히 建議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는 것으로 補充質問을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副議長 金箕英;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質問을 마치고 停會한 後 午後 2時 30分에 會議를

續開하여 執行部側의 答辯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停會를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11時 43分 會議中止)

(14時 41分 繼續開議)

○議長 文一權; 議席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그러면 오전 네 분 議員의 質問에 대하여 執行部側의 答辯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關係公務員들은 誠實하게 答辯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趙淳 市長 나오셔서 答辯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市長 趙淳; 오늘 市政質問을 통해 金喜甲議員을 비롯한 여러 議員들께서 市政의 주요 政策方向과 懸案事項에 대하여 심도 있는 指摘과 함께 좋은 政策代案을 提示해 주셨습니다. 質問하신 내용 중에서 市政運營의 基本的인 方向과 市長의 所信에 관련된 事項 등 市政 전반에 걸친 包括的이고 根本的인 政策에 대해서는 市長이 答辯을 드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所管分野의 主要 施策事業과 具體的인 事項에 대해서는 副市長과 關係官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答辯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金喜甲議員의 質問이신데, 지난 1年 동안 市長이 직접 느낀 所感과 스스로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이나 되겠느냐, 이 質問에 대담드리겠습니다.

지난 1年 동안 느낀 所感이야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중요한 몇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는 서울市政이 대단히 중요하다, 정말로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에는 全國 人口의 1/4에 달하는 천백만이 살고 있고 首都圈의 衛星都市와 京畿道를 합하면 全國 人口의 약 절반 가량이 직접 간접으로 서울市와 聯關을 갖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國政도 서울을 통해서 그 成敗가 좌우되고 서울市政이 잘되면 全國의 모든 自治團體가 따라오게 되어 있어서 우리 나라 전체가 발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나라에 地方自治가 제대로 정착되느냐 못 되느냐 하는 여부도 결국은 서울의 自治가 올바르게 뿌리내릴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自治時代를 연 첫 民選市長으로서 막중한 所任을 느끼고 있고 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서울市政이 대단히 중요하고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지만 이를 수행하기 위한 서울市의 여건이 매우 취약하고 역량이 작다는 것입니다. 安全, 交通, 環境, 住宅, 福祉 等 서울이 안고 있는 都市問題는 세계 어느 都市에 비해서도 복잡하고 어렵게 꼬여있는 반면에, 이를 해결해야 하는 서울市는 人力과 豫算과 權限, 어느 것 하나 충분하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서울市 公務員 개개인의 資質이 부족하거나 태도가 옳지 못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市 개개인의 公務員의 능력은 상당히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전체적인 公務員數가 너무나 적고 그러다 보니 市政을 올바르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專門知識과 識見의 總量이 턱도 없이 부족한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제가 늘 비유하는 말입니다만 우리의 현실, 서울市의 行政을 말으면서 느낀 것은 마치 등산을 할 때 어떤 지점으로 가야 할 길은 앞으로 올라가는 길밖에 없는데 올라가는 그 길은 대단히 좁고 가시밭길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는 것과 같



습니다. 우리가 올라가려 하지만 가시는 자꾸만 자라서 대단히 올라가기가 힘들다 하는 것과 비유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곧 기회가 된다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대로 올라가려고 열심히 우리가 모두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의 미래가 어둡지는 않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스스로에 대해서 점수를 매긴다면 제가 就任 初期에 서울시가 처해있는 대강의 형편을 파악하고 3年 동안 60점이 되는 都市를 만들기에다 벅차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서울이 몇 점에 와 있느냐, 서울 市政이 몇 점쯤 되느냐 하는 것은 저로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就任初에 생각했던 것보다 결코 못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民選自治 이후 저와 5萬 4,000名의 公務員이 서울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 쏟고 있는 노력은 아주 만족스럽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만,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力量을 다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말할 수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金喜甲議員께서 하신 市長의 議會觀에 관하여 堂山鐵橋 撤去方針, 交通綜合對策, 風致地區 全面 손질 등 중요한 政策을 결정하면서 議會와 事前協議나 事後報告가 없었지 않느냐, 市長의 對議會觀은 무엇이나, 이 質問에 答辯드리겠습니다.

市와 市議會는 서울市政을 이끌고 가는 수레의 두 바퀴라고 우리 모두가 믿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이 미리 가서도 안 되고 고장이 나도 안 되며 서로가 보조를 맞춰서 나란히 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市政의 모든 問題를 虛心坦懷하게 議員들과 相議하고 協助해 나갈 것을 저로서는 강조해 왔으며 계속해서 그런 基本 立場을 견지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번, 바로 지난 화요일이었습니다만, 우리 전체 幹部會議에서도 市議會와의 밀접한 협조의 필요성에 대해 모든 幹部들에게 각별히 제자신이 강조한 바 있습니다. 主要懸案 事項에 대해서는 각 局長들이 常任委員會에 미리 報告도 하고 意見을 듣고 協助를 구하도록 했으며, 우리가 議會의 協助를 얻기 전에 먼저 議會에 協助를 해 드리는 자세로 임해 줄 것을 지시 당부한 바 있습니다.

다만, 風致地區에 관한 事項은 아직까지 實務檢討 段階에 있고, 구체적인 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서울市 方針을 決定하는 段階에서 事前協議를 거치도록 하겠으며, 交通綜合對策과 堂山鐵橋 撤去方針에 관해서는 각 局長으로 하여금 市議會와 協議를 거치도록 하였으나 推進過程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점이 있었다면 앞으로 성심을 다해서 補完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議員들께서도 서울市政이 진정 市民을 위한 市政으로 올바르게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성원과 지도를 아껴주시지 마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崔光雄議員께서 하신 質疑, 政治圈에서의 大統領 候補 거론과 관련하여 市長의 솔직한 입장은 무엇이나, 이 물음에 答辯드리겠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말씀 드렸습시다만 저는 취임 이후 오늘까지 산적인 서울市の 문제를 해결하여 서울을 人間中心의 都市, 살맛나는 都市로 만들고 서울의 地方自治가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法과 制度와 慣行을 바로 잡는 일에 밤낮없이 모든 힘을 다 기울여 왔습니다. 지금은 千百萬 市民과 함께 보다 나은 서울을 만드는 데 전력을 다하여도 부족하다고 하

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이 任務에 대해서 정말로 역부족을 많이 느끼고 있을 정도로 지금 저 자신과 우리 市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어렵다는 것을 매일절감하고 있고, 앞으로 전력을 더욱 더 다할 그러한 심사로 있습니다.

崔議員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오직 市民을 위해서만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간략히 答辯드렸습니다.

○議長 文一權;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李俊海 教育監 나오셔서 答辯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教育監 李俊海; 教育監 李俊海입니다.

教育廳 所管事項에 대해서 여러 가지 質疑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제가 몇 가지를 答辯드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그 밖의 것은 該當 局長으로 하여 자세히 答辯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金喜甲議員님께서 學校運營委員會 구성과 관련하여 學父母 委員의 直選制를 권장할 용의가 없느냐 물으셨습니다.

또 崔光雄議員님께서 敎員委員님, 學父母委員 選出에 있어서 學校長의 權威主義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도대책이 무엇인가를 물으셨습니다. 두 가지 함께 答辯드리겠습니다.

먼저 金喜甲議員님께서 質問하신 學父母 委員의 直選制 選出 실시용의에 대해서는 直選制 方法이 여러 가지 바람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서울의 경우 學校 規模가 방대해서 全體 學父母가 한 자리에 모여서 직접 學父母 委員을 選出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점을 감안해서 學校別 사정을 고려하여 學級別 代議員을 통한 間選制 選出方法도 가능하도록

지난번 條例로 정한 바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學父母 委員을 현재 間選制로 選出한 學校數에 대해서는 정확한 파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곧 委員會 構成이 완료되는 대로 별도 조사해서 書面으로 報告드리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一線學校로 하여금 議員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능한 한 直選制 方式에 의해서 學父母 委員을 選出하도록 권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崔光雄議員님께서서는 敎員委員 資格問題에 대해서 質疑를 하셨습니다.

즉, 學校에 따라서는 敎員委員의 資格을 學校運營規程으로 정하는 그러한 사례가 있었습시다만 이에 대해서는 運營規程으로 정할 수 있다는 그러한 견해가 있는가 하면, 上位法에 어긋난다는 그러한 견해도 있습니다. 실제로 全國 15個 市·道에서 제정한 條例를 보면 15個市·道 中 11個 市·道가 敎員委員의 資格을 學校規程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한 바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서울에서는 그러한 규정을 넣지 않았습니다, 條例에. 그러나 제 생각으로는 이 경우에도 學校運營委員會 活性化라든가, 혹은 敎員의 고른 참여를 위해서 남녀별이라든가, 혹은 연령별, 또는 직급별 그러한 구성비율을 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全體 敎員의 合意를 바탕으로 보다 타당성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資格을 制限한 경우에는 그 사항을 파악을 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學校運營委員會 최초의 규정은 敎員全體會議의 審議를 거쳐서 學校長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이 때 審議의 의미가 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質疑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건대 審議는 審議結果에 대해서 구속력이 없는 데 반해서 議決과는 다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全體 敎員이 運營委員會 規程을 합리적으로 制定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토도 하고 논의도 하고 審議를 한 事項에 대해서는 學校長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新西中學校 校長에 대한 人事措置 問題에 대해서는 그 경위를 보다 소상히 조사를 해서 만일에 위법부당한 그러한 사례가 밝혀질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學校運營委員會 運營實態를 정확히 파악해서 미비한 사항이라든가, 혹은 문제점이 있을 때에는 學校運營委員會 設置趣旨에 맞도록 발전적으로 보완개선 해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慶奎福議員님께서 一線學校 校長의 사기진작책으로 校長 任期制 廢止와 敎師 및 技能職에 대한 人事權 附與方案에 대해서 質問하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校長 任期制는 91年 3월에 실시해서 4年 1次 任期가 만료된 校長에 대한 重任을 지난해 9월에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만, 사실상 校長 任期制가 실시되면서 校長들의 심리적인 위축감이라든가 불안감 등으로 능동적이고, 그리고 소신 있는 학교경영 의지라든가 지도력이 약화되는가 하면, 젊고 유능한 그러한 분들이 早期 校長昇進을기피하는 그러한 사례까지가 있어서 결과적으로 校長의 老齡化를 초래하는가 하면,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全國 教育監 會議에서도 校長 任期制를 완전히 廢止

하거나, 또 완전히 廢止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적어도 유능한 校長은 계속해서 連任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改善案을 教育部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教育部에서는 일단 1·2次 任期가 만료되는 것을 지켜보고서, 현재 2期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에 대한 改善方案을 강구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러한 回信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校長에게 教師와 技能職의 人事權을 附與하는 方案에 대해서는 현재에도 學校長에게 學校運營에 필요한 教師에 대해서는 일정비율, 대충 20%내지 30%가 됩니다만 教師를 전입 요청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또 전출하는 教師 中에서도 4年の 범위 내에서 전보를 유예시킬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다. 또 臨時教師에 대해서는 任用權도 學校長에게 委任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技能職 公務員에 대해서도 신규임용시 學校長에게 그 任用者의 추천권이 있으며 轉補라든가, 또 猶豫, 懲戒 要求 등의 권한이 學校長에게 있습니다. 문제는 學校長이 敎員을 직접 채용을 해서 任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현 制度下에서는 敎員은 國家職이기 때문에 國家에서 채용을 해서 任用權은 國家가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地方教育自治에 따라서 敎員이 地方職으로 전환될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도 다소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學校長의 人事權이 확대되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慶奎福議員님께서 敎師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學校長 재량으로 特別賞與金을 지급할 수 있도록 指針을 개

선할 용의가 없는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敎員의 特別賞與金은 敎育部에서 마련한 敎育公務員 特別賞與金 手當支給指針에 의거해서 지난 2月末까지 學校別로 優秀敎員에게 特別賞與手當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制度가 근무성적이 우수한 10%의 敎師에게 特別賞與金을 지급해서 사기를 진작시킨다는 취지는 대단히 좋았습니다만, 자칫 敎師間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또 學校분위기를 저해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 敎育廳에서는 特別賞與金 支給方法을 해당 學校長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改善案을 敎育部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또 敎育部에서도 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몇 가지만 제가 答辯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文一權 議長, 李聲九 副議長과 司會交代)

○副議長 李聲九;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昌德女子中學校 學生 250餘 名이 本會議를 방청하고 있습니다. 서울市民의 代表機關인 서울特別市議會의 議政活動에 관심있게 방청하는 學生 여러분들에게 환영의 말씀과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政務副市長 나오셔서 答辯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政務副市長 崔洙秉; 政務副市長입니다.

먼저 金喜甲議員께서 저에게 市議會와 관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市議會와 협조를 해 나갈 계획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제가 작년 12月末 서울市에 赴任한 이래 업무과약관계로 市議會와 접촉이 많지 않았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제가 수행하

고 있는 일 중에서 무엇보다도 市議會와의 원활한 協助關係를 유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

서울이 안고 있는 交通, 環境, 安全 등 여러 가지 都市問題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市議會와의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저의 기본 생각입니다.

조금 전에 市長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평소에 저는 室·局長으로 하여금 主要懸案에 대해서는 所管 常任委員會別로 사전에 報告를 하는 등 긴밀한 협조를 얻도록 督勵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時間關係上 모든 議員들에게 報告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常任委員長님이나 幹事님들을 통해서 충분한 협의를 할 것을 강조해 오고 있습니다.

저 자신 역시 수시로 개최되는 議長團 그리고 常任委員長 招請懇談會뿐만 아니라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市議會를 직접 방문을 해서 협조를 얻어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한층 발전된 市議會와의 협조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여러 議員님께서도 우리 執行部에 대해 더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金議員께서 저에게 주신 質問은 市議會와의 관계에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음은 崔光雄議員께서 주신 質問에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崔議員께서 議會 議員身分 및 執行부와 議會의 역할과 관련해서 전문화, 복잡화되어가고 있는 현대의 地方行政에서 有給 補佐官도 없이 行政事務監査, 調査, 豫算決算審議, 條例審議 등 議會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補佐會 導入制를 하지 않는 地方自治法施行令에 대한 견해와 議會와의 업무협



조를 수차례에 걸쳐 강조해 왔는데 市議會에 대한 입장은 무엇이나고 물으셨습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市政을 이끌어가는 동반자로서 밤낮없이 노력하시는 議員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효율적으로 議會 業務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議員님들의 애로사항이 하루빨리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다만, 議員님의 신분이나 禮遇에 관한 문제점에 있어서는 이미 公論化 단계를 거쳐서 中央政府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關係法수에 대한 의견을 피력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市로서도 건설적인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執行부와 議會와의 업무협조, 市議會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金喜甲議員님 質問에 대한 答辯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두번째, 崔光雄議員께서 中央政府에서는 地方交付稅, 地方讓與金, 各種 負擔金 配分 등 地方財源制度的 운영에 있어서 서울시에 대하여 많은 차등조치를 취하고 있는 반면에, 서울시는 國家事務 처리를 위하여 많은 豫算을 사용하고 있고, 또한 中央과 地方이 대등한 협력관계이어야 함에도 최근 中央政府에서는 國策事業特別法을 制定한다든가 地方自治團體長에 대한 징계처벌권을 규정하는 地方者治法 改正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그래서 서울시로서도 國家事務에 대한 豫算 支援을 중단하거나 國家事務 수행 자체를 거부하는 등 획기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확고한 견해는 무엇이나고 물으셨습니다.

地方交付稅, 地方讓與金, 各種 負擔金 配分 등 각종 地方財

政支援制度 운영에 있어서 中央政府가 취해 오고 있는 서울시에 대한 차등조치에 대해서는 執行部로서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의 改善을 위해서 그간 수차례에 걸쳐 中央政府에 改善을 건의해 오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며,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市議會에 온 후에 우리 市와 中央政府의 시각의 차이가 이렇게 크구나 하는 것을 실감을 했습니다.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市 나름대로 서울시에 대한 中央政府의 왜곡된 시각에 대한 대응논리를 開發하고 우리의 주장에 힘을 신기 위해서 서울시立大와 그리고 市政開發研究院으로 하여금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연구토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中央政府와 地方政府的 財政關係를 비롯해서 서울시 豫算 그리고 支出管理 등 財政 전 분야에 대해서 국제적인 財政專門機關인 IMF, 國際通貨基金에 진단을 요청한 바 있으며, 현재 國際通貨基金에서 5名の 專門家가 파견되어 지난 5月 20日부터 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制度 運營上의 문제점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改善되기 위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많은 노력과 시간을 요합니다. 그래서 市議員 여러분과 市民 모두의 지원과 협조를 또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國家事務에 대한 豫算支援 중단, 또는 수행 자체를 거부하는 등의 획기적인 대책을 강구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신 데 대해서 答辯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기는 1994年 1月に 總務處가 조사발표한 中央地方事務의 총람에 보면 國家의 총 기능수가 1만 5,774

개 중 中央部處가 직접 관장하는 國家事務는 75%인 1만 1,744개고, 中央政府의 권한에 속하나 地方自治團體長에게 機關委任된 事務는 약 12%인 1,920개이고, 地方自治團體가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自治事務는 13%인 2,110개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95年, 작년 12月末 현재 서울시가 自體 調査한 바에 의하면, 개략적인 調査입니다만 서울시의 單位業務는 총 5,228個이고, 이 중 31%인 1,633個가 國家事務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가 國家事務를 처리하기 위해 실제 부담비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國家事務, 개략적인 調査입니다만 1,600餘 件에 대해서 직무분석을 통해서 처리비용을 계산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 議員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현재 각 室, 局, 課 및 擔當者別로 國家事務와 自治事務를 동시에 처리하고 있어서 人件費, 物件費, 資本支出, 기타 諸般事務處理費用을 구분하여 國家事務만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하는 데는 기술적으로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 1,600餘 個의 國家事務는 個別法令의 規定形式을 통해 조사된 사무들로 일부 사무는 地方自治法이라든지 同施行令에서 自治事務로 규정되어 있어서 정확한 처리비용을 산출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地方自治 實施가 일천하기 때문에 國家事務와 地方事務의 구분이 명확히 확정되어 있지 못하고 또 혼재되어 있는 우리 현실을 감안할 때 눈앞의 현실만으로 豫算支援을 중단하거나 國家業務 遂行自體를 거부하는 극단적인 결정을 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國家事務임이 명백하고 政府支援이 필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費用에 國庫支援을 적극 요청

하고, 또 國庫支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崔議員께서 地方時代의 監査方向과 關係해서 地方自治制度의 근본취지가 統治權의 分權에 있는만큼 國家的 次元에서 自治團體에 대한 國政監査들도 이에 相應하는 수준으로 調整 구분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地方議會의 監査를 충실히 받겠다는 市 執行部의 자세가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見解를 물으셨습니다.

崔議員께서 말씀하신 대로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現行 國政監査·調査는 憲法 第61條, 國會法 第127條, 그리고 國政監査 및 調査에 관한法律 등에 의하여 國家委任事務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規定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國家業務와 自治團體業務와의 明確한 구분없이 國政監査가 실시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地方自治團體의 議會가 운영된 지도 5年이 지났고 民選 團體長이 선출된 지도 1年이 다 돼 가고 있는 시점에서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監査方向과 監査機關의 중복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는 法律上的 문제라기보다는 지금까지의 慣行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므로 앞으로 地方自治가 성숙됨에 따라 개선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 市로서도 政府와 國會에 改善策을 적극적으로 建議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市議會와 執行部와의 關係는 조금 전 市長님께서도 答辯에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수레의 두 바퀴와 같은 동반자적인 關係로서 執行部가 市議會의 監査를 성실히 받아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며, 앞으로 地方自治의 發展과 自律權확보를 위해서 市議會의 적극적인 활동과

지원이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答辯을 마치겠습니다.

○副議長 李聲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市 企劃管理室長 나오셔서 答辯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都明正; 서울市 企劃管理室長 都明正입니다.

崔光雄議員께서 警察法 등 關係法令을 改正하여 自治警察을 도입하고 市長 소속하에 서울地方警察委員會를 설치, 市長과 市議會가 委員을 선출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가 어떠한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警察制度는 各國의 통치구조나 행정여건 등에 따라서 國家警察, 또는 地方自治警察制度를 채택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國家警察制度로 되어 있습니다. 91년에 警察廳이, 92년에 地方警察廳이 각각 설치가 되어서 현재 警察에 관한 事務가 地方自治團體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地方警察制度 導入問題는 전국적인 사안으로 政府에서 검토할 政策的인 문제라고 생각되며, 이에 대해서 우리 市에서 아직 검토한 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현재 警察에서 管掌하고 있는 交通關聯業務 중에서, 이런 권능중에서 교통신호체계의 운영이라든가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 또 교통질서단속권 등에 대해서는 交通對策에 대한 責任과 權限을 일치시킨다는 측면에서 서울市長에게 그 권한이 移管되어야 한다고 판단이 되어서 關係部處에 法令改正을 建議 중에 있고 협의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崔議員께서 서울市立大學校의 중장기발전계획과 관련한 質疑와 女性政策室 확대설치 문제에 대한 質疑에 대해서는 書面으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答辯을 마치겠습니다.

○副議長 李聲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環境管理室長 나오셔서 答辯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管理室長 卓秉伍; 環境管理室長 卓秉伍입니다.

金喜甲議員님, 慶奎福議員님, 趙旬衡議員님의 여섯 가지 질문에 대하여 순서대로 答辯드리고, 崔光雄議員님의 書面質問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書面答辯드리겠습니다.

먼저 金喜甲議員님께서 木洞과 上溪 資源回收施設에 대하여 세 가지 사항을 質問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市의 쓰레기처리 基本原則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고 質問內容에 答辯드리겠습니다.

첫째, 쓰레기발생단계에서 최대한 양을 줄이고 둘째, 再活用 가능한 것은 원칙적으로 분리해서 再活用을 한 다음에 가연성쓰레기는 소각해서 에너지자원을 회수하고, 소각재와 불연성쓰레기는 위생 매립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木洞·上溪 資源回收施設의 경영수지에 대하여 答辯드리겠습니다.

연간 總 運營費는 96年 가격기준으로 木洞이 46億원, 上溪의 경우가 55億원으로 총 101億원이 되겠습니다. 반입료 수입과 열 판매 수입은 木洞施設이 약 16億원, 上溪施設이 약 20億원으로 총 36億원이되어 市가 부담해야 될 비용은 연간 약 65億원이 되겠습니다. 둘째, 2001년까지 資源回收施設을 계속 건설할 경우 投資事業費는얼마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答辯드리겠습니다.

우리 市의 1日 쓰레기발생량은 1萬 3,000톤으로 2001년까지 소각처리목표는 전체 발생량의 37.3%인 4,850톤입니다. 하루에 4,850톤을 소각처리하기 위해서는 整備나 補修를 위

해서 30%의 여유시설을 포함한 1日 6,300톤의 소각시설을 건설할 경우 약 1톤당 1億원을 계산해서 6,300億원이 추정되고 있습니다. 木洞과 上溪 자원회수시설에 이미 1,050億원이 投資됐기 때문에 앞으로 投資될 事業費는 약5,250億원이 되겠습니다.

셋째, 2001年을 기준으로 하여 연간 소각처리비용을 말씀드리면, 1日4,850톤 소각을 처리하게 되면 톤당 소각처리비용이 96年 木洞 기준으로 볼 때 3萬 9,170원이기 때문에 약 693億원이 필요합니다. 이 중 58%인 402億원은 서울시가 負擔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埋立處理費와 比較해 볼 때 톤당 埋立處理費用은 약 4萬 460원을 負擔하게 되기 때문에 연간 716億원을 負擔하게 되어 이 중 19%는 서울시가 負擔하고 81%인 약 580億원은 自治區가 負擔하게 됩니다. 결국 燒却方式이나 埋立方式 모두 處理費用은 비슷하지만 燒却處理를 할 경우는 市 負擔이 增加되고 埋立處理할 때는 自治區 負擔額이 增加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다음은 慶奎福議員님께서 政府에서도 再生用紙 사용을 적극 勸獎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도 再生用紙의 活用을 위해서 어떠한 對策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質問하셨습니다.

우리 市에서도 再生用紙 등 再活用製品의 購買를 促進하기 위해서 市 傘下 모든 公共機關에 대해서 再生用紙 등 再活用品을 우선 購買·活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종이류는 모든 行政機關에서 調達購買하여 活用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再生用紙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會計部署나 財務部署에서도 再生用紙를 購買하도록 원칙적으로 管理를 하고 있습니다.

參考로 95年度에 우리 市에서 再生用紙 活用實績을 보면,

사무용품이나 재생종이 사용 인쇄물 등 총 49億원에 이르고 있으며, 96年度에는 13億원이 增加한 62億원을 再生用紙 사용금액으로 計上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서울市の 모든 公共機關 이외에 民間團體와 企業體에 대해서도 再生用品의 우선 購買를 적극 勸獎하는 등 再生用紙 使用이 擴散되도록 努力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趙旬衡議員님께서서는 近隣公園 補償과 關聯해서 近隣公園 敷地를 補償함으로써 體育施設과 靑少年 修鍊施設을 建立해서 市民의 休息空間과 靑少年의 福祉空間을 提供할 用意는 없느냐, 그리고 自然公園의 樹種을 改良할 用意는 없는가에 대해서 質問하셨습니다.

먼저 近隣公園 內 體育施設과 靑少年 修鍊施設 建立에 대하여 答辯드리겠습니다.

서울市內 近隣公園 現況은 총 230個所에 面積은 1,009萬坪이 되겠습니다. 이 중 公園施設이 이미 設置된 近隣公園은 약 52%에 해당되는 523萬坪 152個所에 불과합니다.

議員님께서 指摘하신 대로 近隣公園 內 市民이 이용할 수 있는 간단한 體育施設이나 그리고 靑少年 修鍊施設을 設置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체 近隣公園의 약 43%가 私有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補償費가 1兆 4,000億원이 推定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市 財政 形편상 일시에 補償을 해서 公園을 設置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問題다 하는 것을 諒解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서울市에서는 都市環境改善을 위해서 公園綠地 擴充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基本方針에 따라 연차적으로 近隣公園 內 私有地 補償을 점차 擴大해 나가고, 自然毀損을 최소화하는 範圍 內에서 간단한 市民 體育施設과 靑少年 利用施



設을 점차 擴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參考로 96年度 우리 市에서는 홍릉 近隣公園과 궁산 近隣公園 등 총 10個所 3萬 3,000坪의 近隣公園을 造成하는데 總事業費는 152億원을 投資할 豫定으로 있고, 현재 工事を 進行 中에 있습니다.

다음은 自然公園의 樹種改良 計劃에 대해서 答辯드리겠습니다.

우리 市 自然公園은 冠岳山, 水洛山, 佛岩山, 牛眠山 등 총 22個所에 1,978萬坪이 있습니다. 自然公園 內 樹種을 잠시 살펴보면 中部地方의 고유 樹種인 소나무, 참나무 이외에 6·70年代에는 조기녹화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심은 아카시아와 현사시나무가 번성해서 하부 식생이 빈약하고 수목 성장에 방해를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사시나무 등은 봄철에 종자털이 날려서 市民生活에 民願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 서울시는 생태적 自然環境을 改善할 수 있도록 95년에 都市環境林造成 5個年計劃을 樹立해서 99년까지 水洛山, 용왕산, 忘憂山 등 43個所 45萬坪에 대해 樹種改良事業을 95년부터 推進하여 오고 있습니다.

95년에는 약 10億원의 豫算을 들여서 용왕산 등 5個所 11ha를 造成했고, 今年에는 水洛山 등 10個所에 약 30億원의 豫算을 들여서 30ha를 樹種改良할 計劃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環境造林 造成의 基本方向은 아카시아나 현사시나무 등 불량 樹種을 소나무나 참나무 등 우리 고유 樹種으로 改良해서 山林의 景觀과 야생동물의 서식환경을 改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議員님 말씀대로 自然公園 內 樹種改良을 擴大해 나가면서 傾斜度가 21도 이하 완만한 傾斜地에 대해서는 은행나

무나 감나무와 같은 유실수종과 또 常綠樹를 계속 심어서 서울을 푸른 서울로 가꾸어 나가도록 努力을 하겠습니다.

이상 答辯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李聲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交通管理室長 나오셔서 答辯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管理室長 金東勳; 交通管理室長 金東勳입니다.

먼저 金喜甲議員님께서 서울시 交通綜合對策과 關聯 衛星都市에서 서울로 얼마만큼 人口가 유입되고 있으며, O-D調查의 推進內容 및 향후 對策에 대해서 質問하셨습니다.

交通政策을 樹立하는데 있어 O-D調查에 의한 地域別 交通需要 分析이 必要하다는 議員님의 見解에 전적으로 同感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O-D調查는 전체 家口의 약 3%, 서울을 포함한 首都圈 人口의경우에 약 19萬 家口가 해당됩니다. 3%를 표본으로 調查하는 광범위한 作業으로 인하여 每年 實施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調查한 것은 90년에 實施한 서울시 交通綜合現況調查로써 同 調查에서는 서울시 行政洞別 지역간의 출발지 및 도착지 交通量을 調查했으며, 首都圈 地域의 市界外 流·出入 交通量은 首都國地域의 전체 地域과 서울간에 連結되는 도로상의 總 通行量을 總括적으로 調查하였었습니다.

同 調查內容에 의하면 1日 首都圈 流·出入 交通量은 117萬 臺로 車種別 交通量은 乘用車가 53%인 62萬臺, 버스가 19%인 22萬臺, 화물이 26%인 31萬臺, 그리고 기타가 2%인 2萬臺이며, 流·出入 通行人口는 하루에 447萬 通行으로 調查되었습니다.

한편, 지난 90年 調查 이후 5년이 經過함에 따라 새로운 O-D調查의 必要性을 認識하고 今年에 16億원의 事業費로

서울市 全域과 首都圈 地域을 包含한 綜合交通센서스를 實施할 計劃이며, 이번의 調査에서는 首都圈의 地域別, 그리고 서울市 도착지별 流·出入 通行량을 調査해서 보다 상세한 調査內容이 될 수 있도록 包含을 시켰습니다.

종합교통센서스는 交通地域別, 方向別, 交通手段別 通行實態가 종합적으로 조사되고, 조사된 자료는 데이터베이스화하여 每年 앞으로 수정 보완해 나갈 計劃입니다.

다음 시내버스카드제와 관련하여 臺當 100萬원 가량의 카드판독기의 보급현황과 작동실태, 카드충전소는 토크판매소만큼 확보되었는가에 대해서 質問하셨습니다.

今年 5月 18日 현재 시내버스에 設置된 카드판독기는 設置對象 7,822臺 中 6,000臺에 設置가 되었으며, 이 중 가동이 되고 있는 판독기는 3月 2日부터 시범운영 중인 1,162臺이고, 나머지 4,838臺는 카드충전소가 확보될 때까지 가동을 잠정 보류하고 있습니다.

카드충전소 설치는 販賣業者들이 버스組合에서 책정한 手數料 料率이 너무 낮다는 이유로 初期에 기피하여 부진하였으나 5月 10日 버스組合에서 충전수수료를 當初 1.5%에서 2.5%로 1% 인상시켜 줌에 따라 현재 증가되고 있고, 5月 28日 현재 운영 중인 토크판매소 1,986個所 中 42%에 해당하는 843個所에 충전소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설치된 충전소로는 현재 시범운영 중인 路線을 이용하는 市民들에게는 충전의 불편이 거의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카드제를 全面 施行할 경우에는 부족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市에서는 카드충전소의 추가확보를 위하여 기존 토크판매소의 충전기 설치를 독려하고, 750個所의 中·高·

大學校의 賣店과 553個所의 은행점포에도 충전소를 설치하여 카드충전에 利用市民의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카드제 추가시행은 施行할 路線에 利用市民이 불편을 느끼지 않는 정도의 카드충전소가 확보된 후에 施行하되, 충분한 충전소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고 있음을 報告드립니다.

다음 地下鐵카드는 국민카드사와 假契約까지 맺고 있어 이 카드로는 技術的 시스템이 다른 버스와 택시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는데 기존방식을 백지화하고 버스, 地下鐵, 택시와 混雜通行料, 주차장카드等を 통일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技術的 檢討意向에 대해서 質問하셨습니다.

교통카드제도는 市民의 입장에서 카드 하나로 모든 大衆交通手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금사용 및 승차권 구입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大衆交通機關의 경영 쇄신에 기여하기 위해서 도입한 시스템입니다.

현재 市内버스組合은 組合에서 발행하는 先拂 IC카드를 사용 중에 있고, 地下鐵과 鐵道廳은 銀行 信用IC카드를 이용한 後拂方式으로 各各 14個 驛에 설치를 하여 시험운영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버스나 地下鐵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카드구조와 交通體系가 같아 호환사용에는 문제가 없으나 다만 버스, 地下鐵, 鐵道廳 各 機關間 精算問題에 있어 이해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단일화하는 데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나아가 서울市뿐만 아니라 首都圈 廣域交通次元에서 市界間 운영하는 버스의 料金體系에 대한 문제, 仁川地下鐵 開通에 따른 互換使用問題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이 문제는 지난 번 建設交通部에서 광역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단일카드체계를 준비 중에 있음을 報告드립니다.

택시 혼잡통행료 주차카드는 이용금액의 高價, 그리고 카드 방식의 차이 등으로 모든 교통요금을 한 가지 카드로 해결하기에는 현재의 技術로는 어렵다고 하는 것이 專門家들의 의견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충분한 技術檢證 및 專門家들의 추가적인 諮問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에 저희들이 諮問을 더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버스, 택시 외부광고 收入이 交通部分과는 무관한 體育機關이나 廣告代行社의 財源으로 활용되는 問題의 改善 對策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書面으로 答辯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趙旬衡議員님께서 道峰山, 北漢山, 水洛山, 淸溪山 等 入口에 駐車場이 없어 등산객에게 불편을 주는바, 이에 대한 對策에 대해서 質問을 주셨습니다.

趙議員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名山의 등산로 입구에는 個所當200臺 內외의 현재 公營駐車場 또는 民營駐車場이 설치되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施設들이 등산객들이 自家用 乘用車의 利用을 선호함에 따라서 등산객의 駐車需要를 모두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 地域의 등산로 인근까지는 버스나 地下鐵 等 大衆交通手段이 運行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市의 駐車場擴充政策은 이것보다 더 시급한 住宅街의 駐車難 解消를 위한 駐車場, 그리고 大衆交通手段의 이용촉진을 위한 換乘機能 提高를 위한 換乘駐車場建設에 역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아직 이러한 地域의 駐車場 確保를 위한 餘力은 충분치 못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地域에 대해서 앞으로 추가적인 駐車場 建設도 우리가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만 등산객들이 自家用 乘用車 이용보다는 大衆交通手段을 이용하여 餘暇를 善用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崔光雄議員님께서 書面으로 質問하신 障礙人交通手段에 대한 計劃, 또 개인택시기사의 處罰制度 改善, 개인택시 車庫地 開發支援事項, 버스專用車路 택시진입 허용과 관련해서 택시의 고급 交通手段으로의 유도, 그 다음에 순환합승택시제도의 도입, 그리고 어린이交通事故 예방을 위해서 학교 앞 交通環境 改善事項에 대해서는 書面으로 答辯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答辯을 마치겠습니다.

○副議長 李聲九;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內務局長 나오셔서 答辯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內務局長 李相鎭; 內務局長 李相鎭입니다.

金喜甲議員님과 崔光雄議員님께서 內務局 所管 質疑가 계셨기 때문에 質疑하신 議員님 순서대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金喜甲議員님께서 木洞運動場 管理와 관련해서 木洞運動場을 월드컵 축구전용구장으로 文化體育部와 無償賃貸 契約을 맺으려 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두 번째는 木洞運動場을 地域住民의 生活體育空間으로 활용할 의향은 없는지, 아울러 자전거 접근로와 보관소 등을 확보할 計劃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財團法人 동계체육센터는 실내빙상장 내 체육복 판매장 두 곳 등을 有償轉貸하고 있는데 이를 묵인한 이유와 市 直營으로 운영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첫번째, 木洞運動場 월드컵관련 축구전용구장화에 대해서 말

씀을 드리겠습니다.

文化體育部에서는 2000年代 국가발전의 계기 마련을 위해서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2002年 월드컵축구대회 유치 등과 관련해서 서울에 축구전용구장이 필요하니 木洞運動場을 축구전용구장으로 전환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市에서는 國家次元에서 월드컵유치 문제하고 그리고 축구발전을 위한 이런 문제와 또 이것과 관련된 서울의 축구전용구장 확보의 필요성, 또 이것에 의하면 아무래도 施設補修를 해야 되는데 그 돈이 한 80億원 정도 지금 所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이 投資主體는 어디가 될 것이냐, 지금 저쪽 축구협회측으로서는 民資誘致를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80億원을 民資誘致해서 無償使用을 요청할텐데 그러면 無償使用 要請을 3, 4年 無償한 다음에 다시 市에 반환하는 문제가 80億원 投資問題와의 나중에 讓與問題라든지, 또는 반환되는 여러 가지 문제,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각도로 지금 조사하고 있고, 이 조사가 완료되면 아무래도 政策會議를 통해서 저희가 결정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그것이 결정된 바 없고, 市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번째는 木洞運動場을 地域住民 生活體育空間으로 활용할 計劃에 대해서는 이 木洞運動場은 地域間的 균형발전을 위해서 건립된 西部地域의 綜合競技場입니다.

그래서 현재 아침운동을 하는 地域住民에게 無料로 지금 開放해서 生活體育空間으로 활용중에 있는데 앞으로 축구, 배구, 배드민턴, 에어로빅 등 생활체육교실 등을 年次的으로 開

設해서 地域住民에게 活用토록 할 計劃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自轉車接近路는 運動場 이외 지역과의 연계성이 고려되어야할 그런 事項으로 있어서 이 문제는 關係部署와 충분한 협의를 해야되고, 또 交通問題라든지 이런 接近路開設時에는 또 여기에 따르는附帶施設을 설치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協議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協議가 완료되어서 自轉車接近路가 조성이 되게 되면 거기에 따른 自轉車保管所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번째는 실내빙상장 내 賣店 不法 有償轉貸 및 市 直營 問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木洞 室內氷上場 建立은 88년에 이것이 완료되었는데 總 建立費가 98億원입니다. 그중에서 文體部에서 44億원을 부담했습니다. 부담하면서 99년까지 10年間 文體部에서 管理運營權을 無償으로 주도록 요청이 있어서 그 44億원을 저희가 제공을 받으면서 10年間 無償運營權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文體部에서 이것을 받아서 財團法人 한국동계스포츠센터에 99년까지 管理委託을 주었습니다. 委託 準 條件은 收益金을 대한 체육회에 10%, 빙상경기연맹에 45%, 대한아이스하키협회에 45%를 분배해서 體育振興을 위하여 사용하는 이런 條件으로 賃貸를 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빙상경기장 내에 있는 諸般運營問題라든지 管理問題는지금 財團法人 한국동계스포츠센터에서 가지고 있고 여기에 대한 指導監督權은 文化體育部에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不法賃貸라든지 變則運營 문제는, 그러나 거기에서 갖고 있다 하더라도 寄附採納을 받았기 때문에 전



체 포괄적인 어떤 指導는 市에서도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다고 봐서 저희가 1次로 나가서 調査를 해서 거기에 어떤 이런 問題點이 사실로 밝혀지면 그事項을 바로 文化體育部에다 저희가 是正하도록 措置를 요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崔光雄議員님께서 말씀하신 事項에 대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14個 項을 質問해 주셨는데요, 4個 項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答辯을 드리고 아까 質問하실 때 말씀하신 바와 같이 10個 項에 대해서는 書面으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藥師와 獸醫師에 비하여 看護職公務員이 採用上 不平等 및 昇進積滯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藥師, 獸醫師는 7級으로 채용하고 있고 看護師의 경우는 8級으로 지금 채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各 分野別 專門性和 社會的 人力需給을 고려해서 政府次元에서 地方公務員 전체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그런 事項이기 때문에 서울市 단독으로 이것을 同一職級化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崔議員님의 이 말씀을 저희가 일단 受容을 해서 內務部에서 人事問題에 대한 會議가 있을 때 이런 문제를 저희가 거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문제는 任用試驗에 있어서의 남자의 경우에는 軍經歷 加點制를 실시하고 있는데 여자의 경우와 不平等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新規採用試驗에 있어서 남성들에게는 軍經歷 加點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女性公務員들에게는 96년부터 女性公務員 採用目標制라는 것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女性公務員採用目標制 이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합격선 이하 5점 이내의 女性公務員을 전체 모

집인원의 20%범위 내에서 추가로 합격시키는 이런 制度입니다.

그래서 이 制度를 저희 서울시에서 全國에서는 처음으로今年 4월에 저희 職員들 뽑는데 이것을 施行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女性委員會에서의 建議가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이 目標比率을 2000년까지 20%까지 끌어올려라,今年에 저희가 10%를 施行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 20%로 끌어올리는 事項을 이것을 2000년까지가 아니라 저희가 98년까지 2年間 조기로 당겨서 女性公務員들을 더 많이 확보할 計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는 幹部職 女性公務員 比率을 높이기 위해 昇進候補順位에 女性公務員의 昇進優待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서울시의 女性公務員은 1萬 500名입니다. 그래서 전체 5萬 4,000名 중에서 21.6%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많은 女性公務員이 있습니다만 우리 崔議員님 말씀대로 幹部職公務員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下位職公務員을 포함한 女性公務員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또 女性公務員들을 지금 市에서 저희가 전진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幹部職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豫상을 하고 있고,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女性公務員이라고 해서 人事管理上 차별대우를 받거나 불이익을 받는 일은 현재도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女性公務員을 아주 重要部署, 남자들만 근무했던 이런 部署에 전진배치를 해서 그래서 동등한 資格에서 경쟁을 함으로 해서 우수한 女性公務員을 아주 중요자리로 많이 발탁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政策으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女性公務員들의 産前休暇 및 育兒休職制 實態

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애기 낳기 전에 休暇라든지 애기난 후의 育兒休暇는 女性公務員이원하는 시기에 언제나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男性公務員도 本人이원할 경우에는 育兒休暇制를 지금 현재 실시하는 制度로 되어 있고, 또 실시할 計劃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 男子職員이 애기봐주기 위해서 休職한 사람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면서 答辯을 마치겠습니다.

○副議長 李聲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財務局長 나오셔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權五虎; 財務局長 權五虎입니다.

崔光雄議員님께서 警察을 비롯한 國家機關이 無償으로 사용하고 있는 市有財産에 대해 機關別 坪數, 用途別로 상세히 밝혀 주고, 앞으로의 對策과 싼값으로 賃貸되고 있는 市有財産을 公開賃貸하거나 整理할 計劃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國家機關이 市有地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警察廳 등을 포함하여 7個 部署에 總 576筆地 14萬 7,535坪이며, 서울市에서 國家 땅을 점유하고 있는 것은 總 162筆地 7萬 8,000餘 坪입니다. 구체적인 事項은 書面으로 다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市有財産이나 國有財産을 國家機關이나 市가 無償으로 사용하는 것은 公共事業을 위하여 國·公有地를 사용할 때는 費用의 절감이나 業務의 효율성을 위해서 無償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國有財産法과 地方財政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이며, 國家機關이 市有財産을 이와 같이 많이 점유하고 있는 것은 國有財産과 市有財産의 활용이 엄격하게 구분되지 않았던 88年 5月 이전에 대부분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警察廳 占有財産이 많은 것은 91年 7月 31日까지 서울市警察廳이 서울市 所屬

機關으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市有財産의 賃貸價格이 너무 저렴하다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市有財産 賃貸料의 산정은 土地는 가장 최근에 公示한 個別公示地價를 기준으로 土地價格을 산정하고, 建物は 公認鑑定機關의 建物評價額을 財産價額으로 하여 條例에 정한 貸付率을 적용, 산출하여 公有財産審議委員會의 심의를 거쳐 貸付料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市有財産의 賃貸는 모두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서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낮게 策定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議員님께서 구체적으로 지적하신 商業銀行이라든지 美文化院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資料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報告를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市有財産의 앞으로의 管理計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國家機關이 점유하고 있는 市有財産은 市가 점유하고 있는 國有財産과 감정비율로 교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5年度에는 氣象廳 등 2個 機關에 土地 31筆地 1萬 4,873坪, 建物 12棟 3,125坪을 교환을 했고, 96年度에도 警察廳 등 4個 機關에 土地 67筆地 3萬 3,280坪, 建物 7棟 1,796坪을 교환 추진 중에 있으며, 또 새로이 國家가 사용하고자 한 土地에 대하여는 특별한 事由가 없는 한 有償賃貸도록 措置를 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公有財産은 建物로 점유되고 있는 土地를 賃貸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事由가 없는 한 公開競爭으로 貸付도록 하고 있습니다.

95年末에도 서울大公園 등에서 公開競爭으로 貸付해서 종전 賃貸料보다 3, 4배 이상을 지금 더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한 一般市有地에 대해서는 96年 3月 2日부터 7月末까지의 期間으로 하여 市有財産 일제 調査를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財産 調査結果 無斷占有財産에 대해서는 辨償金을 부과하고 또한 貸付契約을 체결토록 할 方針이며, 그 외에 활용되지 않는 土地 등에 대하여는 駐車場이나 소공원 조성 및 公開賃貸 등 方案을 강구하여 市有財産 管理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報告를 마치겠습니다.

○副議長 李聲九; 다음은 保健社會局長 나오셔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社會局長 元世勳; 保健社會局長 元世勳입니다.

崔光雄議員님께서 納骨基地를 널리 보급할 수 있는 方案, 또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深夜 營業制限問題, 保健醫療體系問題의 現況과 對策, 또 應急醫療體系에 대해서 書面質疑를 하셨습니다. 이 중에서 납골묘지를 널리 보급할 수 있는 方案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答辯드리고, 나머지 事項에 대해서는 書面으로 答辯드리겠습니다.

崔議員께서는 최근 서울市가 개발예정인 한국형 납골묘의 성공 및 과급을 위하여 國立基地와 비교되는 서울市立 납골묘지를 조성해서 市政發展에 공을 세운 公務員과 市議員, 그리고 모범시민 중에서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이 납골묘역에 문히게 하여 화장제도와 납골제도를 널리 보급할 수 있도록 提議하셨습니다.

우리 市에서 運營하고 있는 市立基地는 5個所에 223萬坪이나 이 중에서 3個의 시립묘지는 만장되어 있으며, 잔여 면적이 4萬 7,000坪으로 현 매장 추세를 감안할 때 앞으로 2年

9個月 정도밖에 使用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納骨堂의 施設擴充이나 한국형 납골묘 조성 등을 통해 매장 중심의 장례문화를 화장 중심으로 改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뿌리깊은 매장문화를 改善하기 위하여는 崔議員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무엇보다도 사회지도층 인사 등의 솔선수범이 있어야 하겠으나 형편상 일정한 기준에 의한 有功公務員이나 市議員 등으로 이용자를 국한시키는 國立墓地와 비교되는 서울市立 납골묘지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는 현재의 묘지난이나 사회형평성 차원에서 심도 있게 檢討해야 할 事項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97年度 이후에 造成할 예정인 한국형 납골묘지는 매장 중심에서 화장 중심으로 장묘관행의 변화를 위하여 納骨堂으로 안치하기 위한 중간단계로서 造成될 납골묘는 市民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할 計劃이므로 議員님들께서도 많은 이용과 指導鞭撻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趙旬衡議員님의 質問에 答辯드리겠습니다.

趙議員께서는 市立共同葬禮式場을 建立해서 哀喪으로 인한 經濟的 高충을 덜어주고 또한 病院 靈安室을 개선해서 바가지요금 등 부조리가 없도록 철저한 行政指導를 촉구하셨습니다.

市立葬禮式場의 設置必要性 및 現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최근들어 아파트 보급 등 住居形態 및 市民들의 意識변화로 집 밖에서 장례를 치르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專門葬禮式場의 設置의 필요성은 절실하나 法令制度의 불합리와 市民들이 혐오시설로 인식해서 建立이 어려운 형편이고, 신고된 現況을 보면 모두 病院附設 葬禮式場으로 전문장례식장은 없는 실정이며, 일부 病院附設 葬禮式場은 좁으며 또 施設이 낙후

하고, 불법 부당요금을 징수하고, 장의용품에 대한 고액구매를 강요하는 등 여러 가지 부조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市에서는 專門 葬禮式場 建立에 民間參與를 유도하기위하여 政府財政投融資基金을 통한 低利融資 對象者를 선정 중에 있으며 98년까지는 專門 民間葬禮式場으로 3個所 이상 확보할 計劃입니다.

그리고 또한 葬禮式場, 納骨堂 등 葬墓施設의 設置가 法令 등 制度的인 불합리로 제한되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中央政府에 關聯法令 改正을 要請하는 등 지속적인 협의를 해 나갈 計劃이며, 시범적으로 江南病院附屬靈安室을 직영체제로 運營하고, 증축 등 施設改善과 함께 종합장례서비스제도를 확립해서 市民들에게 저렴한 費用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부당요금, 埶徵收 등 부조리 근절로 利用市民의 불편을 해소하며, 다른 장례식장의 모범이 되도록 運營하고 나머지 부조리 근절로 市民들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개선해 나가겠으며, 一般病院의 敷設葬禮式場에 대해서도 환경개선 및 부조리근절을 위하여 지속적인 行政指導로 市民 불편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答辯 마치겠습니다.

○副議長 李聲九; 다음은 家庭福祉局長 나오셔서 答辯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局長 安熙玉; 家庭福祉局長 安熙玉입니다.

崔光雄議員님과 趙旬衡議員님께서 質疑하신 事項에 대하여 答辯드리겠습니다.

먼저 崔光雄議員님께서 少年·少女家長에 대해서 支援策과 自活프로그램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이 아이들의 생활형편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市에서는 부모가 사망을 하거나 질병, 心身障礙 또는 家出, 이혼, 특히 受刑 등으로 인하여 만 20세 이하의 少年·少女가 生活을 도맡아서 이끌어 가야 할 경우에 生活保護對象者 選定基準에 적합한 자를 少年·小女家長 世帶로 선정해서 저희가 보호하고 있습니다.

96年 5月 현재 少年·小女家長은 서울市에 557世帶 1,086名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하여는 生活保護對象者에 준하여 生計費의 일체, 學費·學用品費, 그리고 被服費, 交通費 등을 支援하고 있으며, 그 支援內容을 金額으로 환산을 하면 1人當 月 平均 初等學生은 9萬 8,000餘원, 中學生은 16萬 2,000餘원, 高等學生은 19萬 5,000餘원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이들의 자활을 돕기 위해서 月貫로 살고 있는 少年·小女家長 世帶에게는 世帶當 2,000萬원의 傳貫資金을 支援해서 안정된 住居生活을 할 수 있도록 支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생활에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民間後援者에 대한결연사업을 통해서 금전적인 후원은 물론, 정신적인 支援 등 이들을 돕는데 저희가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의 생활실태는 대부분 法定零細民에 해당하는 者들이기 때문에 自治區別로 區廳에서 상담원이 가정방문을 실시하여 이들의 실태를 수시로 파악을 해서 상담을 통한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支援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趙旬衡議員님께서 質疑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答辯드리겠습니다.

먼저 老人福祉政策으로 老人의 就業政策은 어떻게 運營되



고 있으며, 그 성과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市에서는 날로 늘어나는 老人들의 遊休人力을 활용하고 老人들에게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노후에 안락하고 안정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93년부터 전산시스템을 도입한 高齡者 취업알선센터 12個所를 運營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市에서 設置하는 公共施設 內에 있는 신문이라든지 복권판매대, 그리고 식음료를 파는 자판기 등에는 生活保護對象者 老人에게 우선하여 분양하는 그런 條例를 制定해서 지금 運營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今年 4월에 老人就業 活性化 對策을 樹立을 해서 現在 老人就業 活性化를 위한 各種 施策을 推進하고 있습니다.

이 成果로서 高齡者 就業斡旋센터에서는 每年 4,000餘 名の 老人분들께 就業에 대한 알선을 해 드리고 있고, 건널목의 교통정리라든지,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는 그런 環境監視活動이라든지, 公園管理, 自律防犯隊員 이런 活動 等に 한 6,700名の 老人분들이 참여 활동을하고 계십니다. 또한 한문서당이라든지, 전통예절교실 등에서 학생이라든지 地域住民을 가르치는 그런 敎育을 담당하고 계시고, 老人共同作業場이 95個所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일거리를 제공해 드리고 있고, 특히 서울市 老人福祉의 力點事業으로 되어 있는 가정도우미에도 老人들이 많이 참여해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駐車場의 수금원이라든지, 公園의 잡초제거원, 공원도우미등의 老人들에 대한 적합한 직종을 계속 발굴해서 우리 市 傘下 公共機關에서부터 우선적으로 老人人力을 肅選해서 적극 활용해 나가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綠地空間이나 公園 等 야외 여러 곳에 市立禮式場을

設立해서 결혼비용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도록 行政力을 동원해 주기 바라는 그런 제안을 주셨습니다.

우리 市에서는 생활이 어렵거나 혼인 성수기를 맞아 예식장을 찾기 어려운 그런 신랑 신부들을 위해서 검소하고 경건한 禮式을 올릴 수 있도록 무료로 式場을 제공하거나 또는 實費로 운영하는 그런 結婚禮式場이 屋內·外로 모두 120個所가 있습니다.

무료로 개방하고 있는 禮式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남산 분수대앞이라든지 한강 고수부지, 용산가족공원, 어린이대공원, 그리고 市民公園 等 현재 23個所를 開放을 해서 結婚費用을 줄이고 야외에서 婚禮를 올릴 수 있도록 모든 편의를 제공하고 있어서 많은 신랑신부들이 이곳에서 현재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區民會館이라든지 福祉館, 洞事務所 등의 公共機關이나 단체에서 제공하는 屋內·外 禮式場도 100餘 個所가 있습니다. 野外結婚式은 숲속이나 정원의 자연정취 안에서 혼잡을 피하고,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예식을 올릴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禮式文化가 조금씩 바뀌어져 야외결혼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어서 結婚式場으로 활용할 수 있는 綠地空間이나 공원을 계속 물색해서 예식장으로 계속확대, 개방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答辯을 마치겠습니다.

○副議長 李聲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都市計劃局長 나오셔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局長 洪鍾敏; 都市計劃局長 洪鍾敏입니다.

먼저 金喜甲議員님께서 質疑하신 高速鐵道의 서울시 通過 區間에 대한 서울시 立場에 대해서 答辯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니다.

政府에서는 당초 91年 8月 京釜高速鐵道路線을 발표하면서 서울市內 區間은 지하로 通過하겠다고 발표를 하였었습니다.

그 이후 豫算節減과 工期短縮을 위해서 93年 6月 首都圈 驛 舍를 서울驛과 京畿道 日直驛으로 정하고, 1段階로 기존 地上路線과 현 서울驛을 활용하여 開通하고, 2段階로 路線地下化 및 中央驛舍 위치를 再檢討하기로 計劃을 수정한 바 있습니다.

우리 市에서는 段階別 施行에 따른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高速鐵道 地上建設時에 주변지역에 소음이나 진동 등 주거환경 악화가 우려되고, 중앙역사를 서울驛으로 결정할 경우에 우리 市 都市空間構造改編이나 交通處理, 市民接近性 不便 等に 문제점이 豫想되어 시내통과 路線 地下화와 中央驛을 龍山驛으로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推進方案 等 기술적인 검토와 중앙역사 위치선정을 위한 용역을 建設交通部와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금년 6月內 建設交通部에서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고, 用役過程에서 우리 市 意見이 관철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崔光雄議員님께서 書面으로 質疑하신 都市計劃委員會의 委員委囑과 관련하여 委員들이 江南地域 居住者로 편중되어 있다 하는 그러한 말씀과 北漢山 주변의 高度地區問題, 그리고 大新高等學校의 風致地區 問題, 그리고 道峰區 地域의 人文系 高等學校 設置問題에 대해서 書面으로 質疑하셨는데 이중 都市計劃委員 委囑問題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答辯을 드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세히 答辯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都市計劃委員會 委員委囑과 관련하여서 委員들이 주

로 江南地域 居住者로 편중되어 있다 하는 그러한 말씀이고, 지난 과거 10年間 委員들의 명단을 제출하라 하는 그러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委員委囑과 관련해서 答辯드리면, 現 都市計劃委員 22분들의 居住地에 대해서 檢討해 본 결과, 江南地域 居住者가 다소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委員選定 기준이 居住地보다는 都市計劃的 學識, 그리고 이에 대한 眼目과 公정한 審議資格을 갖춘 社會 各界各層 人士로 선정하다 보니 우연히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와 같은 선정기준 외에도 議員님이 말씀하신 거주지역 고려도 委員選定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임기가 만료되는 委員 交替時에 議員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10年間の 都市計劃委員들의 명단은 별도 소상히 뽑아서 書面으로 答辯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慶奎福議員님께서 質疑하신 麻谷地區를 개발하여 2000年 ASEM會議를 유치할 필요성과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答辯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麻谷地區 開發計劃을 유보한 사유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여러 차례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大規模未開業 綠地空間의 環境保全 필요성과 장래 土地資源을 管理하는 側面, 그리고 또한 市民福祉나 文化, 環境, 交通, 安全分野 등에 우선투자해야 하는 市의 재정사정 등을 감안할 때 일시에 數千億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투자사업은 현 단계에서 착수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麻谷地區에 대해서는 개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政府에서 주관하는 ASEM會議 開催 신청접수는 이미 지난 5月 16日자로 完了된 상태이나 麻谷地區는 개발에 착수한다 하더라도 完了時까지는 土地補償이나 基盤施設 造成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2000年 ASEM會議에 대비하기는 시간적으로 어렵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趙旬衡議員님께서 質疑하신 自然綠地 活用問題에 대해서 自然綠地를 綠地空間 保全과 公共施設, 그리고 福祉施設 建立에 적극 活用할 用意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또한 녹지경사도 21도 이하인 지역에 대해서는 휴식공간 시설로도 가능하도록 檢討할 用意는 없느냐 하는 그러한 質問에 대해서 答辯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市內에 개발 가능한 都市計劃上 自然·생산녹지 면적은 총 23km<sup>2</sup> 정도이나 대규모 녹지공간의 환경보전 필요성과 장래 토지자원을 管理하는 측면에서 최대한 保全을 原則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얼마남지 않은 녹지공간을 모두 開發하기보다는 우리의 후대들이 더 좋은 技術과 計劃으로 開發할 수 있도록 留保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꼭 필요한 公共施設이나 社會福祉施設 등은 대규모 개발과는 별도로 부분적 허용은 검토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判斷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사도 21도 이하의 완만한 綠地帶에 議員님이 提案하신 바와 같은 近隣公園 등 市民의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問題에 대해서는 財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그러한 計劃을 담고 있습니다.

역시 趙議員님이 質疑하신 취락구조사업으로 형성된 마을에 自然綠地地域을 一般住居地域으로 變更할 것을 質疑하셨고, 瑞草區 新院洞이 그린벨트 내에 初等學校 新設을 요청하는

그러한 質問에 대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自然綠地地域에 형성된 集團住宅地에 대해서 市民의 不便, 그리고 都市計劃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不良住宅이 密集되어 있는 地域은 住居環境改善事業을 통해서 市民不便을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江南地域 一帶와 北漢山 一帶의 취락구조사업으로 형성된 부락은 대부분 開發制限區域 內에 自然綠地地域으로 區域 內 居住期間에 따라서 建築面積을 차등 허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指定 以前부터의 居住者에 대해서는 既存面積을 포함해서 60坪 이하, 그리고 5年 이상 居住者에 대해서는 既存面積을 포함해서 40坪 이하를 建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建蔽率이나 容積率을 一般 建築法에 따르지 않고 開發制限區域管理規程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 自然綠地 地域을 一般住居地域으로 變更하더라도 土地의 고밀화 이용면에서는 實益이 없다 하는 것을 參考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瑞草區 新院洞 一帶 初等學校 誘致問題는 開發制限區域 內에서도 初等學校 設置가 가능하므로 學校需要 關係 등을 고려해서 教育廳과 協議하여 初等學校 設置問題는 적극적으로 推進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答辯을 마치겠습니다.

○副議長 李聲九; 다음은 住宅局長 나오셔서 答辯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住宅局長 邊榮進; 住宅局長 邊榮進입니다.

住宅局 所管事項으로 崔光雄議員님께서 書面으로 4件, 慶奎福議員님께서 1件, 그리고 趙旬衡議員님께서 1件을 質疑해 주셨습니다. 資問주신 順序대로 答辯드리겠습니다.

먼저 崔光雄議員님께서 現行 屋外廣告物 關聯法승이 지나

치게 엄격하고 광고업자 위주로 되어 있어 不法廣告物을 양산하는 형편이니 認·許可證 寫本 添附制度의 廢止 등 關聯法令의 전반적인 改正을 建議할용의가 없는지와 도시공간 보전을 위한 屋外廣告物 整備計劃을 물으셨습니다.

廣告物이 도시경관의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一般市民의 認識이 낮아 우려를 갖고 있던 중이었으므로 우선 議員님께서 보여주신 각별한 관심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광고물 표시허가 신청시에 提出기로 된 해당 認·許可證 寫本の 添附制度는 無許可營業을 規制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지만 그 실효성이 문제가 되는 만큼 民願便宜의 提高次元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法令改正을 建議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屋外廣告物 管理를 위하여 綜合的인 計劃을 樹立施行할 것이며, 이와 關聯하여 전반적인 法令改正도 같이 推進하겠습니다. 質疑 中에 주신 여러 좋은 제안말씀은 각별히 參考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소형 고층아파트 위주의 住宅供給이 住居環境이나 都市景觀에 부정적으로 미칠 영향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시면서 都市景觀을 저해할 고층아파트 建設을 抑制하는 등 인간다운 住居環境의 確保와 조화로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하여 어떤 方案이 있는지 質疑하셨습니다.

무분별한 고층아파트의 建設을 規制하기 위하여 첫째, 再開發基本計劃을 樹立하여 再開發事業의 公共的 側面을 강조한 開發이 되도록하고 두번째, 再開發·再建築의 잠재력이 큰 곳은 필요한 경우 地區詳細計劃區域을 指定하여 管理하며 셋째, 建築委員會의 建築審議時에 住居環境이나 도시경관 측면에 중점을 두어 審議하도록 하는 등 모든 方案을 講究하겠습니다.

한편, 최저주거기준제도의 도입과 최저주거기준의 실현을 위한 소득계층별 정책수단의 開發을 위하여 현재 市政開發研究院에서 研究中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施行되는 公共住宅團地나 宅地開發地區는 환경친화적인 團地가 되도록 開發計劃의 成案時부터 각별히 유의하겠음을 答辯드립니다.

崔光雄議員님께서 세번째로 質疑하시면서 道峰 市民아파트의 安全과 關聯하여 市에서 아파트를 매입하는 등 政策的 決斷을 要求하셨습니다. 우리 市는 市民아파트에 대하여 每年 精密安全診斷을 實施하고 그 결과에 따라 補修·補強하거나 안전상 위험한 建物は 철거해 오고 있습니다.

道峰 市民아파트는 昨年度 精密安全診斷結果 긴급한 위해 우려가 없고, 補修·補強으로 계속 使用할 수 있는 B級으로 判定받았습니다.今年度에도 安全診斷을 현재 實施 中에 있습니다만, A級에 해당하는 市民아파트는 入住民들을 우리 市가 建立하는 公共아파트에 우선 移住시킨 후에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道峰 市民아파트는 긴급히 措置할 A級이 아니므로 아직 매입문제를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종래의 방침대로 住民의 80% 이상이 철거에 동의할 경우에는 建物を 補償하고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崔議員님께서 네번째 質問으로 우이천 주변 無許可 不良住宅 整備計劃을 물으셨습니다.

그간 우이천 주변은 민영아파트의 건설 등으로 지속적으로 整備되었고, 특히 상당부분은 再開發區域으로 指定되어 현재 자력재개발방식으로 整備 中입니다만, 아직 不良住宅들이 덕성여대에 인접한 雙門洞 413番地 一帶 200여채 존재해 있습니다. 住居環境이 열악한 이住宅들도 앞으로 住民意見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住居環境改善事業이나 再開發事業으로 推進



되도록 노력할 것임을 답변드립니다.

이어서 慶奎福議員님께서 質疑하신 80年代 建設한 不實建築物에 대한 安全管理問題에 대하여 答辯드립니다.

3萬m<sup>2</sup> 이상 또는 16層 이상의 大型建築物 및 5,000m<sup>2</sup> 이상의 多衆利用 建築物은 施設物の 安全管理에 관한 特別法에 의하여 법정 절차에 따라 管理됩니다만, 그 외 建築物의 安全管理은 建築主의 책임으로 맡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慶議員님이 指摘하신 대로 法定建築物 이외의 建築物에 대한 安全管理도 중요하며, 특히 자재과동 등으로 不實工事が 우려되는 70年代末 또는 80年代 建物の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 市는 지난 1995년에 區廳과 洞事務所에 신고창구를 開設하여 77件의 住民申告를 받아서 點檢을 完了한 후 事案別로 措置한바 있습니다. 今年에도 그러한 신고창구를 開設하고 診斷을 實施하여 그 결과에 따라 改·補修와 使用制限 등 필요한 措置를 취하는 한편, 私設 危險建築物 管理臺帳을 作成하여 지속적인 維持管理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趙旬衡議員님께서 해 주신 취락구조개선사업 지구 내주택의 지하 셋방에 살고 있는 零細民에 대한 行政措置를 完化할 制度的 뒷받침을 마련하라는 質疑에 대하여 答辯드리겠습니다.

質疑하신 취락구조개선사업은 開發制限區域 內에 이루어진 事業으로서 關聯規定에 위반된 까닭에 부득이 취해진 行政措置입니다만, 指置對象은 셋방에 거주하는 零細市民이 아니라 關係規定을 위반한 建築主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昨年 3月 都市計画法施行規則이 改正되어 開發制限區域內 住宅의 주거용도로 허용되는 面積이 100m<sup>2</sup>에

서 132㎡, 또는 200㎡로 완화되었으므로 既存 違法建築物의 상당수를 구제할 수 있다고 判斷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市는 일제조사를 거쳐 구제대상은 設計變更의 절차를 통하여 竣工處理 즉, 使用承認措置가 이루어지도록 各 自治區에 이미 指示하였음을 答辯드립니다.

이상 住宅局長이 答辯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李聲九; 다음은 道路局長 나오셔서 答辯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道路局長 徐茂田; 道路局長 徐茂田입니다.

오늘 質問하신 事項 中 道路局 관련사항을 질문하신 議員님 순서대로 答변드리겠습니다.

먼저 金喜甲議員님께서 質問하신 西江大橋 完工時期에 대하여 答변드리면, 지난 92年 11月 着工하여 금년 11月末에 完工豫定인 西江大橋 本橋 1,320m 구간은 현재 公정이 85% 수준으로써 금년말경 當初計劃대로 강변북로까지 완공할 계획이며, 西江大橋 북단인 강변북로에서 大興路間 500m 區間은 내년 6月말까지, 大興路에서 新村로터리까지 980m 구간은 98년에 完工할 目標로 推進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慶奎福議員님께서 질문하신 自轉車道路 建設計劃에 대해 答변드리면, 住宅地와 學校, 百貨店, 地下鐵驛 등 단거리 交通수요가 있는 地域과 河川 公園 內로서 自轉車道路 設置가 가능한 지역에 현재까지 漢江 高水敷地에 36.9km를 包含하여 총 40여 개소에 약 100km의 自轉車道路가 建設되어 있습니다. 기존 道路上에 自轉車 道路를 建設하는 데는 空間의 제약 등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議員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차량위주의 道路構造에서 步行環境 改善으로 걸을 수 있는 보도공간 확보와 동시에, 자전거 이용 活性化를

위하여 道路空間 構造改善 基本計劃을 樹立하여금년 下半期 부터 施行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위한 專擔部署도 빠른 時日 內에 新設할 計劃으로 있습니다.

또한 慶奎福議員님께서는 江西區 禾谷洞 곰달래길이 매우 혼잡하므로 江西區 禾谷洞 843番地에서 陽川區 新亭洞 880番地間에 경인고속도로 횡단 고가차도를 設置할 수 있는 지를 質問하셨습니다.

禾谷4洞과 新亭洞을 連結하는 경인고속도로 횡단 고가차도 設置는同 地域이 접속도로 폭이 10m로 협소하고 禾谷洞 북 개도로가 차단되는등 現場여건상 설치가 매우 어려운 地域입니다. 앞으로 禾谷洞 곰달래길을 포함한 주변 도로망 체계를 綜合的으로 分析하여 동 지역의 混雜緩和方案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趙旬衡議員님께서 質問하신 廉谷 사거리 地下車道 연장등 交通體系 改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廉谷 地下車道는 주요 幹線道路인 양재대로와 현릉도가 교차하는 지점의 주 교통량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지난 92年 10월에 建設하였습니다.清溪山 入口인 院趾洞 方向의 폭 15m의 地域道路에서 進·出入하기에는 지하차도에서 근거리 에 위치하고 있어서 주 교통용과 엇갈림 현상등으로 이용에 원활하지 못한 점이 있으며, 이를 改善할 目的으로 地下車道를 연장한다는 것은 投資의 타당성면이나 지하차도 構造變更工 事 등에 따른 交通處理 問題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지하차도 연장 설치는 現實的으로 어려운 여건입니다. 앞으로 院趾洞 方向의 地域道路를지하차도에서 원거리 에 배치하는 등 周邊 地域與件을 綜合的으로 檢討하여 改善方案을 講究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答辯을 마치겠습니다.

○副議長 李聲九; 다음은 地下鐵公社 社長 나오셔서 答辯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地下鐵公社 社長 金振浩; 地下鐵公社 社長 金振浩입니다.

金喜甲議員님께서 堂山鐵橋 撤去에 대해서 서너가지 質問을 하셨습니다.

첫째가 현재 추진되고 있는 5호선 工事が 지연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當初에 計劃했던 今年도 12月末까지 어렵지 않느냐 하는 그런 걱정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把握하기로는 5호선 工事が 예정대로 推進되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撤去時期의 변경은 지금 고려한 적이 없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두번째, 地下鐵公社는 經營을 맡아 하는 쪽인데 이렇게 중대한 建設을 왜 建設本部에서 안 맡고 지하철에서 맡게 되었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모든 工事は 사실 운영하고 있는 주체에서 가능하면 建設도 맡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工事を 할 수 있는 可能性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문제는 議員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3·4호선 建設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地下鐵公社가 3·4호선을 建設했고, 그 당시 電鐵 있던 그때 기술 職員들이 그대로 현재 모두 있고, 더 더욱이 地下鐵을 運營하기 위해서는 레일문제라든가 교통문제라든가, 또 신호 문제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專門的으로 저희들이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堂山鐵橋 撤去問題는 그런 복합적인 사항이 얽혀 있어서 저희들이 맡아 하는 것이 훨씬 더 效果的이다 하는 그런 판단에서 저희들이 맡아서 추진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곁들여서 勞使關係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과연 效果的으로 事業을 推進할 것인가 하는 걱정을 해 주셨는데, 대개 設計라든가 施工의 監理를 外部 專門機關이나 일반 專門用役業體에 監理를 맡겨놓고 있고 現場에 監督業務를 하기 때문에 直接的으로 저희들 勞使問題하고는 큰 연관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 그런 사항이고, 더 더욱이 勞使關係의 과업이나 이런 사항들은 勤勞條件의 改善이라든가 賃金에 관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다소 議員님 걱정해 주신 것처럼 분위기상의 문제는 있습니다만 실제로 業務推進을 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걱정해 주신 사항 충분히 참작해서 차질이 안 되도록 열심히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質疑해 주신 내용이, 처음에 이것을 보수하는 쪽으로 政策이 決定되어 가다가 갑자기 철거 쪽으로 變更되었는데 市長님 결심이 조금 경솔하게, 너무 성급하게 결정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만, 사실 議員님이 指摘해 주신 것처럼 저희 地下鐵公社에서는 처음에 조금 消極的인 方法인 보수쪽으로 進行시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市の 소위 결심이 市民의 안전에 관한 事項을 그렇게 消極的으로 政策을 推進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조금이라도 市民의 安全에 관한 事項이라고 한다면 보다 積極的인 방향으로 政策을 推進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그런 판단하에 저희들이 檢討해 왔던 消極的인 方法하고 積極的인 方法 둘 중에서 철거 쪽의 積極的인 方法을 택했다 하는 事項을 말씀드리고요.

어제 朴謙洙議員님이 質疑해 주신 내용에서 왜 철거를 해야

되는가 하는 구체적인 事項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내용으로 같음했으면 하는 그런 事項으로 양해해 주시면 답변에 같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어제도 나왔고 오늘도 나왔습니다만 議員님들 저희들 堂山鐵橋 撤去問題는 정말로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市民의 안전을 위해서 推進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議員님들 많이 지원해 주시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면서 答辯에 같음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副議長 李聲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教育廳 中等教育局長 나오셔서 答辯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中等教育局長 權榮燦; 中等教育局長 權榮燦입니다.

金喜甲議員님께서 補充授業費 용도에 대하여 管理職에 과다한 手當이 지급되고 있는바, 校長에게 月 30萬원 이상의 管理手當을 支給하고있는 學校와 學校長 決算書 公開 與否, 剩餘金 처리상태에 대해서 質疑를 하셨습니다.

答辯드리겠습니다.

補充授業은 學生들의 개인차로 인해 나타나는 학습부진 및 학습결손을 補充하기 위하여 희망하는 學生에게 희망하는 教科를 受益者 負擔原則으로 지금 運營하고 있습니다. 지난 4月 58個 私立 高等學校를 대상으로 補充授業 運營實態를 調査해 본 結果, 管理手當을 過多支給하고 있는 事例가 있어 校長 會議를 통하여 管理手當의 學校間 형평성 유지와 적정하게 지급하도록 저희가 지시한 바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指導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提出한 資料로는 일부 私立學校에 대하여 學

校長,校監 등에게支給하는管理手當 額數만을 調査했던 것이므로 議員님께서 요구하신 管理手當 月 30萬원 이상을 지급하는 學校는 現代高等學校 外 3個校로 저희가 지금 調査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決算書 공개 여부와 剩餘金 管理狀態 등은 양해해 주신다면 조속한 時日 內에 별도로 調査해서 資料와 書面으로 提出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崔光雄議員님께서 質疑하신 內容 中에서 4-2번, 최근 發表된 資料에 의하면 中學校 在學生 中 한글을 못 읽거나 덧셈 뺄셈 등 쉬운 셈을 못하는 學生들에 대한 指導對策과 또 4-3번, 소년·소녀가장에게 서울特別市教育廳 차원에서는 어떤 支援策과 어떤 자활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이 아이들의 生活形便이 어떤 정도인지에 대하여 質問을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書面으로 자세하게 答辯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答辯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李聲九; 다음은 社會教育體育局長 나오셔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教育體育局長 尹榮烈; 社會教育體育局長 尹榮烈입니다.

慶奎福議員님께서 서울市內 初等學校의 運動部 운영을 豫算支援 없이 학부형 自費로 負擔하고 있는데 豫算을 지원하여 體育發展에 기여할 용의가 없는지 質問하셨습니다.

答辯드리겠습니다.

먼저 初等學校 運動部 育成現況을 말씀드리면, 우리 教育廳에서는 육상 등 22個 種目を 지원 육성하고 있으며, 學校 數

로는 437個校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登錄된 育成學生數는 남여 5,413名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議員님께서指摘하신 바와 같이 初等學校 運動部 育成에 대한 豫算 支援額이 미미해서 대부분 學校 自體豫算 또는 학부모 및 地域社會 협조로 지금까지 어렵게 運營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議員님 말씀과 같이 初等學校 運動部 育成은 우리 나라 體育發展의 기여는 물론, 국제스포츠 경쟁력을 높이는 기초가 되는 중요한 教育事業이므로 우리 教育廳에서는 이를 再認識해서 運動部 育成을 위한 豫算確保 및 活性化 計劃을 현재 樹立中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또 이와 별도로 체육 꿈나무 育成을 위해서 오는 7월에 전체 初·中學生을 대상으로 運動部에 登錄되어 있지 아니한 장신자 등을 각 地域教育廳別로 발굴해서 최종적으로 다시 선발된 180名을 중점 育成해 나갈計劃을 樹立해서 현재 推進中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議員님께서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는 初等學校 運動部 育成을 위한 豫算確保에 대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만 地域社會에서도 운동부 育成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해 적극 支援될 수 있도록 議員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崔光雄議員님께서 우리 꿈나무인 初·中·高等學校 學生이 마음놓고 운동할 수 있는 施設擴充 計劃과 施設 活用度提高를 위해 잔디 운동장 조성과 관련해서 質問해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書面으로 答辯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答辯을 마치겠습니다.

○副議長 李聲九; 끝으로 管理局長 나오셔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管理局長 鄭亨鎭; 管理局長 鄭亨鎭입니다.

崔光雄議員님께서 道峰區 地域에 人文系 高等學校가 부족



해서 中學校를 卒業한 學生 中에 3,000餘 名이 다른 地域으로 通學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解消對策은 무엇인가라는 質問을 주셨습니다.

道峰區 管內에 人文系 高等學校가 부족해서 今年度の 경우에 約 2,600名의 學生이 다른 地域으로 배정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人文系 高等學校의 경우에 서울의 전체를 9個 學群으로 나눠서 學群別로 배정을 하고 있는데 道峰區가 속해 있는 1學群 전체로 보면 750餘 名이 다른 學群에 배정되어서 進學 희망학생 모두를 수용하고자 할 경우에 1個校 정도의 人文系 高等學校 設立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저희로서는 이 문제 解消를 위해서 현재 道峰區 管內에 유일하게 확보되어 있는 道場區 雙門洞 468番地 덕성여대 소유 學校用地에 都心地 밀집 剩餘地域 人文系 高等學校를 移轉토록 권장하고 있음을 報告드립니다.

다음에 崔光雄議員님께서 최근 대규모 아파트 입주로 人口가 급증한 道峰區 倉2洞과 雙門3洞에 初等學校가 없어서 學生 등하교시에 많은 위험이 있는데 初等學校 設立計劃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質問 주셨습니다.

우선 倉2洞 地域은 현재 北部教育廳에서 倉2洞 山 137-9番地 一帶 1萬 1,000m<sup>2</sup>를 學校用地로 施設決定해 줄 것을 저희가 道峰區廳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저희로서는 學校用地가 확보되면 곧 學校設立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雙門3洞 地域은 公터가 없는 住宅街이므로 學校用地 확보가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議員님께서 지적하신 雙門3洞地域 아동들이 등하교시 危險問題에 대해서는 저희가 道峰區廳을 포함한 關係機關과 協議해서 육교나 지하도 設置 등 安全對策을 적극 檢討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慶奎福議員님께서 人文系 高等學校가 부족한 江西區의 實業系 高等學校 편중 사유와 人文系 高等學校 新設計劃과 아울러서 이地域의 敎員을 증원할 計劃을 갖고 있는지 質問을 주셨습니다.

江西區 管内 實業系 高等學校 學生 分布比率을 말씀드리면, 서울市 전체 實業系 高等學校 學生 分布比率보다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로서는 國家 産業人力 양성을 목적으로 産業敎育振興法에 따라서 高等學校 人文 對 實業系 學生의 분포비율을 50 對 50을 目標로 實業系 高等學校 設立을 계속 추진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江西 管内 人文系 高等學校 收容能力은 進學 희망자에 비해서 여유가 많아 今年度の 경우에 인근 陽川區 居住 學生 850名이 배정되고 있어서 서울地域 어느 地域에 비해서도 양호할 뿐만 아니라, 특히 永登浦 長薰高等學校가 江西區 加陽洞에 이미 6,414坪의 學校用地를 확보하고 있어서 이 地域에 移轉을 추진중에 있으므로 앞으로 이 地域은 지금보다 더 나은 敎育與件이 조성되리라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江西區로 移轉하게 된 東洋工高는 현재의 高尺洞 所在地가校地가 基準面積에 비해서 부족할 뿐만 아니라 施設 또한 몹시 老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敎育與件 改善을 위해서 이미 확보한 校地로불가피하게 移轉하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敎員 增員對策에 대해서는 현재 學級수를 기준으로 서울市 全 學校에 동일한 比率로 敎師를 배치하고 있으며, 敎育改革의 일환으로 學級當 人員을 年次的으로 줄여갈 計劃을 갖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敎育與件이 크게 改善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慶奎福議員님께서 電氣, 上·下水道 등 老朽學校 施設의 전면적 補修計劃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質問을 주셨습니다.

그 동안 저희는 學校 老朽施設의 補修에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施設費 부족으로 만족할 만한 전면적 補修는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지난해 教育環境改善特別計劃法이 制定되어서 今年 7月 1日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老朽教室 改築, 化粧室 改善, 이중창 설치, 煖房施設 개선 및 전기 승압시설 등 전반적인 教育環境 改善事業을 施行하기 위하여 教育部로부터 교부된 1,114億원과 저희 자체 負擔金 497億원을 포함해서 1,611億원을 今年 追更豫算에 반영할 計劃입니다.

教育環境改善事業費는 앞으로 5年間 環境改善을 위해서 10個 事業에 集中的으로 投資할 計劃입니다. 특히 議員님께서指摘하신 電氣 및 上·下水道 改善事業은 금년도 환특회계의 主要事業에 포함되어 있으며, 전기승압 및 보수는 전체물량 1萬 7,607 중에서 57%인 996室에 149億 9,400萬원을 投資해서 補修할 計劃이며, 97年度 중에도 今年도와 같이 동일한 수준의 豫算을 投資할 計劃입니다.

또한 上水道 改善事業은 현재 실사중에 있습니다만 저희가 파악한 추정치로는 交替해야 할 上水道管이 10萬 4,000m에 해당되겠습니다. 저희는 補修金額을 74億원을 投資해서 實查가 끝나는 대로 전면적으로 저희가 補修를 실행하려고 합니다. 환특회계의 事業期間인 2000년까지 지금과 같은 規模의 豫算을 계속적으로 投資한다면 저희 學校環境은 괄목할 만하게 改善되리라고 기대해 봅니다.

다음 趙旬衡議員님께서 瑞草區 新院洞 및 院趾洞에 初等學校가 없어서 彦南初等學校로 장거리 통학하고 있는데, 동

지역에 초등학교를 設置할 용의는 없는가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議員님께서 말씀하신 初等學校 新設要求 地域은 산과 농지를 중심으로 군락을 이루고 있는 전형적인 농가 형태의 자연부락입니다. 그래서 자연부락간의 거리도 1km내지 2km 정도가 떨어진 開發制限區域으로 서울시와 城南市의 境界地域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들의 通學便宜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학교를 설립하게 될 경우에 新院洞 세원마을 등 자연부락별로 여러 개의 학교설립소요가 발생되어서 학교가 신설될 경우에 이 지역의 학생들이 현재 就學하고 있는 彦南初等學校의 학생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어 다량의 遊休教室이 발생하게 되며, 學校新設에 따른 豫算確保 問題와 소규모 學校運營에 따른 諸般問題點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지역의 學校設立은 어느 정도의 時日을 두면서 신중히 檢討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현재 어린 학생들의 通學便宜를 위해서 關係當局과 저희는協議해서 마을버스 노선개설이나 또는 기존 버스路線의 변경을 통해서 학생들의 通學便宜를 최대한 改善하도록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答辯을 마치겠습니다.

○副議長 李聲九; 수고했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執行部側의 答辯內容에 대하여 崔光雄議員의 補充質問 申請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崔光雄議員 나오셔서 補充質問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光雄 議員; 先輩議員님 여러분, 崔光雄議員입니다.

먼저 教育監께 묻겠습니다.

아까 答辯 途中에 敎員委員 資格制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시는 도중에 문제의 學校運營委員會條例 第22條와 關聯해서 學校運營規程으로 정할 수 있다, 學校長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市·道敎育廳의 進行되고 있는 事項들, 그리고 다른 市·道敎育廳에서 條例로 정하고 있는 內容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서 우리 敎育監께서는 어떤 立場이신지에 대해서 밝히시지 않았습시다. 말하자면 本議員이 질문했던 우리 議會에서 制定해 준 그 條例에 資格制限을 하는 것은 學校長 裁量權을 넘어서는 것이다, 명백한 條例違反 行爲가 된 다라고 本議員이 指摘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의 指摘이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答辯을 하지 않았습시다. 여기에 대해서 좀 答辯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그와 關聯해서 아까 답변 도중에 골고루 정할필요가 있을 경우 全體 敎員의 合意를 바탕으로 정해야 한다고 答辯하셨습니다, 性別, 職級別, 年齡別 等等. 그런데 이 신서중학교의 경우에 제가 입수한 運營規程을 보면, 當初案은 敎育經歷 15年 이상, 그리고 審議後 確定案은 5年 이상의 敎育經歷에 敎育長 以上の 表彰을 받은 者,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오래된 敎育經歷者를 될 수 있으면 幹部職 敎員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또 우리 敎育監께서 答辯하신 것과 비교를 한다면 분명한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本議員이 지금 資料를 가지고 나왔습시다만, 충분히 調查해서 人事措置는 違反事項이 발견되면 人事措置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資料를 좀 提出하겠습니다.

이 資料에 보면, 아까 合理的인 方法으로 다수의 意見, 그리고 審議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다수의 의견은 고려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63名 선생님 중에서

46名이 동의한 運營規程審議案에 대해서 교장선생님이 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運營規程에는, 아까 昌德女中인가요, 어린 학생들이 갔으니까 오히려 다행입니다.

運營規程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일반적으로 國會, 우리 議會도 마찬가지입니다. 투표를 하게 되면 처음에 과반수, 그리고 과반수가 안나오면 그 다음에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를 해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면 3차 투표를 해서 종다수 최다 득표를 한 자를 當選시키는 것이 이것이 民主主義의 기본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을 것인데,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이 규정을 아예 빼버리고 처음부터 다득표자가 運營委員으로 當選되는 것으로 이런 규정을 만 들어 왔어요. 아까 학생들이 있었으면 정말로 이런 얘기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지도 못합니다. 명백한 條例 違反行爲, 이 條例도 하나의 法令體系라고 한다면 公務員服務規程 違反이고, 확인해 본 결과 江西教育廳에서 是正指示를 여러 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양반 무슨 배짱인지 계속 버티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指摘한 몇 가지 事項만 보더라도 명백한 人事措置 사유가 된다고 判斷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확실하게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答辯을 해 주시고, 다음으로 趙市長님 지금 안 계십니다만, 제가 아까 質問할 때 시간이 짧은 관계로 거의 총알같이 읽다시피 했습니다. 市政質問은 임기 3年 동안에 몇 차례 안 돌아오는 굉장히 귀중한 시간입니다만, 市政質問 時間을 통해서 地方議員으로서, 市議員으로서 첫째가는 任務인 執行部에 대한 監視·監督·牽制, 이런 역할을 遂行하는 것이 첫번째 任務임에도 불구하고 本議員은 이 귀중한 시간을 상당시간 할애해서 사실상 市長님이 業務를 遂

行하는 데 있어서 힘을 보태주는 내용의 질문이라기보다는 격려성, 현재 中央과 地域이 不平等하게 되어 있고 서울을, 아까 질문내용에도 나오지만, 무시하고 있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올바르게 고쳐질 수 있도록 執行部와 우리議會가 다 같이 협력하자, 이런 취지로 질문 아닌 질문을 했습니다만 이 질문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손해를 무릅쓰고 그런 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존경하는 趙淳 市長님께서 아무런 코멘트도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우리 政務副市長님께 좀 묻겠습니다.

地方時代 監査方向에 대해서 法律上보다는 慣行의 문제이다, 옳습니다. 사실 法律 고치는 것, 이것 어떻게 보면 간단합니다. 그러나 머리속을 뜯어고치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시간이 없어서 못했지만 國會議員들이 昨年에 資料要求한 것 보니까 統·班長 교체한 현황까지 요구를 하고 있어요. 물론 地方議會나 地方自治團體長 選舉를 하기 전에는 속된 말로 國會議員들 잘나갔습니다. 民願도 다 國會議員들한테 오고, 法에 없는 간섭, 개입, 이런 것 다 國會議員들이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 사람들 地方化時代, 地方自治時代에 적응하려니까 잘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地方議員들, 우리들에 대한 신분상의 대접, 그런 식으로 해 놓고도 이 사람들 정말로 地方自治를 원하는지조차 의심스럽습니다.

本議員이 지적한 내용들은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어찌 보면 政治的인 事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뭐 法令違反行爲, 구체적으로 事務遂行을 거부하자, 地方教育財政交付金法에 나와 있는 그 事項, 敎員俸給 편성하지 말자, 이런 주장은

어찌 보면 혈기왕성한 젊은 議員인 저의 과격한 주장일지는 몰라도 제가 그것을 직접 우리가 이 자리에서 결의를 하자,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으자, 그런 뜻보다는 오히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이제까지의 안일한 생각을 더 이상 갖지 말고 정말로 새시대 새로운 地方時代에 정말로 새로운 각오를 가지자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이 職業公務員들은 잘 이해가 안가시겠지만 필요하다면 議會에 협력을 요청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 市議會는 野黨이 多數입니다. 예를 들어서 合法的인 집회와 시위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內務部에서 團體長處罰條項을 新設하는 改惡된 地方自治法 改正案을 國會에 제출했다, 國會 앞에 가서 公務員님들이, 趙淳 市長님이 警察에다가 集會許可 申告書를 제출하고 못할 것 아닙니까? 우리 議員들한테 요청해서 우리 議會에서 그런 것 좀 협조해 주십시오, 이런 것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구체적인 노력들을 하나 하나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 말씀으로 제가 얘기를 드렸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企劃管理室長님, 서울市에서 地方自治警察制度, 그 동안 검토한 바 없다고 答辯을 하셨는데 이것 市政開發研究院이나 市立大 研究所에서 연구할만큼 상당히 어렵고 복잡한 문제가 아닙니다. 간단합니다. 主要 先進國 地方警察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옳은 방향입니다. 그것이 옳은 방향이다라고 答辯할 수 있어야 됩니다. 소신을 가지고,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地方警察委員會를 만들어서 市長과 市議會가 任命權 이런 것을 적당히 나누어 갖고 이런 구체적인 事案에 대해서야 당연히 연구검토해야지요.



그리고 처음에 市議會에 들어왔을 때 우리 市廳 公務員들이 영문명함을 쓰는 것을 봤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서울 메트로폴리탄 거버먼트라고 되어 있어요. 거버먼트, 政府란 얘기 아닙니까? 거버먼트라는 그런 용어를 쓰기 위해서는 정말로 警察問題, 中央政府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관여하지 않는다, 검토하지 않는다, 이런 자세는 지금까지 任命職 市長 때의 그런 자세입니다. 이제 정말로 진정한 거버먼트를 만들기 위해서, 거버먼트가 되기 위해서는 國家的인 事業이라 할 지라도 충분히 검토하고 연구할 내용이 있으면 市政開發研究院에 연구도 의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거버먼트의 반대, 발음이 좀 그렇습니다만 반대가 오거나 이제이션인가요? 분명히 질적으로 영미 계통의 원주민들한테 물어보면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약간은 그 차이를 느끼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財務局長님, 財産管理, 國有財産法, 地方財政法, 公有財産管理條例 등등 여러 가지로 法上 瑕疵가 없더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昨年 行政事務監査에서 우리 여기 뒤에 앉아 계신 李浩助 事務處長, 저 같은 경우에 內務委員會 所管 우리 서울시 自治法規集 전부를 다 검토해서 불합리한 규정, 낡은 규정 이런 것 전부 다 지적해서 고치도록 요구를 한 일이 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는 열심히 공부하고, 各種 法規들을 연구하고, 게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도 政務副市長님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우리 趙市長님께서 늘 강조하고 계신 이 制度와 慣行, 이 낡은 틀 이런 것이 문제고, 저도 바로 그런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물론 國家가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 아무런 문제가 없지요. 그러나 이 合法的인 형식적 절차에 있어서는 合法이라는 미명 아래 中央의 權威主義, 그 동안 존재해 왔던 中央의 權威主義가 오늘날에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지난번 議會에서도 논란이 됐습니다만 安企部 터 서울市에서 買收하는 문제, 時價보다 훨씬 비싸게 買收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논란이 나오는 것 그 자체가 아직도 中央의 權威主義가 오늘날에도 미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세한 사항, 常任委員會에서 다 다루는데 아까운 시간에 제가 뭐하러 法規定, 條例規定 몇 字 들으려고 質問한 것은 아닙니다. 地方時代를 맞이해서 정말로 財産管理, 中央과 地方이 서로 역할을 구분해서 정말로 中央 地方이 서로 上下關係가 아니라 대등하게 협력하고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관계 속에서의 財産管理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過去의 特權이나 불합리하고 낡은 이런 制度, 정리되고 중단시켜야 한다는 방향, 그리고 대원칙, 대원리 이런 차원에서 이제 제가 質問을 했던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質問을 마치면서 여전히 제가 느낀 사항입니다만, 제가 市議會에 들어와서 거의 1년이 되었습니다만 民選 團體長이 출범한 지가 1년이 다 되어 갑니다만 나름대로 우리 趙市長님,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열심히 정말로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만, 아직도 우리 室·局長들 예전에 任命職 時代의 그런 사고에서 아직도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議員들 質問한 것 하나하나 속된 말로 말꼬리 잡는 것 그것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정말로 진지하게 우리 서울을 걱정하고, 地方自治를 걱정하고, 그러한 철학을 가지고, 소신을 가지고 우리 市 行政에 임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質問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李聲九;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崔光雄議員의 補充質問이 있었습니다만 補充質問하여 주신 議員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내일 市政質問 答辯時 一括하여 答辯을 듣고자 합니다.

崔光雄議員님, 양해하십니까?

○崔光雄 議員; 네.

○副議長 李聲九; 그러면 執行部에서는 성실한 자세로 내일 市政質問 答辯時 오늘 補充質問에 대한 答辯을 一括하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市政質問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質問해 주신 네 분의 議員과 答辯하여 주신 關係公務員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진지하게 임해 주신 同僚議員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第85國 臨時會 第3次 本會議를 마치고, 第4次 本會議는 5月 31日 오전 10時에 開議됨을 알려드립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17時 散會)

---

○出席議員 134人

慶奎福 高光哲 高溶振

具哲會 金廣洵 金洛淳

金明炫 金相男 金成洙

金成春 金聖浩 金勝建

金勝子 金寧剛 金永俊

金永春 金永姬 김장주

金在京	金在仁	金種求
金鍾來	金周喆	金亨吉
金洪奎	金喜甲	盧永爽
盧載東	魯泰塾	文錫珍
文龍子	文八卦	閔庚燁
閔相今	閔鍊植	閔泳三
朴謙洙	朴南植	朴德基
朴相根	朴洙桓	朴時河
朴一男	朴贊國	朴贊秀
白南善	白聖德	徐在浣
成聖鏞	宋德華	宋仁回
申垞植	安順德	梁敬淑
梁東錡	梁會善	魚潤慶
呂鼎九	吳廣烈	禹元植
劉大運	柳德烈	柳鍾珽
劉俊相	尹福永	尹鍾一
李康玉	李康珍	李建行
李達源	李善宰	李成浩
李始英	李亮漢	李英順
李容富	李允中	李子源
李廷義	李智文	林靜枝
林鍾化	張夏雲	張壽完
田炳萬	鄭炳權	鄭炳仁
鄭福辰	鄭善順	鄭水華
鄭在天	鄭鎭宇	鄭鎭澤
鄭泰宗	鄭韓植	鄭海純
趙上男	趙相勳	趙旬衡

池龍鎬	池昌洙	車星煥
崔光雄	崔永運	崔鍾午
崔俊和	崔昌奎	崔炯莘
黃炳五	黃仁明	黃正植
홍진구	金洙福	金東洙
黃好淳	許光泰	洪樂元
洪性龍	洪淳喆	洪承采
洪月杓	金錫浩	金亨根
白懿宗	孫馥	吳世根
劉起鍾	金箕英	文一權
李聲九	李載震	李昌根
張精一	崔鍾德	

○出席公務員

서울特別市

市長	趙淳
政務副市長	崔洙秉
企劃管理室長	都明正
環境管理室長	卓秉伍
交通管理室長	金東勳
內務局長	李相鎭
財務局長	權五虎
保健社會局長	元世勳
家庭福祉局長	安熙玉
都市計劃局長	洪鍾敏
住宅局長	邊榮進
道路局長	徐茂田
地下鐵公社	社長 金振浩

서울特別市教育廳

教育監 李俊海

中等教育局長 權榮燦

社會教育體育局長 尹榮烈

管理局長 鄭亨鎭

---

書面質疑書

○金喜甲 議員;

시내버스, 택시의 외부 광고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제13회 정기회에서도 언급한 바 있으나, 그 재계약기간이 오는 10월 2일에 만료됨에 따라 서울시의 내부 방침을 확인하고자 다시 한 번 묻습니다.

'94년 4월부터 '96년 10월까지의 약 30개월 동안 확보되는 광고 수입금은 313억입니다. 이중에서 약 58%에 해당하는 182억 가량이 국민체육진흥공단(14%), 광고대행사인 서울신문사(44%)에 귀속되고 서울시 교통특별회계 수입은 고작해 약 3.6%에 지나지 않는 11억에 불과합니다.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재원의 성질상 버스의 운행으로 발생된 재원이 교통부 문과는 무관한 체육기관이나 광고대행사의 재원으로 활용되는 불합리한 점을 언제, 어떤 방법으로 개선시키겠습니까?

둘째, 시 당국은 혼잡통행료 실시, 주행세 도입 검토 등 교통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내놓고 있는데, 기 확보되어 있는 이러한 교통 재원도 활용하지 못하면서 새로운 교통재원을 확보하려 한다면 본말이 뒤바뀐 정책으로 어떻게 시민들을 설득하겠습니까?

목동과 상계 소각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목동과 상계소각장의 연간 판매수입과 운영비 지출을 비교해 본 결과 목동은 연간 약 25억원, 상계는 약 31억원의 적자가 예상됩니다.

서울시는 목동 소각장과 상계 소각장의 연간 예상 적자를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또한 시 당국의 계획대로 11곳의 자원회수 시설을 만든다면 여기에 투자될 투자 사업비는 과연 어느 규모이며, 시설 가동 시 예상되는 적자는 얼마나 됩니까?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투자사업비만 약 9,000억, 해마다 약 200억원의 누적되는 적자를 안아야 할 '소각장 건설정책'이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崔光雄 議員;

5. 인사분야입니다.

(1) 현행 지방공무원법상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서 전문직 공무원의 채용에 있어서 과학자, 기술자, 특수분야 전문가 등을 해마다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계약직 공무원제의 채용 범위를 확대하여 일반 행정분야에 까지 민간경영인 등을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게 하고, 또한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관련조례를 전향적으로 개정하여 전문성과 진취성, 창의성 등이 절실히 요구되는 정보화 전문화시대에 발맞추어 민간의 앞선 경영마인드를 소유한 인사를 과감하게 채용할 수 있게 할 용의는 없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 시정운영 3개년계획에 의하면, 3개년간 공무원 교육 훈련 계획이 국외 2,032명, 국내 5만 210명 등 3년간 평균 1번씩 교육을 받게 되어 있고, 사업비로는 105억 9,700만원

입니다. 이것은 솔직히 양적인 측면에만 치우쳐 있다는 판단입니다.

서울같이 복잡다단한 대도시 행정에 있어서 업히고설킨 도시문제의 해결 능력을 갖춘 전문가를 양성하겠다는 의지가 결여되어 있다는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인사분야 행정사무감사 때 본의원의 지적처럼 서울시 본청, 사업소, 자치구를 통틀어서 박사가 겨우 40명, 일반 행정분야와 보건 의료계통, 정무직을 빼고나면 전문직 박사는 단 10명, 깜짝 놀랐습니다. 전문가를 시급히 양성해서 복잡다단한 도시문제에 대처하는 일, 내일로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지난 4월에 실시된 시 공무원 여론조사 결과 시급한 순서인 교통, 환경순으로 전문분야의 해외 파견 교육, 늘려서라도 실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 교육훈련을 내실화하여 사회봉사활동이나 발전현장시찰 등의 체험교육을 강화하고, 배낭여행같은 해외견학기회를 많이 마련하여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공무원의 의식 행태를 바르게 정립해야 하겠습니다.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 과로에 시달리고 능률이 떨어지는 서울시 공무원 근무여건에 대한 문제입니다.

늘 시장께서 하시는 얘기지만, 공무원 1인당 시민수가 서울이 202명으로 선진 동경의 3.4배, 파리의 2.8배, 뉴욕에는 무려 5.5배이고, 우리보다 못한 경제력을 가진 싱가포르보다는 2.3배, 타이페이의 1.6배입니다.

그러니 지난 3년간 시 공무원 사망자가 무려 191명, 아주 악성의 산업재해현장도 아닌데 말입니다. 숫자가 적으니 초과근로시간 이것이 문제입니다. 사업소나 자치구에서 근무하다



본청으로 올라오면 시간과 강도는 더 세집니다.

지난번 임시회에서 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해서 휴가 기간을 더 늘렸지만, 작년 연말 현재도 개정 전 조례에 보장된 휴가를 제대로 쓰고 있지 못해서 연가일수가 본청은 5.4일, 사업소 평균은 6.4일에 불과합니다.

특하면 야근하는 공무원들, 시정발전을 위해 시의원으로서 마땅히 할 수 있는 자료요구 하나도 늦게까지 근무하는 공무원이 안쓰러워서 대강 넘어간 때도 있습니다. 물론 내무부에서 정원 총원을 규제하는 줄 잘 알고 있습니다. 전산화를 비롯해서 획기적인 대책, 임기 내에는 세울 수 없는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4) 지역문제입니다.

서울시인사규칙 제23조제1항 별지 제4호 서식, 신규임용후보자등록요령 제6호 나목에 보면, 원적지 또는 본적지를 기재토록, 특히 본적을 전직한 사람은 반드시 원적을 기재해야 합니다라고 친절히 나와있고, 국무총리령인 공무원인사기록및 인사사무처리규칙 제4조 개인별 인사기록 별표2 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로 신규채용시에 호적 등·초본을 제출토록 분명히 규정되어 있어, 출신지역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서울시에서는 자꾸 출신지 관리를 안한다 안한다 하는데. 본의원이 79회 임시회 때부터 계속 요구했지만 답변은 똑같고, 부득이해서 출신고와 일부 공무원들에게 귀동냥해서 자료를 냈습니다. 서울시 승진인사 고위직으로 올라갈수록 특정지역은 피라미드식으로 그 비율이 줄어들고, 특권을 누리는 또 다른 지역은 역으로 역피라미드가 되어 왔다는 사실, 지난해 내무국 감사 때 본의원 통계치로 조목조목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의 정기인사, 7명의 부이사관 승진

자 중에서 5명이 특정지역 출신이었고, 그 정기인사이후 오늘까지, 자료를 받아보니, 승진한 부이사관 11명 중 역시 특정지역이 7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서기관 승진자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승진이라는 것이 순위가 있어서 마음대로 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정한 인사를 하겠다는 의지, 지역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의지를 과감하게 간부 공무원들의 출신지 공개를 통해서부터, 또 승진후보자의 출신지 공개를 통해서 할 용의는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5) 여성 차별 인사의 현주소입니다.

서울시인사규칙 제19조제5항제3호 특별임용 예정직급을 보면, 대학졸업자의 경우 6~7급 또는 연구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4년제 대학을 나온 경우인데도 약무직과 보건직렬의 보건직류의 약사와 수의사는 곧바로 7급으로 임용될 수 있고, 7년 경력이면 5급인 간부직에 임용될 수 있으나, 간호직의 경우는 여자이어서인지는 몰라도 대학을 나왔어도 8급으로 임용되고, 5급 간부직이 되기 위해서는 12년의 경력이 필요하게끔 제도적으로 되어 있고, 실제 인사 운영에 있어서도 간호직은 승진이 가장 느린 직렬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특별채용을 하고 있는 소방본부 구조대 간호직의 경우는 간호사 경력 2년 이상인 경우 8급 상당인 소방교로 특채하고 있어서 4년제 간호대학 출신자의 경우 오히려 후퇴한 인사기준으로 평가됩니다. 즉각 시정을 할 수는 없는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6) 임용시험에서 군경력 가산점을 폐지하여 장애인이나 여성이

불이익 받지 않게 하겠고, 구체적으로 채용시엔 남성 군경력

을 호봉에서만 인정하여 임용과정에서 평등을 실현하겠다는 약속만 믿고, 혹은 5점 혹은 3점 때문에 바늘구멍같은 7급과 9급 공채시험에서 분노를 삼켜야 했던 많은 여성들의 적극적인 지지가 있었고, 그 지지 때문에 당당히 시장에 당선되신 趙淳 시장님! 그 약속이 어떻게 지켜지고 있습니까?

(7) 금년부터 여성채용목표제, 그 동안 여성계가 줄기차게 요구하였던 바로 그 할당제가 시행됩니다. 작년말을 기준으로 서울 5만 4,000명 공무원 중에서 여성공무원 비율이 21%를 넘고 있습니다. 여성할당제, 오히려 때늦은 감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간부직에서 여성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너무나 적습니다. 최고위직인 1급 1명, 2급 1명, 3급은 없고 4급 22명, 5급이상인 89명으로 4%가 채 되지를 않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한 최근 3급, 4급 승진인사에서 11명, 27명 중에 여성공무원은 단 한명도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심한 불균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의원 여기서 승진채용목표제, 즉 승진할당제를 주장하지는 않겠습니다. 승진이라는 것이 일정한 자격과 경력이 필요한 것이니까요. 그러나 승진 후보순위에 들어오게 되면 그 여성공무원들을 과감히 우대하는 방법은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성이 많이 진출하면 섬세하고 꼼꼼하고 알뜰한 여성들에 의해 서울시의 살림이 나아지고, 복잡한 서울시 행정 막힌 곳이 확 뚫리게 됩니다. 문제 해결이 조금은 손쉬워집니다. 답변을 바랍니다.

(8) 남녀고용평등법에 명시된 산전산후 휴가 3개월과 육아 휴직 1년이용은 철저히 보장한다고 공약하였는데, 과연 직급별, 직렬별, 본청·자치구·사업소별로 그렇게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산전산후 휴가나 육아 휴직시 아빠들도 일정하게 보장하는 방안을, 여성들의 자랑인 우리 趙淳 시장님이 일하고 있는 우리 서울에서 모범적으로 추진해 볼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라고요. 차제에 선진적인 여성정책으로 시장의 보좌기능에 머물고 있는 여성정책보좌관을 여성정책실로 확대 개편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십시오.

## 6. 다음은

(1) 시민단체 사업비지원 문제입니다.

시의회가 확정하여 준 금년도 예산은 7억 7,700만원, 당초 신청한단체수 171개, 단위 사업수는 487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원단체로 77개와 사업으로 93개가 선정되었는데, 단체수의 45%, 사업수에는 19%로 한 단체가 5개 사업을 신청하면 한 개 사업이 선정되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내용도 보면 대표적인 관변단체, 금년부터 예산지원이 전면 중단되었던 새마을운동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자유총연맹 서울시지부가 최고 액수를 지원받는 건재함을 과시하였고, 시에서는 사업에 대한 지원이라고는 하지만 새마을협의회의 혼잡지역 교통질서 계도활동, 자유총연맹의 기초질서확립 자율방법활동, 도덕성회복운동 등 그 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내용들에서 민선 단체장 시대를 맞아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또 이 사업에서 보면 도덕성 회복 13개, 의식개혁 7개, 예전에 관에서 주도하던 운동에서나 용어들, 시민운동이 성장, 발전하고 있는 자치시대에는 이제 더 이상 좋은 덕목이랄 수 없는 것들뿐입니다.

내용도 도덕강연, 시민윤리 강좌, 선진시민의식 함양, 친절운동 등 70년대 새마을 운동, 80년대 사회정화운동을 연상케

합니다.

물론 경실련과 여성민우회와 같은 소위 재야 시민운동 단체들이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함께 한다는 것, 뜻깊은 일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러나 시민운동의 기본은 시민운동 그 자체에서 찾아야 합니다. 대표적인 시민운동 단체인 경실련조차도 재정운용을 시민운동 본래취지대로인 회원회비 비율이 10% 미만에 불과하고, 좀 낫다는 환경운동연합도 5분의 1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의 시민운동은 지금외양만 너무 부풀려진 상태라고 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역시 우려했던 대로 자칫 이 지원금이 이제 막 성장·발전하려고 하는 시민단체들의 자생력을 억누르는 방향으로 작용할까 걱정입니다.

시민단체의 조직 대부분이 자원봉사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소액회원제가 활성화되어 있는 선진국의 시민단체들-작고 독립적인 시민단체들이 연대해서 대기업과 공공기관에 잘 맞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운동의 현주소에서 벌써부터 관의 지원이나 받는다는 사실이 왠지 꺼림칙합니다.

그리고 당초에 시정운영 3개년계획에는 시민운동단체 활동 지원을위해서 96년 17개, 97년 18개, 98년 20개 등 3개년 동안 45개의 사업을 공모, 선정 및 추진한다고 하였는데, 하루아침에 엄청나게 그4~5배로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골고루 나눠주기 위해서입니까? 여러 군데 조금씩 나누어서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당초에 3년 동안 45개 사업으로 선정했던 근거는 무엇입니까? 확실하게 답변 바랍니다.

(2) 행정사무 착오 보상제 도입 용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봉사행정의 구현! 본격적인 민선

시대,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시민들에게 직접 피부에 와닿게 달라진 서울특별시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실시중인 이 제도, 시청 공무원들이 직무를 수행하다 사무착오로 인해서 시민들이 재차 내방하거나 하는상황을 겪게 될 경우 정신적, 시간적인 손실에 대해서 적절하게 보상해 주도록 하는 이 '행정사무착오보상제'의 도입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부정방지조례 제정 용의는 없습니까?

지난번 시정질문에서 이지문 의원이 내부비리고발자보호조례 제정추진 용의에 대해 물은 적이 있습니다만, 내부고발자보호조례뿐만 아니라 예산부정방지조례 역시 시장님 공약사항이었습시다.

시행정에 관한 부정부패에 대해 누구든지 고발할 권리를 보장하고, 고발을 통해 시 재정 및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한 사람은 신분보호뿐만 아니라 승진 또는 보상 등의 이익을 주는 메리트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4) 조정교부금 가산교부 문제입니다.

지난해 10월 23일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고 10월 30일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한 후 본회의를 통과한 서울특별시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에 보면, 6조 2항을 신설하여 재정력이 취약한 자치구에 대하여 10%까지 조정교부금을 가산 교부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형식적인 조항의 신설이 아니라 금년도에 교부금 제도를 운영하면서 실제로 시행을 할테니 두고 보라고 내무국장은 약속한 바 있습니다.

한편, 금년도 교부금 운용계획을 보면 보통교부금 및 특별교부금기이 배분계획을 빼고, 수시지원용 특별교부금이 250 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각각 어떤 계획인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5) 역시 지난해 시장선거 공약이었던 소비자보호조례 제정용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맞이해서 소비자보호행정이 지방단위에서도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동경도 등 선진도시에서는 이미 이 조례가 보편화되어 있으며, 일본은 기초지방자치단체까지 소비자보호조례를 만들고, 소비자업무 담당부서를 설치해서 지역실정에 맞는 소비자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나라에서도 얼마 전에 대전시가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소비자보호조례를 제정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소비자고발 전담창구나 전담전화, 소비자 상담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 단지 소비자보호단체에서 그냥 떠벌리는 일만은 아닙니다. 시민운동 발전에 따라 소비자운동도 발전하고, 소비자의식도 그에 맞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금년도에 예산이 수반되는 소비자보호추진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소비자보호업무편람 책자 몇 권과 소비자보호센터보상규정 안내문 발간 비용 얼마, 그리고 강사초청 소비자보호교육 단 4번이 전부이고, 다 합쳐봐야 겨우 233만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을 묻습니다.

7.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1) 서울에는 현재 등록장애인이 5만 7,000명, 미등록자까지 포함하면 22만 5,000, 서울 인구의 2.2%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82%가 넘는 숫자가 후천성 장애인이라는 점입니다.

趙淳 시장께서는 작년 선거 때 장애인을 위한 교통수단 확대를 위해 버스 중 일부는 장애인을 태울 수 있는 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자가용의 세금을 감면해 주고, 주차료도 할인해 준다지만 여러 가지로 약자인 장애인 입장에서 구입 자체가 부담이고, 때면 동행해야하는 보호자가 필요하지만, 장애인을 위한 전용버스타면 정말 바라던 장애인의 발입니다.

그런데 시정운영 3개년계획을 보면 그냥 막연하게 장애인 편의시설확충정비라고만 되어 있고, 이 문제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는데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2)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우리 서울시도 의무채용비율 2%를 채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88명 정도가 과부족으로 1.6%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대책과 계획을 답해 주시고, 시투자기관의 고용 현황까지 아울러 밝혀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고령자고용촉진법 시행으로 우선 채용이 의무화된 노인인력기준고용률 3%가 적용되는 서울시의 각 직렬별 현황과 연차별 채용계획을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3) 지하철내 편의시설 문제입니다.

지하철 1, 2, 3, 4호선 115개역 중에서 공중전화기 설치현황을 보면 전체 1,266대로 역당 평균은 11대, 이중 13%쯤 되는 165대가 장애인 및 소아용이고, 59개 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용 공중전화 미설치역은 56개역으로 절반이고. 특히 환승역인 시청, 종로3가, 을지로3가, 교대, 사당역 등 5개역은 승강장이고 대합실이고 한대도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급한 불 일이 생겨도 누군가의 도움없이 전화조차 마음놓고 할 수 없는 서글픔을 또 한번 느껴야 합니다.



무선호출기 보급이 일반화된 요즘, 대합실에서 표를 끊고 승강장에 들어간 이용객들 호출을 받더라도 공중전화기가 없어서 승차권을 사용 해 보지도 못하고 다시 나오거나, 아니면 목적지 역까지 그냥 가야 됩니다. 공중전화기 전체 대수에서 대합실이 84%, 승강장은 16%에 불과한 실정이고, 성수, 잠실, 3호선, 종로3가, 대치, 남태령 등 5개 역에는 아예 한 대도 없습니다. 이러한 형편이니 가뜩이나 콩나물 지하철, 다른 부분에서라도 무언가 편리한 서비스가 제공되어도 될까 말까 한데, 무엇 하나 만족스러운 게 없으니 이용시민들 불편호소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한편, 도시철도공사가 운영하는 2기 5호선 30개역 역시 전화기가 329대가 설치되어 있으니 평균 11대는 마찬가지로, 대합실에 56.5%, 승강장에 43.5%로 1기 지하철의 불편을 많이 개선한 흔적은 보이거나 장애자용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전히 형식적이라는 점을 지을 수 없습니다. 1기보다 다소 나은 22%정도 있지만 이 정도로는 턱도 없습니다.

하루 지하철 이용 장애인이 7,000명이 넘는다니 말입니다. 공중전화기, 한국통신에서도 기본적인 수요만 있고 경제성이 있으면 바로바로 설치해 주는데 지하철만큼 이용객이 많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돈이 별도로 드는 일도 아니니 바로 검토해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기 지하철 5호선 30개역, 역별로 자료 좀 상세히 내주십시오.

(4) 1기 지하철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입니다.

94년부터 지하철을 이용하는 1일 장애인 숫자가 평균 7,000명을 넘고 있습니다.

추정장애인의 3%가 넘는 엄청난 수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편의시설 확충은 미미한 실정입니다.

1기 지하철 건설 당시에는 토목 및 건축구조물을 설계하는데 있어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으로 연차적으로 추가시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대상 지하철역 115개 중 현재 휠체어리프트와 화장실 위생기구의 경우 각각 24개와 29개소씩 설치되어 있으나, 조시장님 임기내에 각각 15개소와 24개소를 설치하여 34%와 46%밖에 못 이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각장애인용 유도블록과 방향점자 표기는 현재 거의 없다시피 하지만 3년간에 걸쳐 79억을 들여 완료하게끔 계획되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도 물론 필요하지만 더 많은 수의 지체장애인의 불편해소도 시급합니다. 무려 7,000명입니다.

나머지 시설하는데 270억원만 있으면 됩니다. 의지가 있으면 됩니다. 답변 바랍니다.

8. 다음,

(1) 장묘사업과 관련해서 시립묘지 추진용의에 대해 묻겠습니다.

보사부 자료를 참고하면, 95년 기준으로 전 국토중에 묘지로 잠식된 면적이 1%, 993.9, 약 1천km<sup>2</sup>로 서울의 1.6배 어마어마한 넓이입니다. 다행히 해마다 화장이 4.8%씩 증가추세에 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전국의 자치단체 화장장, 납골당과 비교해 본 우리 서울시의 벽제화장장과 납골당은 아주 위생적이고 우수하며, 화장장려 정책에 맞추어 요금도 비교적 저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늘어만 가는 묘지, 국토잠식을 조금이라도 방지하기 위해서

화장제도를 널리 보급하는 일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마침 최근 서울시가 개발한 한국형 납골묘는 봉분식으로 조성해서 매장 선호욕구를 잘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매우 앞서가는 사업으로 평가됩니다. 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직자들이 먼저 이 한국형 납골묘를 시범적으로 이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립묘지와 비교되는 서울시립묘지-시정발전에 공을 세운공무원과 시의원 그리고 모범 시민 중에서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이 납골묘로 된 시립묘지에 묻히게 하면, 이 화장제도와 납골제도가 널리 보급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답변을 바랍니다.

(2) 식품접객업소 심야영업제한 완화용의에 대해 묻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식품위생법상 접객업소는 일반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그리고 휴게음식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서울에는 일반음식점이 9만여개, 단란주점 4,000 그리고 유흥주점이 약 1,500개 가량 됩니다.

최근 4개월간 심야영업 단속실적을 보면 위반업소의 12%만이 단순한 시간외 영업 위반이고, 무허가가 16%, 퇴폐·변태 영업을 7%를 넘고 있습니다. 즉, 아예 무허가로 무시하거나 퇴폐·변태 행위로 미성년자출입, 음란 퇴폐공연, 칸막이 객실 설치, 특수조명, 음란비디오물 상영 등 수법도 다양한 이 변태영업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단속만으로는 근절이 되지 않습니다. 식품위생법 제 30조규정 영업의 제한, 보건복지부장관이 공익상 또는 선량한 풍속을 유지키 위해 영업시간 등 필요한 제한을 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서 규제하고 있는 이 문제, 이제 민선시대에

맞는 새로운 정책-인센티브가 필요합니다.

통제만 한다고 되지를 않습니다. 더욱 교묘하게 수법도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차라리 등급같은 것을 정하거나 해서 건전 업소는 풀어주고 악덕업소는 더 심하게 다뤄야 된다고 봅니다.

모범음식점과 재활용시범업소, 친절운동에 앞장선 음식점, 이런 업소들이 퇴폐영업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런 업소들에게는 영업시간 연장이라는 당근을 주어서 변태영업을 하지 않아도 수익을 올릴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미성년자에게 예절바른 식사문화의 모범을 교육할 수 있는 음식점, 갓 성인이 된 청년들에게 바른 음주태도를 가르치는 건전한 술집, 이런 업소가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건전한 음식문화도 정착되게 됩니다. 풍속도 자연 선량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시장님 견해를 묻습니다.

(3) 서울시 보건치료체계의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의 보건사업 현실은 달라진 시민생활환경에 20년 이상 뒤떨어져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소득수준이나 질병양상, 생활정도가 엄청나게 변화되었는데도 여전히 보건사업방식은 70년대 수준입니다. 경제는 이제 세계적으로 손가락을 꼽는 우리가 최근 보건환경연구원이 발표한 보건의료분야 세계 57위는 정말 부끄러운 수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시민들은 이제는 더 이상 치료에만 머물지 않고 만성 퇴행성 질환에 대한 예방 및 조기발견대책, 건강유지와 증진을 위한 건강상담, 정확하게 건강지식을 구할 수 있는 풍부하고 다양한 보건교육자료, 핵가족세대의 노인보건대책, 맞벌이부부

가 필요로 하는 아동보건, 스포츠와 운동시설, 신체 및 정신 장애자를 위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들은 의료보험, 산재보험과 종합검진과 함께 연계되어 평생 건강관리 프로그램'으로 재편성되어야 합니다.

이런 서비스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방문보건사업'의 대폭적인 강화가 필요합니다. 91년 3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방문간호사업'은 지역별 전담간호사를 지정하여 아직은 미미하지만, 지금보다 훨씬 많은 수의 보건간호사를 채용해서 뇌졸중, 노인성 치매, 사고 후유증 등에 대한 가정방문 간호와 고혈압, 당뇨병, 정신분열증, 임신 및 분만 등에 투약·검진·간호와 말기환자에 대한 호스피스 사업으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최근 보건복지부의 왕진제도 재도입검토, 작년부터 시행중인 소방본부 119의 순회방문 간호사 도입 등과 연계해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때 사회복지 서비스와의 연결이 필요합니다. 말한 대로 종합서비스를 민간이건 공공이건 병·의원이나 보건소에서 모두 제공하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시에 통합·조정할 수 있는 보건행정 및 공공 보건의료기관이 각종 보건활동에서의 공공과 민간의 협조체제가 구성되어야 합니다. 한·양방 협진이 안되고 의약분업이 안 되어 극한 대결이 벌어지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선 요원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이럴 때 공공이 나서서 한·양방 협진병원과 과학적인 약무, 그리고 보건 및 응급의료, 건강증진교실 등 토털 보건의료체계를 갖춘 센터를 시범적으로 설치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서울시 자체가 보건의료 문제를 분석하고, 그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은 부족합니다. 보건위

생과와 의약과단 2개의 과에서 실무행정을 보기에다 여력은 물론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건복지부에 마냥 내맡길 수만은 없는 것 아닙니까? 시민들의 보건의료에 대한 수요와 기대는 갈수록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습니다.

외국의 예를 보게 되면 치밀한 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이웃 동경, 보건과 환경을 모두 포괄하는 Healthy City Movement를 벌이고 있는 구미 각국도 다 지역보건의료 체계 구축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세계보건기구 즉, WHO도 지역보건을 적극 권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시정개발연구원 또는 시립대학교에 보건정책 개발을 위한부서 내지는 연구소를 별도로 두던가, 보건환경연구원에 보건정책 개발부서를 두어서 보건의료분야의 서울시 싱크탱크로 만들어 나가는 것, 절실히 필요합니다.

교육부와의 협의에서 잘 안 되었던 시립의대 설립 문제도 이제는 발상을 바꾸어서 서울대학교 병원에 몇년간 위탁 운영해서 잘된 보라매병원의 경험과 앞서 지적인 시범적인 한·양방협진병원, 토털 보건의료센터로 그 목적을 분명히 한다면 교육부에서도 반대할 명분이 없을 것입니다.

이때 설립하는 시립 한·양방협진병원의 위치는 서울 북부지역이 좋겠습니다.

3차 의료기관이 전국 31곳, 그중에 서울시민 50만명당 하나씩, 22군데나 편중되어 있으며, 과당경쟁으로 1, 2차 기관 환자까지 흡수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보건의료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추세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보건의료기관이 풍부해도 지역별 분포에 있어서는 불균형상태입니다.

시정운영 3개년계획에 의거, 일반종합병원으로 기능을 확대

해갈 시립병원의 분포를 봐도 그렇습니다. 서울이 비록 하나의 생활권이라고 하지만 생활권역에 따라 1차 및 2차 진료권을 구분하고, 권역별로보건의료 지원이 골고루 분포되도록 유도한다면 주민들의 편리를 도모할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간에 과도한 경쟁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 북부지역인 강북과 도봉 인구가 80만, 아까 평균치로 본 1개의 3차 의료기관 평균인구수 50만을 훨씬 초과할 뿐더러, 고갈된 서울의 택지자원 때문에 새로운 주택단지와 대대적인 재개발로 인구가 계속 늘어날 전망이며, 번동에 밀집한 장애인 및 생활보호대상자 임대주택, 속칭 삼양동 달동네의 영세민들, 공공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의료지원 대상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으며, 서울시 통계연보를 분석해 본바, 모자 및 아동보건의 대상인 아동인구 비율이 노원, 양천구와 함께 가장 높은 지역으로 발견됩니다. 답변을 바랍니다.

(4) 다음은 응급의료체계의 문제입니다.

야간이나 주말, 연휴의 진료 체계를 위해서 소방본부와 보건사회국이 서로 협조하여 '응급의료조직'을 설치하고, 그 기능과 역할은 응급 구조 및 의료, 양자가 지금 다 수행하고 있는 가정방문보건사업-그 중에서도 절실하게 노인과 장애인, 그리고 저소득층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이 조직에는 보건소나 앞으로 설치될 보건지소, 지하철역 안 등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간이진료센터를 설치하고, 그 지역내에 개업하고 있는 의사들이 교대하되, 서울시가 간호사 등 보조인력을 지원해 주는 식으로 응급센터를 운영하면 될 것입니다.

한편, 올림픽도로 같은 교통사고가 빈발하는 취약지역 같은

곳은 고속도로에 견인차가 상시 운행하는 것처럼 구급차가 순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 9. 교통분야입니다.

### (1) 개인택시 과중처벌 문제입니다.

현행 자동차운수사업의 골격은 개인택시와 법인택시를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받는 제도로 되어있기 때문에, 위반시에 법인택시는 사업자처벌과 행위자인 운전자처벌로써 양자가 분담처벌을 받음으로 인해 부담이 가벼우나, 오히려 영세한 개인택시의 경우에는 사업자처벌과 행위자인 운전자처벌이 1인에게 동시에 무겁게 처벌됨으로써 한번 잘못으로 이중처벌 되는 모순과 생계에 지장을 초래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마땅히 고급 교통수단이 되어야 할 택시가 그렇지 못하고 있는 서울의 교통여건을 감안한다면 개인택시에 가해지고 있는 이중처벌의 문제-지나치게 가혹하다는 것이 본의원의 판단입니다.

어쩔 수 없이 사실상 대중교통 수단이 되고 있는 서울의 개인택시, 그렇기 때문에 한가지 위반에 대해서는 한가지 처벌로 끝날 수 있도록 관계법규의 검토, 나아가 중앙부처에 개정건의 내지는 촉구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 (2) 차고지 확보 문제입니다.

개인택시는 본인이 직접 운전하는 영세사업자입니다. 운수사업법상 차고지를 13㎡이상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영세한 이들 기사들 형편상 대다수가 본인 소유의 차고지를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바, 95년 10월말 현재 확보대상 30,583대 중 51.3%에 불과한 15,668명만이 자가주차장을 확보하고 있고 나머지는 노외주차장, 사유지임대, 건축물 부설주차장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돈 몇푼씩 주고 자기집에서 멀리 떨어진 주차장에 형식적으로 차고지증명만 발급받아 제출하고, 실제로는 주택가 이면도로에 불법 주차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게 현실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보다 근본적으로는 서울시내 전체적으로 주차장이 절대 부족한 데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봅니다. 작년 말 현재 등록된 자동차 204만 3,000대, 주차장은 112만 3,000구획, 부족분이 92만구획, 97년 목표치가 주간 주차 수요의 80%를 목표로 한다니 이런목표가 다 있습니까?

그렇다면 서울시내 3만여 대상 개인택시의 형식적이거나 차고지 확보율 92%는 아주 엄청난 성적이게요.

주차장을 대폭 확보하거나 주차료 강화, 단속강화 등을 통해 보유자체를 억제하든가 해서 목표치 100%를 만들어야지요, 주차요금을 도심 혼잡지역은 대폭인상시키고, 지하철 환승장이나 주요버스시발 점 부근은 대폭 인하해서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활성화시키는 방법도 그 하나의 예가 될 수 있겠지요.

이렇듯, 차고지 확보문제는 개인택시만의 문제도 아니요 주차전쟁이니 주차문제로 살인까지 비화되는 등 이제 모든 자동차의 문제요, 교통분야 서울시정의 가장 중요한 개인택시 사업자에게만 차고지를 강요하는 현실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개인택시든 누구든 모두가 다 차고지를 확보하여야 교통소통도 원활해지고, 주택가 대형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시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주택가 노상주차장 확대 등 주차장늘리기 정책과 실제로 개인택시사업자가 거주지에서 최근거리에 있는 주차장다운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도록 차고지 인정범위 확

대 등의 필요한 조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92년 11월 건설교통부의 개인택시 차고지에 관한 지침에서, 이면도로 야간 주차구획선을 관할 동장의 확인에 의하여 차고지로 인정토록 하였으나, 94년 9월부터 11월까지 있는 감사원 감사결과 공공용지의 배타적 무상사용이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된다고 지적되어, 95년 2월 동 지침이 철회되게 되었습니다만, 이제 서울시내 공·사설 모든 주차장, 노상·노외 주차장조차 다 주차요금을 받고 엄격하게 관리하며, 특히 각 구청별로 조례 제정 중에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시행되게 되면 공공용지의 무상사용은 끝이 나게 되므로 다시 환원해서 차고지를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차고지 미확보 및 신고 불이행시 과징금 100만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나 과징금 처분에 앞서서, 행정의 목적이 뭐니까? 제도나 실제개선이 이루어지는 게 더 좋은 것 아닙니까? 차고지 유형을 주거지역내 공터, 차고로 사용가능한 장소, 노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관공서 주차장, 공공시설, 종교시설의 관리 또는 소유주의 사용승락에 따라 차고지로 인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차제에 서울시내 차고지 개발가능지역-국·공유지, 하천부지, 공터 등을 철저히 조사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차고지로 개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도 요망하는 바입니다.

참고로, 작년부터 금년 4월까지 재무국자료를 보니까, 사유지를 매각한 게 59건에 한 1만 4,000평쯤 됩니다. 다 가능한 건 아니지만 팔아먹지 말고 주차장 좀 만들면 안 됩니까? 자가용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겠다는 서울시 교통대책, 동의는 하지만 보유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차장을 늘려야지요.

최소한 지난 14개월 동안 건축법상 최소건축면적에 미달되어서 어쩔 수 없이 매각한 땅 22건 180여평, 시유지가 이 정도니까 민간부문에는 훨씬 많을 것 아닙니까? 사람이 사는 집은 못 지어도 자동차집은 지을 것 아닙니까?

제도와 지원만 뒷받침된다면 말입니다.

답변을 바랍니다.

(3) 버스전용차선 택시진입 허용문제입니다.

지난 3월 20일 시정질문에서 버스전용차선 시행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오전 10시 이후 낮시간에는 일반차선 이용자들은 움썅달썅하지 못하는 교통체증에 시달리면서도, 편도 4차선의 경우 버스전용차선은 텅텅 비어 있어, 탄력적인 버스전용차선운영"을 요구한 바 있지요.

그런데 이에 대한 교통관리실장의 답변을 보면, "일부 전일 전용차선구간 중 오전 10시 이후 한적한 경우는 오전 러시아워가 끝나는 시간대에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이니 버스전용차로가 바람직한 수준으로 정착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현재도 많은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버스전용차로구간에 타차량의 통행을 당장 허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나, 금후 이 제도가 상당 수준까지 정착될 경우, 일정 구간을 선정하여 타차량의 통행 허용을 시범 운영하여서 그 지역에서 나오는 문제점을 보완한 다음에 탄력적으로 타 차량의 진입을 허용하는 방안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즉, 당장은 아니더라도 긍정적인 검토에 비중을 둔 답변이라고 해석되어집니다. 그러나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지난 4월 19일 제84회 임시회 시정질문 때, 택시의 출퇴근시간 외 버

스전용차선 진입허용문제에 대해서 개인택시 기사의 생존권 보장과 원활한 대시민 공익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 문제를 적극 검토할 용의가 없는지 물은 데 대하여 교통관리실장은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우리 시 정책상 택시는 점차 고급교통수단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택시의 버스전용차선 통행 허용에 대해서는, 버스전용차로는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버스의 신속성, 정시성을 높이기 위하여 우리 시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버스전용차로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위반차량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현재 많은 공무원이 현장에서 위반차량에 대한 지도단속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실정인바, 현행 도로교통법령 규정 및 버스전용차로제가 정착되지 않은 현 실정에서 택시의 전면통행을 허용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도로교통법령이 개정되고 버스전용차로제가 정착될 경우, 일정구간을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통행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즉, 말해서 한달 전에는 버스전용차선제가 정착되게 되면 시범 운영을 검토한다더니, 한달이 지난 뒤에는 도로교통법령의 개정을 전제조건으로 또 하나 들면서 좀더 어려운 방향으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강한 의혹을 느끼는 것은 15대 총선 전이었던 3월제83회 임시회 때는 선거를 앞두고 주요 현안문제로 등장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해결방향이 있는 것처럼 답변하고, 선거가 끝난 4월제84회 임시회 때는 당초의 구상대로 환원해서 답변하지 않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지난해 6월 13일 趙淳 당시 시장후보께서는 정책 및 공약 발표회에서, "택시도 현재까지는 중요한 대중교통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버스전용차선의 문제점으로 노선버스 및 지정버

스만이 이용되고 있어 이를 사용하지 못하는 택시 또는 17인승 이상 승합차 등 타차량 운행자의 불만이 크니, 출퇴근 시간 외에는 택시도 버스전용차선에 진입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 문제가 제4대 의회 시정질문에서 처음 논의된 작년 10월20일 제81회 임시회 당시 교통국장은, "버스전용차선에 택시주행 허용은 전일제 운행구간에 대해서 출·퇴근 시간인 낮시간대에 택시도 허용하는 문제를 도로교통법 개정을 건의해 놓고, 촉구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지난해 12월 공보담당관실에서 실시한 시민의 여론조사 결과에도 보면, 조사대상 1,000명 시민중에서 65.5%가 택시의 버스전용차선 진입허용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견을 보인 사실은, 오늘의 교통현실에서 택시가 시민의 중요한 발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택시는 현재 서울에서 하루이용시민 290만명을 실어 나르는 사실상의 대중교통수단으로 이용되고 있고, 이중 2만 5,000대의 개인택시가 그 반을 넘는 148만명의 수송을 맡고 있으니 그에 합당한 대우가 따라야겠지요.

그런데 지난 1월 발표한 시정운영 3개년계획, 민선시장 7대 중점과제를 봐도, 분야별 계획-교통이 편리한 서울편을 눈 씻고 찾아봐도 허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작년에는 참모들이 잘 모르고 발표했지만 실제 서울시정에 임해보니 어렵겠다든가, 무슨 얘기가 있어야 할텐데, 아무 얘기가 없으니 택시들마다 항의성 표시로 스티커를 부착한다, 각 지역구 의원들마다 쫓아다니면서 저 야단들입니다. 생계가 달려있는 저 기사들 입장에서선 당연한 얘가지요. 빠른 시일내에 어떤 대책을 마

련해서-시범 허용을 하다가 점차 확대를 하든지, 아니면 일체 불허하고 택시를 고급교통수단으로 유도해 나갈 대책-서비스 좋은 모범택시로 빨리 전면 교체를 하든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확고한 답변을 바랍니다.

(4) 순환합승택시 도입 용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최근 교통방송이 조사하여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일명 지역구택시 또는 다람쥐택시라고 부르는 순환합승택시가 서울시내 약 60여곳, 주로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순환망을 형성하고 사실상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들 지역구택시들은 전철역과 교통수단이 취약한 주거지역을 연결하고, 주로 출퇴근 용도-약 70%쯤이 출퇴근 시간에 집중됩니다-로 이용되며, 요금은 1인당 1,000원씩 4명을 태우고, 지역구 밖에서 날아온 다른 택시들에 대해서는 배타적인 영업권을 행사한다고도 합니다.

이 택시들이 왜 불법이면서도 성업중인가 하면, 출퇴근시간 특히 출근시간에 1~2분을 다투는 직장인들은 배차간격도 길고, 콩나물시루에 딱딱 채우다보면, 그 시간마저 제대로 지킬 수 없는 마을버스나 지역순환버스를 기다릴 틈이 없으니 자연 이 택시들로 몰리게되는 것이고, 또 환승주차장이 없거나 있어도 요금이 다람쥐택시 출근비용 한달치 25일 곱하기 1,000원은 2만 5,000원보다 높을 경우에도 역시 이 택시들을 이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일부러 지하철 4호선 쌍문전철역 앞 출근길에 서서 마을버스와 순환택시를 세어본 결과도, 마을버스는 평균 6~7분에 1대, 30명이 내리는데, 합승택시는 그 시간에 30대, 1백명이 훨씬 넘는 숫자가 내리더라구요. 이제 대책입니다. 계속 2기, 3기 지하철이 완공, 개통되면서 지하철역을 잇는 지역순환 교통체제가 미처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언제까지 종합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고, 차라리 순환택시를 제도화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마침 지난해 조시장님 선거공약집에 보니, 택시의 대중교통 보완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순환합승택시 제도를 도입하여 지하철과의 연계를 용이하게 한다고 한 내용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10. 하수처리 문제입니다.

(1) 현재 서울시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는 하루 492만 여톤, 이에반해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하수처리장 용량은 95년말 현재 371만여톤, 생활하수처리율이 75.4%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96년 금년도 사업이 완료되면, 용량은 508만 여톤, 처리율은 93.4%로 높아지게 된다는 전망입니다.

95년말 현재 하수도 연장을 보면, 관거가 8,140km, 암거 1,117km, 개거 116km, U형측구 207km, 연장 합계가 9,580km에 달해 하수도보급률이 99.1%, 금년도 사업을 완료하게 되면 99.7%에 이를 전망합니다.

그러나 최근 환경부가 작성한 내부보고서 '하수처리사업 당면과제와 대책'이 언론에 보도되어, 하수처리율 전국 평균 28%, 오염물질 제거효율 63%, 하수관 1km당 평균 40군데 정도 파손되어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공개된 바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하수처리장으로 연결된 대부분의 하수관망이 파손되어 있고, 하수관망으로 차집된 하수 중에 36%가 파손된 틈새로 빠져나가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있으며, 대신 하수 발생량의 43%에 달하는 깨끗한 지하수가 유입되어 오염농도를 떨어뜨리고 정상 가동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난지도 처리장만 하더라도 10m당 2~3군데씩 하수관이 파손된 상태이며, 150ppm의 하수를 처리토록 설계되어 있으나,

실제는 지하수에 의해 희석된 28ppm의 농도로 유입되어 있어, 방류수 처리기준 30ppm을 밑도는 어처구니 없는 재정 손실-95년만 해도 103억 여원에 달하는 막대한 운영비를 쓰고도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니 뭐가 한참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된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대책을 어떻게 강구해야 하는가? 趙淳 시장의 시정운영 3개년계획에 일부 나와 있습니다만, 하수를 발생지 인근에서 처리하는 하수처리장의 소규모화를 연구검토를 거쳐, 99년부터 부족수계에서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과, 불량 하수관거를 2006년까지 완전 정비하여 지하수 유입을 방지하고하수처리효율을 제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을 보면, 서울시 하수행정의 기본 인식이 환경부 보고서와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선, 대형 하수처리장 정책을 지양해야 하는 점, 99년까지 기다릴 수 없는 시급한 문제입니다. 선진 외국 미국이 평균 6,500톤, 일본이 평균 3만 1,900톤, 그런데 우리 서울은 4개 처리장 평균처리용량 93만톤, 용량이 크다고 선진시설이 아닌 점은 잘 알고 계시겠지요? 다음으로, 하수관이라는 게 땅속에 묻혀 눈에 띄지 않으므로 관리가 부실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현행 법규상 지방자치단체는 하수관 시공후 사업구간의 50%를 반드시 검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환경부가 집계한 검사 실적은 지난해 전국 평균 15%에 그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서울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검사를 안하고 있는 데 대한 조치나 대책은 마련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 정무부시장이 재임중, 수질관련 투자 우선순위를 처리장확충에서 하수관망 정비쪽으로 돌리려 했으나, 관계 공무원들의 실적주의-눈에 보이는 거대 처리장에만 매달리고 땅속에 묻혀서 누가 알아주지 않는 하수관망



은 관심은 안 가진다라고 회고하고 있습니다만, 현동과 대구의 대형 가스폭발사고에서 보았듯이 눈에 보이지 않는 땅속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더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인 것입니다. 시장님께서서는 차제에 하수관, 도시가스 공동구 등 실제로 일하는 현장이 음지인 곳의 공무원에 대한 어떤 우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전 서울 시민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2) 맑은 물 문제입니다. 시정운영 3개년계획에 보면, 서울시는 3년간의 환경예산 4조 9,923억원 중 34%쯤 되는 1조 7,000억 가량을 물관리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 거의 대부분인 94%가 하수처리장의 확장, 건설, 하수시설, 배수시설 설치 등에 집중투자 할 계획입니다. 반면에, 상수원수 즉 하천수질의 개선과 하천의 자정능력을 회복하는 등과 같은 수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고려내지는 의지는 대단히 미약하다라고 본의원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상수원 하수에 투자해서 시설을 하는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만, 상수원 자체가 보전되고 복원되어야만 맑은 물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것이 아닙니까? 따라서 이 문제는 서울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경기도 팔당상수원 주변지역 수질개선사업에 6,900억원쯤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지방비가 이중 60%로 대부분이 특별대책지역 7개 시군이 부담한다고 합니다. 이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기초시설 운영비 등 현재 부담하고 있는 447억원 이외에 건설소요 사업비도 수혜지역인 3개 시도가 원수사용량 비율에 따라 분담해야 합니다. 개발제한으로 묶이고, 상수원으로 중복규제되어 권리를 심히 침해당하고 있는 이 지역을 위해서 우리는 더 큰 밑그림을 그려야 하겠습니다. 상수원 관리를 위한 광역협력체제

로서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처럼 환경행정구역으로서의 특별지방자치단체 즉, 한강종합관리조합을 설립하여 상수원을 보호, 유지 관리하고 또 보상 등에 들어가는 비용, 물사용량에 따라 비율대로 투자하고 운영비 내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게 아니고 조시장님 공약이었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11. 도시계획 관련입니다.

(1)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위촉 강남 편중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난 3대 의회에서 여러번 지적이 되었습시다만, 도시계획위원회위원 위촉을 아직도 강남사람 위주로 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참고로, 지난해 감사실 감사에서 본의원은 민원심의위원회 회원 위촉에 있어서도 이제 재개발 수요가 많은 강북지역은 8명인데 반해, 강남은 20명이나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일이 있습니다. 작년말 현재 강남지역이 서울 면적의 50.8%, 인구는 49.4%를 차지하고 있어서 강남북이 거의 반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까지 오게 된 강남, 누가 낸 세금으로 이렇게 발전하였습니까? 바로 강북지역주민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서울시 정책은 강남 편중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지방시대를 맞아 서울의 균형적인 발전과 각 자치구가 독립된 자족도시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도시계획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을 다루고 있는 이 위원회 그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의회부터 여러 차례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현재 도시계획위원 22명 중 경기도 1명을 제외하고, 특정지구를 호칭해서 안 되었습시다만, 강남구 거주자가 6명, 서초구 거

주차가 4명, 합이 10명이니, 강남 서초는 서울의 PK고 TK입니까?

한강 이남이 16명, 저기 4대문 북쪽으로는 단 1명뿐입니다.

이러니 무슨 균형적인 서울발전을 얘기할 수 있으며, 한강 이북사람 누가 믿으려 들겠습니까?

지난 3대 의회 때부터 이 문제가 지적된 것으로 아는데, 여태까지 시정하지 않은 것은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지난 10년간 위원 명단 전부를 주소 명기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2) 서울의 허파인 도시공원은 지리적으로 시 외곽에 70%쯤이 편중되게 분포하고 있어서, 주민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면적이나 개수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미개발지역인 외곽지역 주민들의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와 묶어서 공원지역 주민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규모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억지로 돈이 많이 드는 도시공원을 확대하는 일에만 너무 매달리지 말고, 아파트나 빌딩 옥사에 나무를 심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은 공공이 짓는 아파트와 공공기관의 옥사에서부터 시작하면 될 것입니다.

답변 바랍니다.

(3) 현재 서울시내 고도지구는 북한산 주변을 비롯하여 8개 지구 88㎡가 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산 주변 지역은 6개 자치구에 걸쳐 100만평이 넘는 면적으로, 68년도 김신조 사건 이후 국방상 이유와 겹쳐 장시간 동안 희생을 강요당해온 지역이며, 현재도 국립공원과 그린벨트로 이중 삼중으로 묶여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 현장을 나가보면, 서울과 경기 북부를 잇는 주 간선도로인 도봉로 바로 옆에 도고도지구입니다. 도

봉산 만장봉, 북한산 백운대, 차 타고 지나가는 경기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까?

그린벨트와 국립공원은 정부에서 규제하기 때문에 우선 서울에서부터 가능한 고도지구부터 재조정해야 합니다. 무턱대고 해제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연구결과 더 확대하고, 고층 아파트를 규제할 필요가 제기된다면 그것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정말 경관을 보호하고, 미관이 필요하나 현재는 일부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답변을 바랍니다.

12. 다음은

(1) 자재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서울시에는 각종 공사를 벌이고 있는 산하기관, 사업소, 투자기관이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공사장에서 소요되는 자재 및 사용 후 자재에 대한 관리가 전체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 각 기관 내에서조차 허술하게 이루어져 인력낭비와 예산낭비가 적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지하철건설본부 공사장에서 나오는 사용 후 자재 중 재활용 내지 폐강재로 분류하는 것에서부터 폐강재를 모으고, 운반하고, 매각하는 과정이 일목요연하게 진행되지 못해, 추가로 잡수입을 올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 감사실의 지적과 조치를 받은 일이 있고, 종합건설본부의 폐강재 관리 역시도 마찬가지로 문제점이 노출된바 있으며, 금년초에 실시된 상수도자재 관리실태 점검결과 보고서에 따르면이라도 사업소의 자재관리를 종합하고, 물품구매시 통제하는 부서 없어 관리인력 및 구매 중복을 초래하고, 예산과목별, 과별, 공사건별로 자재를 별도 구매하는 관계로 중복구매, 창고수요 증대, 관리인력 추가소요 등 예산을 낭비하고 있고, 폐자재가

즉시 불용품 처리되지 아니하는 관계로 보관 비용을 낭비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적출된 바 있습니다.

개선대책으로는 자재관리를 일원화, 전산화해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관리를 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앞서 지적한대로 이 문제는 상수도본부만의 문제가 아니므로, 잘 연구해서 서울시 전체 차원에서 종합적인자재 관리를 할 수 있는지 검토해 봐야 될 것이고, 아니면 기관별로도로국이다, 환경관리실, 교통관리실이다, 건설안전관리본부다 이런 식으로 기관마다 종합 자재관리시스템을 두든지 해서 개선해 나가는 방법을 연구해보는 것이 좋겠고, 전산화에 있어서도 중요하고 고가이거나 대형 자재의 경우, 사용 후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구매 단계에서부터 카드화, D-BASE화해서 경로관리가 과학적으로 이루어지다면 인력절감, 예산절감 등 여러 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답변을 바라고요.

현재 시 본청 및 사업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공사에서의 각종 자재의 규모, 구매에서 사용, 사용후 처리에 이르는 관리를 어떻게하고 있는지 기관별로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 다음은 옥외광고물관리법시행령 개정건의 문제입니다.

작년말 현재 서울시내 옥외광고물 현황은 53만 6,292개, 이 중 46.3%가 불법광고물이라는 게 시정개발연구원의 분석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 불법광고물 중에서도 표시방법은 적법하지만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광고물이 65.7%나 되는 16만 2,900여개에 이르러 많은 광고주들이 신고, 허가절차를 거치는 것을 꺼리거나 모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행 옥외광고물 법령이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시·도

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있을 뿐 시, 도 조례 중심으로 되어 있지 않은 시행령 자체의 문제라는 게 전문가들 공통의 지적입니다.

즉, 시행령 제7조 허가 및 신고절차 제1항제1호 및 제2호 규정 허가 또는 신고시 시,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서류 및 도서를 보면, 광고물을 표시하고자하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위치도면 및 광고물 등의 형상, 규격, 재료, 구조, 의장 등에 관한 시방서 및 설계서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규정이 이처럼 광고주보다는 광고업자 위주로 되어 있다 보니 많은 광고주들은 선의의 피해를 입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대부분의 간판이 무허가로 사전 설치되어 허가청의 정비안내로 허가를 득하려 할 경우, 기존 광고업자는 폐업 또는 전업이 되어 시방서, 설계도, 원색 도안을 첨부하려면 새로운 광고업자를 찾아서 재설계에 따른 설계비를 다시 지불해야 하는 등 2중의 피해를 입고 있어 개선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 방법으로 광고물 표시허가시 일률적으로 징구하고 있는 원색 도안, 시방서, 설계도서를 돌출간판과 지주이용 간판의 경우, 연면적 10m<sup>2</sup> 이상과 가로형 간판의 경우, 연면적 5m<sup>2</sup> 이상의 대형광고물을 제외하고는 폐지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또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 규정을 보면, 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 인가, 신고 등의 대상이 되는 영업을 업소가 광고물 등의 표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영업허가증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은 광고물 표시 허가신청시 이미 인·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영업을 개시된 시점으로 대개의 경우, 인·허가와 동시에 간판을 부착함으로써 사전설치로 인한 과태료를 허가관청에

서부과하게 되어 광고주에 대하여 금전적인 피해와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게 되어 개선책이 요망됩니다. 즉, 광고물표시 허가시 제출하게 되어 있는 각종 인·허가 및 신고증 사본첨부제를 폐지토록 국무회의 건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 전반을 잘 검토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광고물 관리권한 강화나 신고배제 광고물의 축소 등 신고대상 조정, 광고물실명제 도입, 등 신고대상 조정, 광고물실명제 도입, 불법광고물에 대한 처벌강화 등 대책을 마련해서, 법령의 종합적인 개정을 우리 시의 의견으로 건의, 제출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참고로 도시경관 보전을 위해서 옥외광고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실천계획으로 비현실적인 법령 및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약속, 시정운영 3개년 계획에 잘 나와 있습니다.

### (3) 주택문제입니다.

현재 서울시내 건축허가 현황을 보면 용도에 있어서 주거용 64.5%로서 32.4%인 상업용이나 그 밖의 공공용 및 기타 용도에 비해 단연 앞서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주택보급률이 68%에 머물고 있는 서울시의 건축행정수요는 여전히 주택공급 수요가 시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서울엔 주택이 190만여 동, 이중 단독주택이 82만여 동, 아파트·연립 등 공동주택이 105만여 동, 즉 공동주택 비율이 55.6% 더 높은 수치입니다. 이 수치는 92년부터 50% 이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 주로 아파트의 물량공세 이제는 재고해 봐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현재 서울의 주택 중에서 단독주택이 19평 아래가 31.8%, 아파트는 18평 이하가 50.3%, 15평도 안 되는게 28.7%가 됩니다. 정부가 정하고 있는 국민주택

규모인 25.7평에 훨씬 못 미치는 이 주택들이 문제입니다.

서울과 인구가 비슷한 동경도의 주택보유율 40%는 무엇을 말해 줍니까?

주택관련 연구자들에 따르면, 세계 주요국 수도에 이런 고층 아파트와 소형아파트가 밀집되어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최근 시영아파트를 짓는 것을 보면 15평 미만이 40%쯤 되고, 20평 미만이 98%가 넘습니다. 소유하는 주택의 개념 때문에 주택수를 늘리고 층수를 늘리고 해왔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빚어지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공원과 녹지는 줄어들고 경관은 자꾸 해치고, 이러다가 몇 십년 뒤 형편이 나아져서 대다수가 꺼리게 될 시영아파트나 소형아파트는 슬럼가가 될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금년부터 시작되는 미아동 대단위 재개발 등 앞으로 서울 시내 재개발대상 물량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도시미관 확보를 위해 고층 아파트 건설 억제하겠다는 작년 선거 때 시장님의 약속은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적절한 공급을 조절하고, 최소한도 인간다운 주거 공간을 확보하며, 조화로운 도시 경관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은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 다음은

(1)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의 통합일원화문제입니다.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의 통합 일원화-이 문제는 소속 임직원들이 실질적으로 공사의 경영책임자가 서울시장이라고 생각하며, 서울시장만이 사업자의 제반문제에 대한 해결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믿고 있으며, 금년에도 팽팽한 단체교섭에서 시장밖에 찾지 않습니다. 분명히 시장과 직접 대화하려고 할 것입니다.



지난해 시장 선거에서 통합 일원화에 대한 趙淳 후보의 공약을 믿고, 이 노동조합원들 높은 지지를 보낸 바 있습니다. 다른 문제도 있겠지만, 우선 이 문제, 이중 인력관리, 예산낭비, 일일이 예를 들지 않더라도 약속이었으니까 어떻게 하실 것인지 또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시설관리공단의 분담전문화 문제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은 현재 읍지로 지하보도의 운영, 유료도로의 통행료징수, 유료주차장 관리, 어린이 대공원 관리, 장묘사업, 석촌호수공원관리, 불법주차견인 업무 등 다양한 업무를 백화점 식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공단의 방만한 업무 중 일부, 예를 들어 지방도로 관리라든가 장묘사업 및 공원사업 등은 별도의 사업체로 전문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은 여러 군데에서 제기되고 있으며, 조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작년 8월 공단 업무보고 때 시장님께서서는 사업의 다각화 방안 보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잘 검토하도록 제동을 건 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향후 계획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시립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에 대한 최근 5년간 서울시 지원금 규모는 15%, 1.2%, 33%로 증가하다가 금년도엔 전년도에 비해 72%로 대폭 증가하였으나, 국내 최고의 대학인 국립 서울대학교에 대한 정부지원금 1,329억여원과 비교하면,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고, 이제 갓 출범한 인천시립대보다는 2배라고는 하지만, 지방에 있는 부산대, 전남대에 비하면 60~70%밖에 안 됩니다. 금년도에 연구비로 책정된 예산이 겨우 서울학 심

포지엄 관련 2,800여 만원, 서울학을 포함한 연구개발비가 1억 8,000여만원, 턱도 없는 규모입니다.

조순 시장께서 작년 선거 때 공약한 시립대학교 관련사항을 보게 되면, '평생교육·사회교육기관으로 활용하겠다, 시정개선을 위한 연구지원 기관으로 활용하겠다, 서울학연구 지원을 하도록 하겠다, 또 구체적으로도 의대를 설립해서 시립 의료기관을 지원하겠다, 방재관련학과를 신설하여 방재전문가를 양성하겠다' 등 앞으로 시립대가 해야 하고 발전해 나가야 할 방향은 거창합니다.

작년 업무보고때 시장께서는 시립대를 마르지 않는 인재의 샘으로 만들겠다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현재 시립대 중·장기 발전 및 재정운용계획이 자체 기획관리실에서 마련되고 있지만, 시장 공약사항을 총괄하는 본청 기획관리실과 긴밀한 협조 속에서 시립대의 청사진을 마련하고, 소요 예산도 아울러 산출해 내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4) 안전문제 관련입니다.

시장께서 밝히고 있는 시정방향 7대과제 중 으뜸은 안전한 서울입니다. 우리 시장님 발언록을 보면, 부실 건축물은 무너지기 전에 헐어버리겠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시민 아파트 안전문제를 보게 되면, 지나해 23개 지구 176개 동을 대상으로 정밀 안전진단을 한 결과, 철거 대상14개 동, 보수대상 162개 동, 그래서 철거판정 건물은 주민 이주후 철거 조치시키고, 보수대상 건물은 예비비에서 지출까지 해가면서 보수를 한 바 있습니다.

보수비는 서대문 9억 100만원, 종로 5억 1,100만원 등 9개구에 20억1,800만원을 들인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춘계 정밀안전진단 실시전에 해빙기 안전점검결과, 보수를 요하는 6개지구 11개 동, 5개 자치구에 8,800만 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른 시민아파트를, 똑같이 하자보수 책임기간도 서너배 훨씬 지나고, 건물 자체는 소유자가 분명하게 있는 이 건물들에 대해서, 서울시는 안전 위험 한가지 때문에 이같이 예비비를 당겨서 쓴다, 안전점검이나 보수를 계속한다 등등 여러 가지로 관심을 내 보이고 있습니다만, 도봉구 도봉동에 소재하고 있는 도봉시민아파트의 경우, 다른 시민아파트와는 달리 최초 건립될 당시 국방부에서 군인용 아파트로 건립하면서, 1층과 지하에는 병커 시설을 해놓은 특수한 건물입니다. 수년 전부터 집단민원이 발생되어서, 94년 3월 26일 서울특별시 민원심의 위원회에서 지하철 7호선 개설까지 겹친 3중 피해 발생으로 생활권 침해에 대한 보상 및 재건축 등 이주대책 요구에 대하여, 신공법시행 등 피해 대책을 강구하고, 재건축은 불가하므로 시에서 아파트를 매입하는 등 정책적 결단이 요구된다고 심의한 바 있고, 이런 특수한 사정을 감안해서 지난해 11월 감사실 행정사무감사때 민원심의위원회의 주무부서인 감사실에 정책적인 결단의 이행여부를 챙겨보라고 본의원 촉구한 바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정책적인 결단을 내렸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5) 어린이 교통사고의 635가 학교나 집주변 반경1km 이 내에서 일어난다는 녹색 교통운동의 통계가 있습니다.

서울시와 교육청이 협조해서 학교앞 주차공간을 폐쇄하고, 통학로에는 보도블록을 깔아 단차하며, 차량통행이 많은 곳에 가드레일을 설치하는 등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6) 하수국 소관입니다.

한강의 지천들이 건천화하고, 하수천화로 BDD 수준이 저하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이천 등 6개 지천, 금년부터 3개년간 자연형 하천정비를 한다고 하는데, 우이천의 예를 들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이럴 경우 지천이 다시 되살아날 수 있는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이천 주변 무허가 불량주택 정비계획도 함께 추진할 계획인지, 현황과 대책을 같이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7) 현재 공공체육시설, 즉 실내체육관, 종합경기장, 테니스장, 수영장, 사격장이 하나도 없는 자치구가 은평, 중랑, 강북, 도봉 등 강북지역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2011년 목표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안 목표에 보면, 구민회관과 구민체육센터의 건립 지원을 위해 3,000억 예산을 추가 투입한다고 합니다.

구민체육센터 건립은 각구 구민의 체육진흥에 관한 사무로 자치구에서 설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지만, 서울시내무국 업무보고시 매년 보고되고 있을 정도로 중요성이 있어 각구 1개소씩 건립토록 적극 권장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강남 등 9개구는 기 설치 후 운영하고 있고, 공사중 1개구, 기본조사 설계용역 중 3개구, 부지매입 중 3개구를 제외하면, 나머지 도봉, 강북구 등 9개구는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청사가 없는 도봉, 금천의 경우 이래저래 찬밥입니다. 향후 어떤 계획을 세울 것인지 밝히시고, 창동의 미시설 공설운동장-작년 정기회 예산안 예비심사때

본의원이 도봉구와의 협의를 주문하였는데, 현재 도봉구는 탄 장소로 민자 유치해서 시설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면서, 현재의 운동장 부지와 금년도 연구용역사업을 취소해 달라는 요청이 있는 줄로 아는데, 도봉구만의 운동장이 아닌 이 북부지역 전체의 공설운동장, 월드컵 유치에 따른 후속대책의 일환으로서도 어떻게 할 계획인지 밝혀 주십시오.